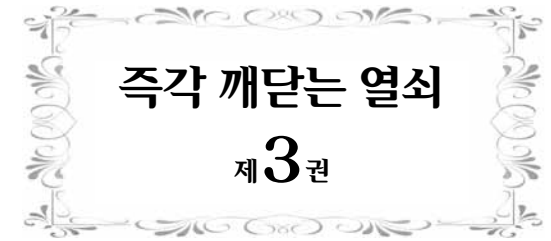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식 제3권



즉각 깨닫는 열쇠
제 3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SM출판사

사랑의 길을 걷다

살아 계신 깨달은 스승의 발자취

우리는 작은 사랑을 찾아
높고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세상 곳곳의
모든 존재와
작은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거나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던 이들에게 다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칭하이 무상사는 사랑의 길을 걷자는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인 그녀의 사랑과 도움은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 전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노숙자, 에이즈와 암 연구 센터, 미국 참전 용사, 불우한 노인, 심신 장애인, 난민, 그리고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녀의 친절에 축복을 받은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의 동물 역시 그녀의 무한한 자비심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자선 활동 속에서 우리는 이 자상한 여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자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국제협회는 그녀의 사랑을 본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때 우리는 뭔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힘과 무한한 사랑, 창조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기 시절

칭하이 무상사는 어울락 중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친 동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그녀는 그곳에서 적십자사의 번역 일을 하며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곧 아픔과 고통이 모든 문화 속에,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책을 찾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독일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2년이 걸린 구도의 길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순례

마침내 그녀는 인도의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깨달은 스승을 만나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명상 기법인 관음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 수행한 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스승은 관음법문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음법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큰 성취와 행복, 평화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과 유럽·아시아·호주·아프리카·남미,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 칭하이 스승에게 강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인도적인 도움을 베푸는 숭고한 귀감이 되고 있는 칭하이 스승은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관음법문 명상을 통해 자생적인 재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창작 예술품(아름답고 정교한 등롱과 음악, 시 등), 미적 감각이 뛰어난 보석·의상 디자인을 통해 당신이 접한 사람들과 문화의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1995년, 대중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런던·파리·밀라노·뉴욕을 순회하는 국제적인 패션쇼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칭하이 무상사의 자선 활동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원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의 자녀를 돕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정과 스승님의 꿈

칭하이 무상사는 그 어떤 형태의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많은 정부와 개인 단체들이 그 사심없는 지원을 인정해 다음과 같은 수많은 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시민 인도주의상, 인류를 위한 뛰어난 공익 봉사상, 2006 구시 평화상, 로스 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은상 등등. 미국에서는 2월 22일과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와

이 호놀룰루 전임 시장인 프랭크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자의 빛이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게 꿈이 있었듯이 그녀 또한 그렇습니다.

“난 모든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추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아이가 평화와 조화 속을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니다.

나는 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길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기를 꿈꿉니다.”

머리말

칭하이 무상사는 강연하실 때
어려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평이한 구어체만 사용하십니다.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스승의 가피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범부의 두뇌로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니다.

CONTENTS

차례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 디자인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포모사'는 그 섬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7
1장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	13
2장	업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49
3장	모든 수행법이 관음법문이다	81
4장	선행과 보시로는 해탈할 수 없다	109
5장	불상에 절하는 것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135
6장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다.....	163
7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1).....	203
8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2).....	225
9장	생사해탈을 위해서는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	255
	관음법문 입문과 5계	287
	간행물 안내	291
	주요 연락처	292

즉각 깨닫는 열쇠
제 3 권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1장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

1장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

1987. 3. 7.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모든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석가모니불은 49년 동안 법을 펼치면서 언제나 해탈법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바로 관음법문을 찬탄하기 위해서였지요. 어제 한 수행자가 나를 찾아와 『법화경』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동수同修(동료수행자)들은 내가 『법화경』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법화경』에는 관음법문과 내면의 소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법화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쉽게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불은 관음법문을 『법화경』에서는 ‘법화법法華法’, ‘연화법蓮華法’이라고 했고, 『금강경』에서는 ‘금강법金剛法’, 『아미타경』에서는 ‘정토법淨土法’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이렇듯 말할 때마다 관음법문을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법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근기나 수행 등급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법문이라 해도 때에 따라 다른 이름을 써서 중생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평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인쇄물을 나눠 드릴 테니 번거롭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자세 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흘 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알았으면 했던 주된 요지는 관음법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날마다 이곳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한가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왜 관음법문만이 최고의 법문이고, 다른 법문들은 궁극적인 해탈법문이 아닌지를 제대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관음법문을 찬탄하고 소개하며 광고만 했을 뿐이라서 여러분은 아직도 관음법문이 어떤 법문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요?

나는 정작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이 법문을 얻을 수 있지요. 이렇게 법을 전할 때는 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도 영원히 이 법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고대의 대선사들도 모두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기 때문에 경전이 필요없다(教外別傳 不用經典).”라고 했습니다. 경전으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경전은 후세들에게 옛 수행자는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깨달은 후에는 무슨 말을 했으며 무엇을 보았는지를 비

교 연구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의 역할이지요. 경전으로는 법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유기』에는 현장법사가 경전을 구하기 위해 겪었던, 중국 대륙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구도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어떻게 마장의 괴롭힘을 받았는지, 또한 그의 제자 손오공이 어떻게 그를 도와 요괴를 물리치고 경전을 얻게 되었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은 현장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유기』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책으로 읽는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전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현장법사가 겪은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손오공의 신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 조금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부처는 『능엄경』·『법화경』·『금강경』 등에서 관음법문에 대해 거듭 찬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음법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엄경』을 통해 관음법문이 최고의 법문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수행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모두들 추측만 할 뿐이지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듣는 것이 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음법문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비주를 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시비를 관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을 먹어도 육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시비是非가 없다고

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심內心을 관하는 것이지 소리를 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음법문은 자비심을 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여기에 앉아 내 앞은 무엇이고 뒤는 무엇이며 오른쪽은 친구들과 친지들이고 왼쪽은 낯선 사람들이라고 관상觀想하면서 마땅히 그들 모두에게 고귀한 이상과 자비로운 생각을 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축복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음법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진정으로 그 뜻을 깊이 이해한다면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추측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며 범부의 머리로 상상해 낸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등급에 이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자비심을 관상觀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범부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언어를 초월한 것이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없이 두뇌만을 사용해서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겠지요.

대비주를 수십만 번 외워서 천수천안千手千眼이 될 수 있다면 포모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관세음보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대비주를 수십만 번씩 외웁니다. 티베트 사람들도 아주 고생스럽게 외우며 어울락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외웁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세음보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비주를 그렇게 열

심히 외우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고 자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탐진치貪瞋癡는 여전히 큼니다. 경전을 외우면 외울수록 그들의 에고는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나’는 수행을 한다, ‘나’는 채식을 한다, ‘나’는 염불하고 예불한다, ‘나’는 자비심을 낸다, ‘나’는 어떠한어떠하다는 등 모두 ‘나’이며, ‘나’라는 것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으며 새로운 법문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두뇌 속은 온통 ‘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을 담을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참된 법문을 알지 못하면 수행하기도 어렵고 쉽게 ‘에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는 그나마 겸손한 마음이 있던 사람도 수행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겨 버리지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경전을 독송하면 복이 있는지 없는지, 독송하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달마대사는 “좋은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대중 웃음) 나는 여러분과 다투고 싶지 않으니깐요. 나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길 좋아한다면 왜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것과 신 것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둘 다 먹을 수 있으며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전을 독송한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좋아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경

전을 독송하는 것은 사람들을 욕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해도 되며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을 독송한다고 해서 복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런 복은 인천人天의 복에 불과하지요. 경전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독송만 해도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녹음기도 성불할 수 있을 겁니다. (대중 웃음) 녹음기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녹음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읽으니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즐기기도 하는데 (대중 웃음) 녹음기는 틀리게 읽는 법도 없으며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든지 불상에 절만 하면 수행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고 외우고 보는 것이 모두 경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직은 경전의 참 뜻을 모른다 해도 감히 그런 교만한 태도는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경을 보고 외운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어도 경전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보며 옛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 서서히 수행하려는 마음을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전을 독송하면 복이 있더라는 말을 듣고 오로지 그 복이 탐나서 많은 경전을 독송한다면, 경전을 독송할수록 ‘나’는 복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으며 만져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에게 복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에고’가 크게 자라서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능엄경』에는 다른 법문에 대해서도 모두 씌어 있습니다. 어떤 법문이든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만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법문을 신뢰한다면 다소간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외워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몰두해서 자신의 이름을 외면 삼매에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몰두’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잠시 아미타불을 외우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에게 일주일 휴가를 주어 쉬게 하고 대신 자신의 이름을 외워 보십시오. (대중 웃음) 그렇게 해도 복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미타불을 외우면 자신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복이 더 많습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Amitabha인데 그 소리가 우주의 진동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발음과 우주의 진동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면의 우주 진동을 들어 보지 못했으니 ‘몰두’해서 부처의 명호를 외우다 보면 범천梵天의 진동을 듣게 되어 얼마간 도움도 될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콩을 가지고 아미타불을 외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염불을 한 번 할 때마다 콩을 한 알씩 옮기는데 염불이 끝나면 그 콩을 모두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서로 인연을 맺었지요. 이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날마다 아미타불을 외우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염불을 다 하고 난 뒤엔 콩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새 콩을 사야 했지만 그 할머니는 새 콩을 살 돈이 없어

서 쓰던 콩을 가지고 계속 염불을 했습니다. 염불을 한 번 하고 콩을 한 알 옮기고 해서 다 없어지면 다시 외면서 한 알씩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았지요. 이렇게 염불을 계속하자 얼마 후에는 손으로 옮기지 않아도 콩이 저절로 튀어서 옮겨갔습니다. 할머니가 염불을 할 때마다 콩이 한 알씩 저절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아미타불을 외웠으면서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미타법문이 아니면 수행할 법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미타불을 좋아하는 포모사 사람들이 정토淨土법문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지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날마다 아미타불을 외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 할머니의 염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감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응은 어디서 오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은 감응이 없을까요? 이 넓은 중국에서 그렇게 몰두해서 염불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대한 중국 대륙에 그런 염력을 가진 사람이 왜 오직 한 사람뿐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염력이 없을까요?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지혜안이 열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다른 중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중생, 작은 중생, 고차원의 중생, 심지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왔다갔다하면서 때로

는 여러분에게 음식이 다 끓었다고 알려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는 그들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중생들은 우리가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우리와 놀아 주려 하고 우리 일을 돕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귀엽고 어떤 것은 고약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 하진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혼령이 아니라 자연에서 화생(化生)되어 나온 ‘원소(元素, Element)’입니다. 자연화생으로 생겨 나온 중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채소에도 이런 중생(Element: 원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갖가지 자연화생으로 생겨 나온 중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생명에는 네 종류의 형태, 즉 태생(胎生)·난생(卵生)·화생(化生)·습생(濕生)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일찍이 2,500년 전에 우리가 일생 동안 보지 못하는 다른 중생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지혜안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꿰뚫어 봤지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연에서 화생한 그런 작은 중생들 가운데 어떤 것은 비교적 선량하여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주 못되고 장난기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놀거나 도와주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부추기는 것을 좋아하는 중생들도 있지요. 이것은 재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그들의 본성 때문

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얘기하는 곳으로 그런 조그만 중생들이 몰려와서 우리 주위를 에워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보살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빛이 항상 좋은 빛만은 아니지요. 그런 빛은 긍정적인 빛이 아니라 부정적인 빛으로서 어둠에 속하는 빛입니다. 그런 작은 중생들에게도 빛이 있기 때문에 지혜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은 두 종류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밝음의 빛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빛이지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있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어둠의 빛이란 좋지 않은 힘을 뜻합니다. 어떤 곳은 그런 중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향을 사르고 소원을 빌 때 그들이 와서 향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우리에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보살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장난치고 노는 것일 뿐이며, 이런 현상은 아주 흔하지요.

이러테면 아무 일 없이 길을 잘 가다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모두 그런 중생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사고가 난 곳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곤 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곳을 ‘귀신 붙은 곳’이라고 하며 그곳을 지날 때는 누구든 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두 차례 차 사고가 난 곳에는 그런 중생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흥분되고 비참한 분위기나 혼란스

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방해를 하지요. 그러면 차에 문제가 생겨 멈추거나 돌발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한쪽에 서서 좋아합니다.

심사가 잘 틀어지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냅니다. 어제 자장(磁場)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좋은 자장(Magnetic Field)이건 나쁜 자장이건 모두 우리 자신이 만듭니다. 우리가 좋거나 나쁜 원소를 끌어당겨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특별히 다른 상황도 있긴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재앙이 비교적 적으며 병에 걸리는 일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최고의 힘이 함께하니까요. 이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내가 소리가 무엇인지 말했지요. 그 소리가 바로 창조의 힘입니다. 이 소리를 『능엄경』에서는 ‘음류(音流)’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말씀(the Word)’이라고 했습니다. 불보살은 그 음류에 의지해서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고, 그 음류에 의지해서 올라갑니다(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음류’이고 ‘도’이며 노자가 말한 ‘이름할 수 없는 이름(名不可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나 ‘음류’와 서로 통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주는 다른 힘은 없고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서 아주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대한 단체에는 본래 큰 힘이 있습니다. 혼자 힘은 보잘것없지만 이 거대한 자유의 단체, 거대한 힘과 같이 있게 되면 다른 좋지 않은 것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흑과 백,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힘과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은 힘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들의 단체를 벗어났으며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엔 마귀나 염라대왕이라 해도 관음법문 수행자에게는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장’이 변해서 예전과 달리 좋은 것만 흡수하고 나쁜 것은 흡수하지 않으니까요. ‘음류’가 우리의 좋지 않은 자장을 씻어내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자장만 남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우리의 자장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좋고 어떤 곳은 좋지 않았습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는 좋은 것들을, 좋지 않은 곳으로는 좋지 않은 것들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의 ‘음류’, 이 창조의 힘, 근원의 힘으로 자장을 수리하여 좋지 않은 부분들을 모두 씻어 버렸습니다. 마치 수술을 해서 병든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꿰맨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병이 없어져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과 같지요.

관음법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음의 거대한 힘으로 영양 부족인 우리의 힘을 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재난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진정으로 열심히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수행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드물지요. 우리는 한 번만 그 힘과 통하게 되면 영원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주 작은 힘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깨어서 유산을 보관해 둔 은행이나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돈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는 않겠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재산이 많다는 걸 벌써 알고 있으니깐요. 다만 그 재산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두 우리 자신의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재산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의 생활은 당연히 좀더 풍요해질 겁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갖가지 산해진미를 맛볼 수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깨어서 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예전과 별 차이 없이 적은 살림으로 궁핍하게 살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친지나 친구, 이웃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입문해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스승에게 법을 전수받고 그 거대한 힘과 연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주의 가장 큰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성장할 시간은 필요합니다. 입문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정한 인간의 품성이 계발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반쪽 인간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의 운명이나 생활, 그리고 성격의 변화가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하루나 이틀 또

는 일주일만 지나도 수행의 이로움과 관음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생활과 성격이 변하고 지혜가 계발되어 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것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변화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달려나가 말을 할 테니까요. 관음법문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법문이라고 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모두 표준 중국어를 알아들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같이 생긴 이 조그마한 섬 포모사만 해도 언어가 두세 종류나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지요. 만일 모든 사람이 '관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소리만 있다면 모든 중생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부처는 한 가지 소리, 한 가지 언어로 말하지만 중생은 제각기 다른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리, 내면의 이 아름다운 음악은 전화 시스템처럼 장거리 전화 교환대를 통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가오슝·타이난 같은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개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지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있는 곳을 즉시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2분 내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경찰이나 이웃, 또는 친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도움을 청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
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고 병
이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플 때 전화만 한 통 하면 곧바로 의사가 달려오
든지 앰블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 가고, 택시까지도 집앞에 와서
사람을 싣고 갑니다. 아주 편리하지요.

관음의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 소리, 내면의 이 음악은 하나의
시스템이나 한 줄의 전선과 같이 모든 중생을 한데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중생들과 서로 통
하게 되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지요.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중생들을 알게 됩니다. 이
를테면 우리가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친구를 알
고 있다는 표시이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는 뜻이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 그런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류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중생들을 다 이해하
게 됩니다. 새나 개미, 심지어는 더 미세한 중생들까지도 모두 이해
하게 되지요.

미국에서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든지도 알 수 있고, 프랑스에
서 누가 우리를 그리워하는지도 즉시 알 수 있으며, 화신을 나누어
그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의 수행이 높으면 그가 화신으
로 우리를 보러 올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
화하는 최첨단 화상전화 시스템이나 텔레비전의 원리와의 같은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관음의 시스템은 전화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효
과적이어서 돈이나 전선이 필요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누구와 연
락하려 하고 누구를 보러 가려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
든 비행기표를 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
짝도 걸을 필요가 없고 한마디의 말도 필요없으며 한치의 생각도 필
요없지요. 이 시스템은 가장 빠르고 간단하며 자동적이어서 관음법
문을 수행한 다음에는 위로는 불보살과 통하고 아래로는 삼도고르
三途苦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보사중은上報四重恩, 하제삼도고下濟
三途苦(위로는 네 가지 중한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고를 제도한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힘과 서로 통하기 전에는 중생을 제도한
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고, 또 내일
어디로 갈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모두가 표준 중국어를 압니다. 적어도 99퍼센트
는 알아들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알아들을 것이며, 여러분의 본성이나 불성이 알아들을 테니
까요. 사실 여러분은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는 눈만 바라봐도 충분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들도
그런 식으로 서로 통하는데 나라고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통하지
못하겠어요? 내일은 두 시간 동안 내 눈만 바라보다 가십시오.

정말입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은 특별히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보고 싶어서, 안 보면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 듯 그리워서 나를 보러 오는 것이지요. 우리 둘은 서로 한참 동안 눈을 바라보고 나서 그는 떠나고 나는 다시 가서 명상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문은 ‘조용한’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깐요. 법을 전할 때도 말을 하지 않지요. 선칠禪七(7일 동안 함께 모여 명상하는 것)을 할 때는 더욱 말을 하지 않으며, 스승을 보러 가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한 법문이라 해도 되겠지요? 물론 여러분은 ‘관음’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조용합니다. 소리를 관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모르지요. 이웃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와 함께 사는 남편이나 부인, 자녀들도 모릅니다. 이 소리, 이 경지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그러한 심경心境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불교 신자라서 광친 노스님에게 귀의하여 범명을 받고 날마다 광친 노스님의 사진에 절을 하거나 불상에 절을 하고 염불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천주교인은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며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불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버스 안에서든 수행할 수 있고 공원이나 화장실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요.

얼마 동안 수행을 하고 나면 일부러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 내면의 음류와 함께 있게 되고, 내면의 음류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충직하고 가장 도움이 되며 가장 이기심이 없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줄 것이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즉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쓰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도 선禪, 밥을 먹어도 선, 잠을 자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행주좌와行住坐臥 가운데 선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등급에 이르기 전에는 선이란 이러저러해야 한다면 서 ‘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너무 많은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수행이 높고 생활이 곧 선인 사람이 그렇게 논쟁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우습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지혜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법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관음법문에 대해 좀더 소개하지요. 물론 이것은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음법문을 얻으려면 내가 침묵할 때라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관음법문을 다 배운 걸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관음법문은 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데 합쳐져야 관음법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두뇌로 무언가를 '생각(念)'할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남편을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인을 '생각'하지요. 이 사람은 학업에 대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직장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를 줄이려면 오직 아미타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이 무량광(無量光)을 대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자신이 바로 무량광이지요. 그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만일 아미타불의 형상을 본다면 그것은 아직 음품과 색(色)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무량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밝은 품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서 욕심·성냄·어리석음·번뇌·깨달음·무지·자비·악한 마음들과 같은 많은 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밝고 빛나는 품성과 능력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며,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비의 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갇혀진 그 힘을 일깨워 우리 스스로 이들 고귀한 품성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보불(三寶佛)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삼보불이란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미타불처럼 깨달음과 빛이 있어야 하고, 대세지보살

처럼 지혜와 힘이 있어야 하며, 관세음보살처럼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보불은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처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품성에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미타불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생각을 하더라도 서로 통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르테면 서시가 당대 최고 미인이었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들어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녀를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내만 그리워할 뿐이지요. 우리는 서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서시는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옛날에 가 버렸고 여러분은 그녀를 모르니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를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외우지만 모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아미타불과 교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량광을 본 적도 없고 이 무량광과 교류한 적도 없으며 창조적 큰 힘, 내가 조금 전에 말한 '이름할 수 없는 이름'과도 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비심과 서로 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원다면 번뇌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입으로만 '외우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생각하다 보면 어제 싸웠던 일이 떠올라서 ‘정말 지독한 여자야. 그녀와 이혼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대중 웃음) 이렇게 아내를 떠올리면 저절로 번뇌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미타불만을 생각하고 그의 명호를 외다 면 그 지독한 아내나 보기 싫은 남편은 잊게 되어 자연스럽게 번뇌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번뇌만 조금 줄일 수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 가려고 해도 먼저 비행기표를 사야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몇 마디 아미타불을 외었다고 해서 서방 정토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서방 정토에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불을 하면 번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좀더 총명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복이 생기는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펴봐야지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미타불을 외는 걸 보고 덩달아 열심히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귀찮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은 거요?” 하고 짜증을 낼 겁니다. (대중 웃음) 또 아이가 와서 보채거나 귀찮게 하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며, 어찌면 들고 있던 염주를 휘두르며 아이를 쫓아내기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염불’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으로서 우리의 밝은 품성을 대표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자비심을 대표하고 대세지보살은 우리의 힘을 대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들 세 분야의 품성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품성들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십팔 불을 외며 더 많은 품성을 포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불을 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삼만 불을 외는 등, 수도 없이 많은 부처의 이름을 외니다. 시방삼세에는 대단히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성불하면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 대자재大自在한 사람이 되는데 우주가 창조된 다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성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요. 아마 다음에 내가 성불한다면 여러분은 나무칭하이불을 외 겠습니다. (대중 웃음) 그러면 부처의 수가 또 하나 늘게 되겠군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처를 외는데도 우리에게는 왜 여전히 번뇌가 많을까요? 왜 아직도 지혜가 열리지 않을까요? 왜 성불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압니까? 그것은 마치 우유를 외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유를 원한다고 우유가 생기겠습니까? 우유를 마시려면 우유 파는 곳에 가서 사야 합니다. 거기서는 굳이 우유를 달라고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됩니다. 돈만 내면 곧 우유를 가져다주지요. 그렇지 않고 집에 앉아서 ‘우유, 우유……’라고 수만 번을 외운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대중 웃음) 우유 역시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지도 않지요. 돈이 필요할 때도 집에서 ‘돈, 돈, 돈’ 하며 원다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소 은행에 가야 합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은행 직원에게 수표를 내밀기만 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의도를 알 겁니다. 자신

들의 은행에 여러분의 돈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즉시 돈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높은 사람들은 “무엇하러 염불을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부처이며, 부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 필요없고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예를 들어 아직 서로를 잘 모를 땐 전화나 편지를 해서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찾아가야 하던가요. 그러나 몇 번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만나도 말이 필요없이 그저 눈만 봐도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염불’을 하려면 부처와 서로 알고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비록 우리가 염불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해도 부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돈만 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부처의 이름을 외다 해도 우리는 모두 고독한 부처, 작은 부분의 부처만을 외 뿐 큰 부처(大佛)를 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이 부처가 저 부처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아미타불을 찬탄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의 명호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호는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입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는 것이 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과자를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자를 광고하는 것은 과자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진짜 과자는 아닙니다. 진짜 과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외는 아미타

불은 우리의 밝은 부분을 대표하고,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자비심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것은 외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빈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군인들은 항상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철갑을 입어 자신의 몸을 보호했습니다. 두 눈만 빼고 온몸을 철갑으로 둘러쌌지요. 그래서 적을 죽이려면 철갑을 두르지 않은 곳을 찾아서 그곳을 찌르거나 투구를 벗겨 머리를 노출시키고 난 뒤에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외는 것은 아직 빈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갑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호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세계의 교주일 뿐입니다. 동방에는 약사불이 있고 남과 북, 그리고 위와 아래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만이 아니라 시방삼세에도 있지요. 이렇게 많은 부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다 외겠어요? 또 모든 세계마다 최고의 교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교주를 모른다면 아무리 염불을 한다고 해도 작은 한 부분만을 외우는 것일 뿐입니다. 염불을 하면 유익하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왕궁에 들어가려면 왕궁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곧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다른 관리들만 찾다보면 길을 잃게 되지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을 외워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방의 교주일 뿐 모든 세계의 교주는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마다

동서남북 많은 지역의 부처와 시방 및 삼세의 부처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최고의 교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교주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염불할 때 좀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주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교주들과 친분이 있는 스승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소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 그가 미국의 대표라는 것을 안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백악관에 데려가서 “이 사람은 칭하이 무상사입니다. 아주 좋은 분이니 이분이 흥법하는 것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주고 또 “이분은 대통령입니다. 나와 절친한 사이이지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부탁하십시오. 성실하게 도와 드릴 겁니다.”라며 대통령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그와 직접적인 친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름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란 누구라도 부를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미국에 레이건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의 명호를 외려면 먼저 그 부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어

야 합니다. 서로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레이건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집에 앉아 대통령의 이름을 계속 원다고 해서 그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니까요. 그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나 또한 그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모모라는 이름의 내 친구가 당신을 찾아갈 테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먼저 나를 소개한 뒤, 나에게 “내가 이미 당신을 대통령에게 소개해 두었으니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염불을 해 왔지만 아직 부처를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이 여러분에게 염불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을 때와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부처와 잘 아는 스승만이 여러분에게 염불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염’하도록 가르칠 때도 그는 이미 아미타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서방세계에 데리고 가서, 이 제자들은 모두 채식을 하고 명상 수행을 하며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증하면서 아미타불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석가모니불의 제자들은 염불을 해도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입으로만 외는 염불은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집중해야만 번뇌

를 줄일 수 있지요. 이렇게 집중해서 염불을 한다면 조금은 소용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나는 아미타불이 서방세계의 교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체를 대표하는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서방세계를 외면서 마음은 남방세계에 묶여 있다면 서방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부처를 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부처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부처가 있는 곳이 바로 불국토이니 어느 곳을 가든 부처만 있으면 됩니다. 꼭 서방세계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서방세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아미타불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 최고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이름은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가 명名可名 비상명非常名(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한 그 이름이 아니다.)'이기 때문이지요.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으면 스승이 소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스승은 부처의 친구이거나 부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부처에게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부처의 고용인도 부처를 알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우리를 부처에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왕의 주방장을 알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 아니겠어요? 언젠가 왕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별로 힘이 없는 일반 관리를 알고 있다면 왕을 볼 기회가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관리 자신도 왕을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요. 만일 우리가 부처의 고용인과 친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부처의 고용인이나 부처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쯤으로 알면 됩니다. 부처와 친분이 있으니 여러분을 부처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지요. 만일 우리가 왕의 주방장과 친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방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왕에게 부탁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왕에게 한마디도 못 할지 모릅니다. 왕을 보면 덜덜 떨려서 감히 아무 말도 못 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어쩌면 왕을 해치려는 무리들로부터 왕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어서 큰 행사 때가 아니면 왕을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왕을 보호하는 업무 외에 특별히 왕과 나눌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에게 왕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친분을 맺고 싶다면 반드시 부처와 잘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의 심부름꾼은 사무실의 사환과 비슷합니다. 사환은 사장을 잘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장을 만나고 싶어하면 그는 여러분을 사장에게 데려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과 친분이 없다면 사장과 가깝고 친한 사람을 만나 그의 안내를 받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체험도 하게 되고,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교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사진을 보거나 왕의 이름을 듣는 것은 왕을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나 이름은 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왕을 안다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범부의 언어로 부르는 이름 역시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를 알고 부처의 진정한 이름을 아는 것 또한 ‘이름할 수 없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일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남편 생각, 부인 생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번뇌 같은 많은 것들을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지요. 이렇게 세속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큼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빛의 품성만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우리가 염불을 하려면 우리 내면의 좋은 품성을 모두 일깨워 계발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부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빛의 품성을 확장해 줄 뿐이며,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우리의 자비심을 확장해 줄 뿐입니다. 우리의 좋은 품성을 모두 다 계발시킬 수 있는 부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명호를 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명호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두뇌는 염불을 좋아하고 무엇이든 닦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줄 것입니다. 바로 제일 좋은 생각,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이름을 외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의 고귀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품성들을 계발시킬 수 있습니다.

관음법문도 ‘염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

이 아니라 최고의, 큰 힘을 가진 부처를 염하게 되지요. 염불을 할 때 스승의 힘(부처의 힘은 스승에게 있음)이 그 이름을 축복하기 때문에 염불을 하면 아주 좋은 감응이 있습니다. 설령 아미타불을 염하더라도 스승의 가피력이 있으면 똑같은 감응이 있습니다. 만일 아미타불을 포기할 수 없다면 입문한 다음 아미타불을 함께 염해도 괜찮습니다. (대중 웃음) 그래도 마찬가지로 감응이 있을 거예요. 입문 전에 아무리 아미타불을 외워도 소용이 없던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뒷받침해 주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선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돈, 돈, 돈……” 하고 외워도 돈이 한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외운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믿지 말로만 돈이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호사스러운 부자같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벌써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니까요. 이것은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침착하고 용감하게 “죽여 봐! 나는 힘도 세고 충도 있으니 겁나지 않아!” 하고 배짱 있게 말하면 상대방이 진짜인 줄 알고 선뜻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벌벌 떨면서 “나, 나……거, 겁 아, 안 나. 초, 충……도 이, 있어. 너, 너는……나, 나, 나를……모, 못……주, 죽……여.”라고 하면 그는 여러분이 겁쟁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할 때 스승의 보호하는 힘

이 없으면 마귀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하지만 스승의 보호하는 힘이 받쳐 준다면 염불하지 않고 스승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귀는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 관음법문에도 염불이 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힘 있는 부처의 이름을 외게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부처의 이름을 다 외우기도 전에 가짜 불보살로 위장한 마귀는 1초도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몹시 싫어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하려 듭니다. 우리가 외는 불호佛號의 힘을 견딜 수 없어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염불’인 것입니다.

그 불호를 염하면 무량광, 아미타불광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빛과 함께하며 빛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 빛을 염하며 그 빛과 함께 잠을 자고 그 빛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빛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곳이나 빛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량광’입니다. 측량할 수도 없고 없는 곳이 없어서 무량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량광과 통하게 되면 날마다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좋은 품성을 계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 우리를 서방 정토, 불국토 그리고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를 염하고 빛을 보는 것 외에 우리 내면의 오묘한 진동을 ‘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음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보고’ ‘소리를 관하고’ ‘부처를 염하는’ 것 모두 반드시

스승에게서 법을 전수받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을 전할 때는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인傳心印’이라 합니다.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지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진심真心입니다. 생각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전심인傳心印(입된)’을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은 언어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직 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법’ 또한 없습니다. 전할 당시에만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법無相法’인 것입니다. 육조 혜능은 자신이 전하는 것을 ‘무상법’이라고 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석가모니불은 “모든 법은 다 공하다(諸法空相).”라고 묘사했지요. 육조 혜능이 말한 ‘무상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처는 그 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한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감각·지각·경험·인식도 없고, 눈·귀·코·혀·몸·생각도 없고, 빛깔·소리·향기·맛·감촉·법도 없고, 시각의 영역이나 인식의 영역도 없으며……(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乃至無意識界……).”

아무것도 없기에 ‘무상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한 그 이름이 아니다(名可名 非常名).”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법’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음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리낼 수 없는 소리(音不可音), 이름할 수 없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법도 없습니다. 다만 법을 전할 때에만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얻을 수가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법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전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을 전할 때는 비록 말도 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법’도 없지만 우리는 ‘법’을 얻게 됩니다. ‘1+1=2’라는 것처럼 아주 명백히 알게 되지요.

선은 말을 하지 않고 언어가 필요없다고 해서 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무상법이기에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법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 전한다’라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지요.

이 자리에서 백 년, 만 년, 억 년 동안 관음법문의 공덕에 대해 찬탄한다 해도 모자랍니다. 오직 진지한 수행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말이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루라도 명상을 거르거나 하루라도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으면 마치 온몸이 가려운 것처럼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인지 즉시 알게 되지요.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석가모니불이 관음에 대해 찬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는 “만일 우리가 관음의 명호를 안다면

그것은 백천만억의 다른 보살의 이름을 외는 것보다 공덕이 많고, 백천만억의 다른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공덕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관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고, 우주의 음류이며, 온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는 진동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공덕을 지닌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입문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업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2장

업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1986. 3. 6.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오늘은 ‘관음법문觀音法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마지막 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강렬한 바람 때문에 오늘로 앞당겨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관음법문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먼저 ‘소리(音)’란 무엇이고 ‘관음觀音’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관상觀想’을 한다는 뜻이고 ‘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평소 누군가를 관상할 때 범부의 두뇌를 가지고 관상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 큰지 작은지,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심지어는 성격이 어떤지도 관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상한 것과 실제적인 상황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부의 두뇌를 가지고 불성을 관찰하면 갖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류는 아주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창조하며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총명해서이지 지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지혜가 전혀 없었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거나 알 수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총명함도 지혜에서 나오니까요. 그것은 지혜 가운데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소리에 대해 얘기한 다음 초자연계의 소리, 즉 부처의 소리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음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랬다면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를 들어 고전 음악은 부드러운 편이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평온하며 선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상하고 선한 군자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재즈 음악이나 로큰롤 음악은 격동적이라서 어려서부터 이런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아주 힘들습니다. 음악은 오늘날 인류의 개성과 품격을 대표합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어 그들의 정서를 안정시킵니다. 우리도 일에 지쳐 피곤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걸 느끼지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이 진동이 변해서 소리가 되는데,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전파가 라디오를 통해 소리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동하는 우주 만물은 모두 저마다 다른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풀·나무·사람 등 모든 것이 나름대

로 특수한 진동 주파수를 지니고 있지요. 바로 이 진동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남편과 부인 사이에 교류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동 주파수가 부드럽지 않아서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은 웬지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동 주파수가 말하는 기운이 아주 부드러워서 그들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곧바로 편안하고 즐겁게 되지요. 또 어떤 곳의 진동 주파수는 우리와 거의 비슷해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즉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며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그의 주파수가 너무 낮고 무겁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의 업장이 너무 무겁고 나쁜 마음이 너무 강하며 마장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음기(陰氣)가 강한데 우리는 양기(陽氣)가 강해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의 진동 주파수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 광산이 있는데 이들 모두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기엔 불안정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에게는 모든 곳이 다 정토이고 성지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몇 무지한 사람이나 목석같은 사람들을 빼고는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조화롭지 못한 기운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다. 그러나 수행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어느 곳에 있든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는 상대방 진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부드럽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변하지만 그 사람이 격동적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흔히 보살들은 사람들의 업장을 대신 짊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진동, 다시 말해 업장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받고, 자신의 좋은 진동을 사람들에게 바꿔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행의 힘으로 그런 업장을 금방 씻어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 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소 시간 차이가 나겠지만요. 업장을 씻기 전에는 그도 사람들의 업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거나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해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들의 업장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석가모니불에 대해서는 그가 중생의 업장을 짊어졌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찍이 99명을 죽이고 나서 다음으로 부처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부처에게 제도되어 수행을 하고 최후에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만일 부처가 그의 업장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의 업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면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석가모니불의 크나큰 공덕 때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그의 업장을 갚아 줄 수 있을 정도로 복덕이 무량무변했기 때문에 문

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과보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불이 그를 대신해서 업장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해탈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런 위대한 스승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우리로서는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많은 업장을 깨끗이 갚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위대한 스승들은 세세생생 수행하고 크나큰 복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짐을 들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힘이, 수행자에게는 수행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량무변해서 우리 육체의 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입문을 하면 5대가 천도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수행의 힘으로 그들을 모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의 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큰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연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말이 아주 잘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무엇에 눌린 듯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몹시 피곤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을 입문시킬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지만 어떤 때는 곧 죽을 것같이 힘이 듭니다. 그것은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나 입문하러 온 사람들의 진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진동수를 업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진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인과의 법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세세생생 지은 업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부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신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까요? 왜 누구는 총명하고 누구는 어리석을까요? 왜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쁠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였지만 이 사바세계에 올 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지혜를 대부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와 높은 경지의 세계는 다릅니다. 높은 경지의 세계는 수행해서 진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어 갈수록 편안하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지만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쉽게 퇴보시켜 더 어리석고 나쁘게 만들지요. 극락세계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조금의 고통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대자연과 투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석가모니불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했고 이 세상의 물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형상이 있고 물질이 있고 분별이 있는 곳이며 추위와 더위, 아름다움과 추함,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곳으로 극락세계와는 다릅니다.

극락세계는 형상도 없고 물질도 없고 분별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외면으로 향하는 중생이 되고 말아서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이 좋다거나 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끌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신

의 위대한 지혜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갈수록 위대한 우주의 힘과 분리되어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좋아하는 물건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 무의식중에 자기 자신을 조그마한 테두리 속에 가두게 되었지요. 원래는 분별이 없었는데 (극락세계에서는 모두가 같은 황금빛 신체를 가지고 있고 남녀 구별도 없음) 점차 서로를 분별하는 인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가지의 물질에 정신이 온통 팔리는 바람에 점점 우주의 커다란 힘과 단절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갠지스 강가에 산다고 합시다. 그는 도처에서 수원을 얻을 테니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언덕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끌려서 마음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갠지스 강을 떠나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원래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물이 필요할 때 할 수 없이 근처 아무데서나 물을 찾아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그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겠지요.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지혜가 부족해 집니다. 또한 그렇게 지혜가 부족해질수록 안정감이 없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니 욕심만 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특수한 자장을 형성해서 우리를 에워싸는데,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자장 역시도 저마다 다릅니다. 같은 것은 서로 흡수

하고 다른 것은 서로 배척하는 특성이 있어서, 욕심이 많거나 흥분을 잘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격동적인 상황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장이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것에 이끌리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업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장이 매번 좋지 못한 힘이나 장애가 되는 힘, 어리석은 힘, 마장의 힘만을 흡수하고 위대한 지혜는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데, 그것은 그의 자장이나 세세생생의 습관이 아직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장이 점차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선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경전이나 『도덕경』에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아져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써어 있지요.

우리의 습관이나 자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이 생겼다는 것은 두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식관이나 요가 같은 것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려면 반드시 자신의 두뇌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단전이나 뼈, 물 따위를 관하고 호흡을 주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관음법문만이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관음법문에서 말하는 이 소리는 ‘부처의 소리’이고 우리 본성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초월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범부의 귀로는 들을 수 없기도 하지만 또 어떤 중생이든 다 들을 수 있기도 함

니다. 다만 자신의 등급에 따라 저마다 다른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진동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돌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도 미세해서 이 귀로는 들을 수 없고 반드시 지혜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 않고 ‘소리를 관한다(觀音)’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중생에게 다 소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왜 이 소리를 관할 수 없을까요? 바로 열쇠가 없어서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스승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 소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이 모두 함께 이 소리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경지에서 낮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소리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진동이 다르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함께 있기가 어렵다고 말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동이 동물의 진동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어떤 지역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도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런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보다 나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진동이 너무 낮거나 동물의 진동과 비슷해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해서일 겁니다.

이를테면 돼지나 청개구리는 아주 더러운 곳에서도 즐겁게 잘 삽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분위기가 그곳과 잘 맞기 때

문이지요. 우리의 진동은 비교적 높고 부드러워서 그런 낮은 진동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 그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이 흉악한 사람과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 최고의 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일부분, 그것도 진동이 높지 않은 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진동이 높지 않기 때문에 등급이 높지 않은 이 세상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포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소리’이며 우리 ‘본성의 소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리를 가지고 수행한다면 자신의 진동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빛이 나고, 우리가 설법을 하면 청중들이 아주 좋아해서 사람들을 제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자장이 부드럽게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을 해탈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동으로 그들을 에워싸서 그들의 좋지 않은 진동을 제거하고 대신 그들에게 좋은 진동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통해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바꾸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통의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넣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진동이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나쁜 진동을 바꿀 수 없습니

다. 그럴 경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중생을 제도하려면 반드시 자신부터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생활하려면 이 세상의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 도구(스승님이 자신을 가리키심)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또 이 도구(영어 통역자를 가리키심)는 영어를 잘 못하며, 이 도구(대만어 통역자를 가리키심)는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세계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방세계에 가고 싶습니까? (대중: 예.) 원하는 사람은 꼭 관음법문을 수행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방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아미타불을 외려면 먼저 아미타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염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아미타불을 외는 것은 아직 A, B, C를 배우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염불의 ‘염’이란 생각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부처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관음법문은 염불법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최고의 염불입니다. 날마다 큰 소리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는 것은 진정한 염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미타불의 머리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앞에서 우주 만물은 모두 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이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도덕경』에서는 이것을 ‘명’ 또는 ‘도’라고 했는데, 노자가 말하기를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불변한 그 도가 아니며,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변한 그 이

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명’이나 ‘도’는 바로 소리, 또는 진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문과 현대문의 사용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우주 만물은 모두 다 이 ‘이름’이나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 소리의 일부분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소리 가운데 최고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완전히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큼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이 소리를 완전히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등급은 못 되지요. 만일 우리가 이 소리를 수행하고 이 소리에 의지해서 부단히 자신을 끌어올리고, 더 높고 더 많은 소리를 얻어 완전히 보유하게 된다면 그때 우주의 어떤 중생과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이 소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를 완전히 보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곳이 정토이고 모든 사람이 부처이며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 ‘듣자니……’이라 한다,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如是我聞)’라는 말들 뿐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것은 경전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전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해도 체험을 하게 되는

데, 그럴 때는 경전에 쓰여진 내용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옛사람들과 우리의 체험이 같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험이 옛사람들의 체험보다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등급이 그들보다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 기록을 남길 당시에는 수행 등급이 그리 높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 그들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어쩐 우리가 그들을 조금 넘어 서긴 했겠지요.

이제 우리는 이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진동이나 소리가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요. 이 세상과 극락세계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동물들도 있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불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즐거운 사람, 고통 받는 사람 등 아주 많은 종류의 기운이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마음 편히 수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많은 장애, 또는 좋지 못한 기운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아주 빠르게 진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인天人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늘 육신을 하찮게 여기지만 육신이 없다면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귀한 보배이므로 잘 보살펴야 하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말고요. 그리고 몸을 너무 차거나 뜨겁게, 너무 무리하거나 피곤하게 하지 말고 잘 보호하십시오. 고행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

은 자신을 처벌하는 것이며,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과거불이고 현재불이며 미래불이니 마땅히 자신을 존중해야지 어떻게 함부로 고행을 해서 자신을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물론 문제가 다르겠지요.

예컨대 여러분은 내가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할 때 날마다 생식만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곳은 지대가 높고 공기가 희박하며 기온과 기압이 낮아 밥을 짓건 반찬을 하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차라리 생으로 먹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갠지스 강물에 씻은 뒤 약간의 소금만 곁들여 먹었지요. 결코 고행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포모사의 어느 산에 있는 절에서 3개월 동안 하안거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돌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약간의 현미에다 깨와 소금을 뿌려서 물과 함께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만일 음식 때문에 날마다 시장에 간다면 어떻게 안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만 보러 다니는 꼴이 되겠지요. (대중 웃음) 이런 것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있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결코 고행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행으로는 성불할 수 없으며, 그저 고행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무슨 고행을 더 하려고 합니까?

성불을 하려면 관음법문을 수행해서 지혜로써 이 근원의 소리를 관해야 합니다. 이 소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주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힘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위대한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작고 어두운 배(단전을 가리킴)나 무상無常한 호흡에 의지해서 수행하려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명상할 때 몸을 조금 움직이게 되거나 죽어서 호흡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수행할 건가요?

그러나 이 위대한 힘에 의지해서 수행하게 되면 몸을 조금 움직이거나 죽는다고 해도 우리의 주인이 이미 그 소리와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미 해탈했기 때문에 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돌보고, 우리를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크고 높으며 근원적인 이 소리에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 태초의 소리는 인간이 아직 생겨나기 전,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삼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영원불변한 힘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영원히 존재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상한 호흡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무상한 경지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능엄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모두 다 잠시 사용하는 것일 뿐 영원한 법문은 아니다. 오직 관음법문만이 영원하고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정확한 수행법문이다.” 관음법문을 수행해 보면 여러분도 석가모니불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질을 할 때, 나 또한 가끔 동수들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동수가 여기가 아프

다 저기가 아프다고 말하면 나는 그에게 누워서 심호흡을 열 번이나 백 번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때 마침 그에게 문제나 장애가 조금 생겼기에 그런 방법을 통해 그의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일 뿐 무슨 다른 수행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수행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요.

또 평소에 말이 아주 많은 어떤 사람이 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에게 혀를 입천장에 붙여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그것은 말이 많은 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하나의 방편일 뿐 다른 쓸모는 별로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호흡을 몇 번 한다거나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방법들은 수행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다른 방편법의 하나일 뿐이지요.

이것은 마치 밥을 먹을 때와 비슷합니다. 밥상 위에 채소·두부·글루텐 등이 있을 때 채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맛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추나 후추, 간장 같은 양념을 첨가해서 먹으면 맛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념이 주식이 될 수는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관음법문 이외의 수행법은 양념에 불과하며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우주의 시작은 소리(Word)였다. 이 소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 소리가 바로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이 소리에서 창조되었으니 그 소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In the beginning was the Word(Soun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everything

was made by this, and nothing was not made by this).”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덕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 명가명名可名 비상명非常名 무명천지시지시無名天地之始 유명만물지모有名萬物之母”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 생겨나자 우주 만물이 비로소 창조된 것입니다.

힌두교의 가장 유명한 경전 가운데 하나인 『우파니샤드Upanishad』에도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가 시작되자 바로 이 소리가 있었으며, 이 소리가 생기자 우주 만물의 생성이 시작되었다. 이 소리가 바로 하느님이고 이 소리가 바로 창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교·도교·기독교·힌두교·이슬람교 등 모두가 같은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이런 경전들을 다시 연구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깨달은 뒤에는 종교만 다를 뿐 어떤 경전이든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세들이 교주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 종파로 나뉘진 것이지요. 불교·기독교·이슬람교 등 어느 종교든 간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파는 모두 다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내가 관음법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포모사에 아직까지 이 법문을 가르친 사람이나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외도外道를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아미타경』 안에 있는 심심미묘甚深微妙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미타불을 염하라고 가르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사람들

에게 아미타불을 염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다른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염불법문·관음법문·금강법문은 다 같은 법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알고 나면 모두가 같은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오직 한 가지 법문만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가 떠나자 수많은 종파로 변한 것입니다. 부처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어쩌면 그의 수제자는 다른 곳에 가서 관음법문을 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일반적인 불교만을 알고 있었다면 그 수제자가 관음법문을 가르칠 때 새로운 종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임제종·조동종·정토종·천태종 등이 모두 그런 경우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 법문들을 모두 수행해 봐서 잘 압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직접 체험한 것들입니다. 평후에서 강연할 때 이미 서로 다른 법문들의 공통점에 대해 말한 적이 있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평후에서 강연한 녹음테이프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하 Q): 염불을 하면 효험이 있습니까?

칭하이 스승(이하 A):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효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인간의 머리는 너무나 복잡해서 무념의 상태가 되기 힘듭니다. 늘 남편 생각, 부인 생각, 명예 생각 같은 수없이 많은 번

뇌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지요. 만일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염불을 한다면 적어도 잠시 동안은 세속의 일을 내려놓고 머릿속을 청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번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염불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불을 할 때는 ‘마음’으로 집중을 해야지 ‘입’으로만 외워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해서 그런 상태에서는 염불을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면 할수록 번뇌만 더 쌓이게 되겠지요. (스승님, 제가 관음법문을 배울 때까지는 전처럼 그대로 염불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Q: 경전을 보는 것과 독송을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A: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경전의 뜻을 모를 때는 경전을 보거나 독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독송은 잘하는데 그 뜻은 모릅니다. 만일 경전을 보는 것이 경전의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바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보는 것이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경전을 보십시오. 독송을 할 때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그 속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테니까요. 경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경전을 보거나 독송한다고 공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보기만 할 뿐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덕이 없습니다. 경전을 본다는 것도 경전에 쓰인 글의 내용을 안다는 것일 뿐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Q: 경전을 독송하면 공덕이 있을까요?

A: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요. 어느 날 보리달마가 『열반경』을 즐겨 독송하는 한 수행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열반경』을 읽고 있는 그 수행자에게 보리달마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열반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그 수행자가 대답하길 “『열반경』을 독송하면 성불도 할 수 있고 생사해탈도 할 수 있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리달마가 말했지요. “그 경전을 내게 주시오. 불에 태워 버려야겠소. 그림의 떡이 어떻게 우리의 허기를 채워준단 말이오?”

이것은 바로 내 대답이기도 합니다. 만족합니까? 이는 보리달마의 말이지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체험을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Q: 스승님, 경전을 독송해도 공덕이 없다면 경전을 독송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A: 나는 그들에게 경전을 독송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경전을 독송하고 싶어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감히 그들에게 경전을 독송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이 자리에는 오륙십 명밖에 없지만 밖에는 오륙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경전을 독송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얘기한단 말입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독송을 하고 안 하고는 다 그들의 일입니다. 세상에는 본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수행할 뿐이며 자신의 일이나 신경쓸 뿐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느니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왜 경전을 독송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대중 웃음) 소설을 읽는 것보다도 낫잖아요! 나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적어도 그들은 부처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수행자를 생각하니 그에 대해 완전히 망각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들이 아직은 좋은 법문을 만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완전히 잊지 않고 조금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경전을 독송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마땅히 다른 유익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겠지요. 입은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경전을 독송한 다음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피곤해서 다른 사람의 시비에 관여하지 못할 테니까요. (대중 웃음)

Q: 때로 우리가 염불을 시작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염불을 하지 않을 때도 귀 언저리에서 부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A: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녹음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중 웃음) 우리의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이 이미 습관이 된 것이지요.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재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치 이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담으면 흘러넘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염불을 할 때 너무 많이 외다 보면 우리 자신이 녹음기가 되는데, 그때는 녹음기를 살 필요도 없을 테니 돈을 절약할 수 있

겠지요. (대중 웃음)

Q: 삼독(三毒)(탐진치)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끊기가 어렵습니까?

A: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편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며, 어떤 사람은 비교적 어리석습니다. (스승님의 경험은 어떠하신지요?) 나에겐 세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나아 말로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화를 잘 내며, 가장 어리석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탐하고 모든 우주를 탐합니다. 나는 성불을 원하거든요. (대중 박수) 나는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중생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인 위대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면 나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화를 내는 마음을 끊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도’에 빠져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위만 보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면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여자에게 빠진다면 아마 어느 날엔가는 정신이 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다 해도 그녀가 늙고 주글주글해지면 다시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이 ‘불도(佛道)’에 빠져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돌아가라고 타이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나의 탐진치는 모두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중 박수)

Q: 경을 독송하는 것이 성불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복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좀 됩니까?

A: 앞에서 나는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소설을 읽는 것보다 낫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좀 더 많은 복을 원한다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리달마나 석가모니불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경전을 독송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Q: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미타경』을 외웠더니 뒤에서 쫓아오던 병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A: 그가 경을 읽어서 재난을 피했는지, 아니면 그의 복 때문인지, 또는 병사가 그때 마침 그를 못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을 믿는다면 당신도 경전을 독송해 보세요.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할 말도 없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복이 있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복이며 아주 적은 복일 뿐입니다.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지요. 욕심이 많은 나에게 그런 복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경전을 독송해 보세요! (대중 웃음)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적어도 부처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부처가 해준 이야기들은 세속적인 이야기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관념, 좋은 사상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Q: 불교의 「보문품」을 가지고 노자나 공자의 사상을 해석할 수 있습

니까?

A: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교인을 만나게 되면 노자의 사상으로 불교의 「보문품」을 해석할 수 있으며, 불교인을 만나게 되면 「보문품」으로 노자의 사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걸림이나 분별함 없이 융통성 있게 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철저히 이해를 해야지만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다가 사람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게 된다면 문제겠지요. 그러니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모든 경전이 다 똑같다고 한 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은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장애에 걸려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Q: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든 도교인이든 수행이 높은 사람이라면 불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수행이 높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불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오기 전에 불교가 있었나요? 그런데 불교는 또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깨달은 도교 수행자 역시 부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교인입니다.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인 일을 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인입니다. 범명을 받거나 스님에게 귀의해야만 불교인인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범주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불교는 대단히 큼

니다. 도교나 기독교 또한 대단히 큼니다. 오늘날 종교를 편협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모두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의 본뜻은 그렇지 않았습니

Q: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우리가 평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구체화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법을 전했을 때에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 보통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Q: 재가자도 이 법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A: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에게도 아주 많은 재가 제자가 있었습니다. 『능엄경』에는 25명의 보살들이 자신들의 수행 체험을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반 이상은 재가에서 수행할 때의 체험입니다. 재가자는 더더욱 이 법문을 수행해야 합니다.

Q: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장이 병으로 나타나 그 병을 앓음으로써 업장을 씻게 되는 것입니까?

A: 수행을 잘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병을 앓는다 해도 업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한 차례의 병으로는 많은 업장을 갚기에 역부족이지요. 업장의 절반은 삼매화三昧火로 태워야 빠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업장을 아주 빨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절반의 업장을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Q: 관음법문은 반드시 스승이 법을 전해 주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맞습니다. 만약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우연히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날 그 소리를 다시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전수받은 뒤에는 그 소리가 영원히 존재하지요.

Q: 스승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 무슨 조건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A: 지금부터 바로 채식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스승님이 자신을 가리키심)한테 귀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그 거대한 힘, 본래면목에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지도할 뿐입니다. 무슨 규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여러분의 공양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이 법문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법사에게 귀의한 다음 영원히 그의 귀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그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그의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다른 법문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도 못하지요. 그런 귀의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입니다. 그 재산은

여러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지혜를 여는 것을 도와서 여러분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과 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주의 힘, 진동의 힘과 서로 통하게 해서 무진장한 보물을 여러분 자신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범부에게 귀의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Q: 방금 스승님께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생활하면서 현실에 맞추기 위해 채식을 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중생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식을 할 수 없다면 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보리심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기로 했다면 마땅히 자신의 입맛은 조금 희생하고 조그마한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채식 음식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나 글루텐 같은 것을 사서 자기 스스로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반이 넘는 인도인이 채식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글루텐이나 두부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콩 종류를 삶거나 밥을 지어 먹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Q: 스승님이 말씀하신 관음법문은 『능엄경』에서 이야기한 원통법문圓

通法門과 같은 것입니까?

A: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능엄경』에는 관음법문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음법문을 찬탄하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지도해 줄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Q: 스승님, 그 법을 전해 주신 스승님이 계신지요?

A: 있습니다. 석가모니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Q: 스승님의 스승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A: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울락에도 있습니다. 어울락에도 역시 많은 사람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가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 이미 낙태를 해 버렸는데 지금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륙법회水陸法會를 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이 사람을 죽인 다음 경찰에게 가서 참회를 한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그가 당신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판사에게 가서 참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업장을 갚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륙법회가 무슨 소용이 있지요? 범부의 마

음으로 참회한다고 한들 업장이 소멸되겠습니까? 범부의 마음은 본래가 이미 아주 새카맣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다 더러운 것을 씻으면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Q: 석가모니불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승님은 고행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까?

A: 석가모니불은 고행을 해보고 나서야 고행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행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난 다음에야 깨닫고 후회하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먹고 과자도 먹으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지요. 나는 일부터 고행을 해서 몸이 이렇게 마른 것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아주 적습니다. 어떤 때는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마치 맹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무 맛이 없습니다. 다만 몸을 지탱하기 위해 억지로 조금 먹는 것일 뿐입니다.

Q: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과음이나 과식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즐기려고 욕심을 부려도 될까요?

A: 즐길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세 끼만 해도 너무 많습시다. 우리 위장의 크기는 한계가 있어서 더 먹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옷도 마찬가지로요. 많이 입어 봤자 두세 가지 정도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

고 나서 수행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주어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 해도 받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쓸 뿐이며 마음속에는 어떤 탐심도 없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어서 여러분이 조금 먹었다면 곧바로 몸이 편치 않다는 것을 느끼며, 바로 배가 아프거나 구토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Q: 스승님의 수준에서 경전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A: 나는 어려서부터 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외울 지경이지요. 내가 경전을 보는 것은 가끔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여러분에게 수행에 대해 언급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해야 정확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통해 입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해 보이겠어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데다 나이도 아직 젊으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능엄경』이나 성경, 또는 노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대수행자가 했던 말을 우리가 비교적 잘 믿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살아 있는 보살이 서 있다 해도 여러분은 그를 공경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전혀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Q: 스승님은 어느 나라 말로 된 경전을 보십니까?

A: 아무것이나 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대중 웃음) (중국어로 된 『능엄경』은 아주 오묘한데, 지금 스승님의 중국어 수준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어울락어로 보면 안 되나요? (대중 웃음) (저는 『법화경』과 『능엄경』에 대해 아주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법화경』에 대해 얘기한단 말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지요.

Q: 『법화경』의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에는 소리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A: 「법사공덕품」 외에 「보문품」에서도 ‘범음·해조음·승피세간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사공덕품」을 보면, 법사의 수행 정도가 이미 『법화경』을 설할 정도라면 마땅히 팔백비공덕八百鼻功德을 구비해야 하며 일천이백이공덕一千二百耳功德·팔백안공덕八百眼功德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덕으로 인해 그는 범부의 귀로써 능히 범천이나 지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종소리·북소리·파도소리, 외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 같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문품」에서 말하는 세간의 음을 뛰어넘는 소리(승피세간음)입니다. 『법화경』은 너무나 길어서 다음에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3장

모든 수행법이 관음법문이다

3장

모든 수행법이 관음법문이다

1987. 2. 12. 포모사 평후

오늘은 『금강경』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경전이 다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지만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금강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마장魔障에 걸린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화입마走火入魔가 된 모습이 어떤지 압니까? 수행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함부로 수행을 했을 때나 좋지 못한 스승을 만났거나 좋지 못한 수행법을 배웠을 때, 또는 스스로 순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을 했을 때 주화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장에 걸렸다는 것은 인간이 마魔에게 침범당했다는 말입니다. 몸은 자신의 것이지만 정신은 마에게 빼앗긴 것이지요. 마는 그의 몸을 이용해서 온갖 터무니없는 일들을 합니다. 손이나 발, 머리를 이용해서 무슨 무드라를 취하기도 하고 이상야릇한 말들을 하기도 하지요. 귀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소리가 들린

다고 하는 등 행동거지가 정상인과 다르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횡설수설하는데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가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자신도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장에 걸렸다고 하지요.

어느 날 나는 그런 마장에 걸린 사람에게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전에 몰랐던 일입니다. 동수가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나는 항상 제자를 동수라 부르지요. 나와 함께 같은 법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수라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는 마장에 걸린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 제자였기 때문에 나는 제자를 위해 마장에 걸린 그 사람에게도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마장에 걸린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사람은 아주 좋아서 부처에게 절도 하고 염불도 했으며 채식이나 명상도 하며 해탈하기를 원했습니다. 전에 좋지 못한 법문을 수행했거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법을 전할 때 여러 명의 마가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는 마장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멀쩡해 보였습니다. 평소 이야기할 때도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문을 할 때 보니 여러 명의 귀신이 튀어나와 서로 싸우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다른 동수들이 모두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귀신이 튀어나올 때 그녀의 얼굴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

게서 튀어나온 어떤 마는 마치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냈고, 어떤 마는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는데, 참으로 듣기 거부했습니다. 어떤 것은 하카어(베이징어와 광둥어의 중간적 특징을 지닌 방언)로 얘기했고, 또 어떤 것은 중국 본토 사람의 억양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하카어를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처의 명호를 외라고 시켰지만 그녀는 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미타불을 외라고 했더니 그것은 외더군요. 그러나 내가 가르쳐 준 부처의 이름과 법문은 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외우지도 못했을뿐더러 외우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내가 강제로 외게 했더니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다 그 소리를 들은 동수들은 모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요. 어떤 마가 외는 소리는 마치 개 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떤 마는 비교적 착해서 다른 마들을 나무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 외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니 큰 예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입문식은 시끌벅적한 잔칫집 같았습니다. 어떤 마는 다른 마에게 “나는 이 스승을 별로 존경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금강법문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공손하게 따르지 않을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렇게 내 눈 앞에서 법회를 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지 압니까? 나는 원래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마장 걸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문젯거리를 만들 테니까요.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장에 걸린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너무나 성가시고 복잡합니다. 아주 많은 힘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마장에 걸린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마장에 걸린 사람은 더하겠지요. 그래서 마장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장애가 훨씬 더 많고 스승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경전들이 다 『금강경』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도 모든 법문은 다 금강법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들도 금강법문을 알고 있습니다. 금강법문이 바로 관음법문입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금강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음법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나는 「보문품」에서는 금강법문을 보도(普度)의 법문이라 하고, 정토종의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 또는 정토법문이라 하고, 『육조단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법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려 주겠습니다.

어제 나는 『아미타경』에서도 이 소리, 즉 내면의 미묘한 음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능엄경』에서도 이 소리를 관하는 관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25명의 보살 역시 자신들이 깨달았을 때 저마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도 ‘범음·해조음·승피세간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이 지적한 것이 우리가 밖에서 들을 수 있는 해조음(파도소리)을 가리킨다면 평후 섬에 사는 사람은 모두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중 웃음) 여러분은 매일 해조음을 듣고 있으

니까요. 그렇지요? 물론 석가모니불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해조음이 외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해조음을 가리킨다면 범음은 무엇 말할까요? 범음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산에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변에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범음은 범어梵語의 범梵입니다. 범어는 인도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에 가서 범어를 듣는다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승피세간음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불이 말했던 것은 내면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인 불음佛音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이 수행했던 법문의 소리로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승피세간음(세속의 소리를 초월한 소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증명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문품」·「아미타경」·「반야바라밀다경」·「능엄경」에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능엄경』은 그저 『능엄경』을 소개한 것일 뿐 진정한 『능엄경』이 아닙니다. 『금강경』 역시 『금강경』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강경』은 법을 전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육조 혜능 때문입니다. 그는 『금강경』을 처음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지만 오조 홍인에게 가서 그가 전해 주는 금강법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금강경』과 금강법문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내가 과자를 광고한다고 합시다. “이 과자는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누구든 이 과자를 먹으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과자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달콤하고 양질의 최고급 과자로 값이 비싸서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광고한 말을 녹음기에 녹음해 가지고 집에 돌아간다면 과자 광고만 들을 수 있을 뿐 과자는 결코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 광고 문구를 수차례 외운다 해도 그 과자가 어떤 맛인지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광고한 것이 과자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과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과자에 대해선 모두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심심미묘법(깊고 미묘한 법)’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석가모니불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가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금강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며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닙니다. 만일 말로 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경전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진정한 경전이 아니며,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진정한 경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강경』은 반드시 큰스승에게 법을 전수받아야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반야바라밀다경』 역시 큰스승에게 법을 전수받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문품」 또한 반드시 큰스승에게 법을 전수받아야 들을 수 있고, 진정한 『아미타경』도 큰스승에게 법을 전

수받아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법을 시작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내가 알고 있는 경지를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정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을 예로 들어 볼까요? 물은 포모사(타이완)어·중국어·불어·독어·영어·스페인어 등 나라마다 다른 언어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에게는 Wasser(바셀)이라고 말해야 하고, 프랑스 사람에게는 L'eau(로), 영국 사람에게는 Water(워터), 중국 사람에게는 水(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강법문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금강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미타불을 좋아하고 서방 정토에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정토법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법문으로 수행하면 서방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방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음법문은 여러분에게 『아미타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오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관음보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관음법문'이라고 말하며 이 법문을 수행하면 관음과 가까워질 수 있고, 관음보살과 똑같이 '범음·해조음·승피세간음'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당연히 반가워하며 “좋습니다. 저에게 관

음법문을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미타불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습니다. 저에게 이 무량광법문을 전수해 주십시오. 저는 무량광과 통하고 싶고 서방세계의 미묘한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빨리 저에게 법을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참선 수행이 습관화된 사람들에게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반야바라밀다법문이다. 가장 큰 힘과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법문으로서, 이 법문으로 수행하면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아미타법문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고 '나'는 참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다. 이 법문을 수행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고 대지혜를 열 수 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산스크리트어는 마하 프라즈나 파라미타(Maha Prajñā Paramita)로서 대지혜를 뜻하는데, 석가모니불은 이런 대지혜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지혜의 법문이다. 이 법문을 수행하면 대지혜를 얻을 것이다.”

석가모니불은 이런 식으로 말해야만 좀더 쉽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은 어떤 언어로 불려도 물입니다. 다른 언어로 불렀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으며, 물을 마실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칭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다른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그가 전한 모든 법문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법문은 경전 속에서도 찾을 수 없고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법문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전하기 전후에 반드시 약간의 설명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을 전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 있기만 하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법을 전할 때는 눈·귀·의식·두뇌·몸 등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구의를 모두 잊어버리지요. 몸은 잠을 잘 때 쓰고, 귀는 터무니없는 시비나 과지를 광고하는 말을 듣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자를 먹을 때는 육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지요.

보자마자 바로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선근善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음이 아주 단순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스승을 보자마자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필요없이 그냥 믿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선근이 있고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너무 가볍게 믿어 버려서는 안 되며, 믿으려면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조 혜능은 아주 유명한 선사입니다. 그가 오조 홍인에게 법을 구한 지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홍인은 혜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깊은 밤에 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바로 금강법문이었지요. 법을 전수받은 육조는 그곳을 떠나서 16년 동안 은신하며 조용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육조단경』 제1장을 보면 그가 대중 천 명에게 이 법문을 소개하면서 “나의 법문은 ‘마하반야바라밀다’법문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법문과 반야바라밀다법문이 서로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관음법문과 반야바라밀다법문 역시 같은 법문입니다.

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이것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하반야바라밀다법문으로 선정에 들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누구입니까?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은 무슨 법문으로 수행을 했습니까? (관음법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하반야바라밀다법문이 바로 관음법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를 우리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行深觀音法門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하반야바라밀다법문이 관음법문과 똑같은 법문이라는 말입니다. 육조 혜능 역시 똑같은 법문으로 수행했습니다. 오조 홍인은 금강법문으로 수행했는데 그것은 육조 혜능이 수행한 반야바라밀다법문과 똑같은 법문입니다. 이로써 오조 홍인, 육조 혜능, 관세음보살이 모두 똑같은 법문으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음법문은 이근耳根(귀)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근眼根(눈)을 사용하는 것도, 의근意根(생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를 관한다(觀音)’고 하지 ‘소리를 듣는다(聽音)’고 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때도 어떤 기관을 사용해서 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써 관하는 것입니다. 방금 내가 관음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중국에 조동종曹洞宗의 선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동종의 수행에 관한 지침서를 한 권 썼는데 중국어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조동을 수행할 때는 이근·안근·비근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구의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조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우리도 육근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동은 관음법문과 똑같은 법문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름할 수 없는 이름(Wordless Word)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제1장: 名可名 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노자의 말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가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소리(Word)였다. 이 소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이 소리가 바로 하느님이며, 만물이 모두 이 소리에서 창조되었으니 이 소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In the beginning was the Word(Soun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everything was made by this and nothing was not made by this).” 『논어』를 읽어 본 사람도 알 것입니다. 공자가 한번은 음악을 듣고서 무아의 경지에 빠졌는데 3개월 후에도 여전히 그 아름다운 음악의 경지에 도취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그 음악이 바로 내면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음악에는 그와 같은 엄

청난 흡인력이 없습니다.

인도의 경전 『베다Veda』나 다른 경전에서도 우주 최초의 소리는 옴OM소리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샤브드Shabd(소리)라 부릅니다. 현장법사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법사들과는 다른 때에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있을 때 그가 배운 법문이 바로 샤브드법문이었습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도 모하멧이 우주의 소리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암Naam·아나드나드Anhad-naad·우드지트Udgit·칼람이콰딤Kalam-i-qadim·방이일라이Bang-i-ilahi·니다이아스마니Nida-i-asmani·사우티이사르마드Sautri-samad·카타Katha·키르탄라그(Kirtan rag) 등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모든 스승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관음법문을 수행하고서야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이라면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몰랐을 겁니다.

언젠가 한 비구에게 법을 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천태종에서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어느 수준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나를 만났고, 나에게 아주 신실하고 겸손하게 삼배三拜를 하며 도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법을 전해 주기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비구들은 모두 자신들이 비구니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비구가 나에게 와서 예를 올리고 법을 구하다니요? 그래서 나는 법을 전해 줘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몹시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법을 전해 받은 뒤 그는 관음법문이 천태종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원래는 같은 법문입니다. 훌륭한 큰스승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태종이고, 훌륭한 큰스승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조동종이며, 훌륭한 큰스승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관음법문·선·아미타·보문인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법을 전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큰스승이 없다면 단지 입으로 외면의 것들만을 외 뿐이지요. 법을 전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법문이든 우리가 절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반만 전해 준다면 그것은 완전한 법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갈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천태종·조동종·임제종-방금 내가 언급한 혜능은 임제종입니다.-정토종·관음법문·반야바라밀다법문은 모두 같은 법문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전할 만한 힘이 없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큰스승이 있고 법을 전할 힘이 있어야 모든 법문이 같은 것입니다.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전하지 않으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육조 혜능은 ‘무상법문無相法門’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는 어떤 종파든 원래는 모두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큰스승이 가 버린 후 뒤를 이을 수제자, 즉 법을 전해 줄 훌륭한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문이 단절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어쩌면 나

중에 다른 지역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타나 인도나 포모사, 또는 중국 대륙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여 도를 얻은 후 법을 전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스승과 동일한 곳에서 법을 전하라는 법도 없고 그의 스승과 똑같은 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 아마 그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조 홍인은 육조 혜능에게 금강법문, 『금강경』, 진경眞經을 전수했지만 육조 혜능은 법을 전할 때 이것을 반야바라밀다법문이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원래 관음법문을 수행했으나 관세음보살이 사리불에게 얘기할 때는 마하반야바라밀다법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 법문이 중국에 전해진 뒤에는 임제종, 조동종이 되었습니다. 임제는 임제종 조사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불이 떠난 후 불교라 불렸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후에는 그리스도교, 노자가 떠난 후에는 노교(도교)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큰스승은 같은 교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해탈시키기 위해 같은 법문을 전합니다. 오직 한 가지 법문만이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음법문입니다. 그것을 정토법문이나 보문법문, 또는 반야바라밀다법문이나 금강법문 등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것이니까요.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 법문이라면 바로 관음법문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부처의 소리가 우리를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 석가모니불이 관음법문을 불가사의한 힘이 있

다고 찬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방삼세불은 모두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 비로소 아녹다라삼막삼보리(Anuttara Samyak Sambodhi)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무상정등정각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며, 하느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습니다. 불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것은 무상정등정각입니다. 무상이란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느님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모두 궁극적인 해탈인 최고의 경지(Highest Ideal), 최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후세들이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역을 하고 여러 가지 범부의 의견을 경전 속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종교는 큰스승의 본래의 뜻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교만 해도 크고 작은 수많은 종파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종교의 참 뜻을 안다면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울락에 있는 어떤 스님의 가르침도 관음법문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허공대정虛空大定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말한 허공의 뜻은 그때, 그곳에는 인간도 없으며 나도, 너도, 그도, 중생도, 부처도, 그 누구도 없다는 뜻입니다. 깊고 깊은 삼매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공대정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그를 외도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외도라

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역시 사람들에게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가르쳤으니까요.

아마도 그는 『금강경』을 가지고 설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강경』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해석해 내려가며 ‘첫째는 보시, 둘째는 지계, 셋째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5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살생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부인을 넘봐서도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지요. 이것은 모두 5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법사 역시 관음법문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아마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고 나서 깨달은 다음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관음법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불교 무위현비법문佛敎無爲玄秘法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무위는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둘 다 일을 함에 있어 에고 없이 하고 무엇을 해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에게 배운 적도, 그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을 보고 즉시 관음법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관음법문은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관음법문을 누설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가 가르친 것이 관음법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관음법문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테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외도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서 진정한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보였지요. 마치 맑은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주 확연히 비쳤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하나도 없다 보니 그렇게 뚜렷하게 비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종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불교는 좋은데 천주교는 좋지 않다든지, 또는 천주교는 좋은데 불교는 좋지 않다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우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두 좋지 않으며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인천(人天)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누군지 알 길이 없고 또 자신이 원래 부처라는 것도 몰라서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사나 선사들은 경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가져다가 음식을 끓일 때나 쓰라고 말합니다. 가끔 나도 경전을 읽고 실망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경전을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해탈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경전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는 법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은 내게 와서 『금강경』에는 『금강경』을 외워야 깨달을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고 씌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금강경』을 ‘지켜야(持)’ 한다고 씌어 있지 『금강경』을 ‘외우라’고 씌어 있지 않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과 계를 외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경을

지켜 행하는 것과 계를 외는 것은 다릅니다.

보살계를 받고는 집에 돌아가 매일 계를 외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마땅히 보살계를 지키고 보살도를 행해야 합니다. 경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외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부처에게 들으라고 외는 것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외는 것이라면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수행을 해야만 경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금강경』을 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금강경』을 외면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수십 년을 외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조 혜능은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화경』을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었고, 『열반경』을 외워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으며, 경전에서 석가모니불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경전을 보니 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경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을 보고 나서 그것을 태워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되었으니까요. 이미 이해했으니 소각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전에는 경전을 머리에 올려 놓고 한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두 걸음 걷고 세 번 절을 하곤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어떤 깨달음도 없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처를 숭배만 할 따름이었지요. 부처의

제자가 되어 부처의 신발이나 닦아서 어찌겠다는 것인가요? 부처는 우리에게 성불을 해야 한다고 했지 부처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
니다. 물론 부처를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가능하겠지요. 만일 앞으로 자신의 부인이 될 사람이 어떻
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매일 그녀를 그리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부처를 믿는다면 부처를 이해하지 못한
다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보리달마는
어떤 사람이 『열반경』을 외는 걸 보고 그에게 “그걸 외워서 무얼 하려
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열반경』을 외면 깨달을 수 있고 성불
할 수 있지요.”라고 대답하자 보리달마는 “그 경을 이리 주시오. 사
람을 속이는 이 따위 물건은 태워 버려야 하오.”라고 했습니다. 이른
바 ‘그림의 떡으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에는 법을 전할 힘이나 법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그저 법문을 소개할 뿐이지요. 법을 전할
때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은 언어가 필요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오늘 관음법문에 대해 찬탄하며 한 시간 이상 관음법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음을 알게 된다면 곧 무량무변의
공덕이 생길 것이라고도 설명했지요. 내 말뜻은 관음법문을 수행하
면 무량공덕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강연 테이프만
듣는다면 복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필히 관음법문을 ‘지키고’ 관음을 지키며 「보문품」을 지켜
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을 한다

는 말입니다.

‘계를 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를 지켜야’ 비로소 유
용합니다. 5계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입니다. 집에 돌아가 이 5계를
윈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
신을 불교인이라고 하며 10명, 15명, 또는 50명의 스님에게 귀의하
고 50개의 범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범명을 수집해 놓
고도 여전히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요. 모두 다 불살생不殺生이 무
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5명의 법사에게 계를 받았어도 집에 돌
아가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계증을 태우는
것이 비교적 정직한 사람의 태도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속
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는 아주 자비롭습니다. 그는 중생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웃
으며 (대중 웃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5계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법사들을 찾아다니며 범명은 수집
해서 뭘 하려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를 받은 후에도 고기를 먹습니다. 어제 나는 고기 먹는 문제에 대
해 얘기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 살생입니다.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역시 살생이지요.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
어서 파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처는 『능가경』에서 아주 명백히 말
했습니다. “대혜여, 사람들이 살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을 먹
이기위해서이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생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것과 살생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佛言: 大

慧, 凡殺生者, 多爲人食, 人若不食, 亦無殺事, 故食肉與殺同罪云云.”

Q: 이 법문을 수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A: 어제 얘기했듯이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계를 지켜야 합니다. 계를 지켜야 한다는 하지만 그것은 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지요. 우리가 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살생도 본래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人).” 그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회자된 이야기이니 새삼 수행을 해서 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도 죽고 싶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서는 살생을 부추켜 그 고기를 먹습니까? 도살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동물도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 고통의 산물을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동물들의 고통은 우리 개인이 누리는 식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생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살생 역시 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가져다 먹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중생의 시체를 먹을 수 있습니까?

동물은 원래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돼지·

소·닭·양들을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거나 그들과 함께 잠을 잔다는 걸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시체를 우리의 고상한 입속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입이란 원래 도덕적인 이야기기를 하거나 고상한 시와 문학을 익히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무덤의 문이 되어 버렸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고상한 몸을 시체를 매장하는 묘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묘지에서 잠도 못 자면서 오히려 자신의 뱃속은 묘지로 만들어 놓고 날마다 함께 잡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동물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죽어도 되겠지만 그들은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그들을 죽이는 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지요.

나무나 풀, 채소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안이 열리면 그들이 자신들을 먹어 주기 바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나를 좀 뜯어 가서 요리해 드세요!” 그러나 동물들은 결코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살당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강제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것은 폭력을 쓰는 것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총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하고 작은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몸을 자르고 벨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병법을 알고 있습니까? 전쟁을 할 때는 마땅히 쌍방의 힘이 대등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만일 힘이 약한 쪽이 이미 패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의 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쟁 상대보다 훨씬 힘이 약한 동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얼른 도망가서 숨어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물을 던져 잡아 올립니다. 동물들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사냥을 해서 그들을 죽여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지요. 이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채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채소는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많고 감각적인 성분이 아주 적으며 의식도 아주 미약하지요. 그러나 동물의 의식은 아주 강해서 인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말이나 개를 보면 충성심이 아주 많지요. 그들은 주인을 잘 따르고 아주 충직하며 사랑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죽으면 매우 슬퍼하면서 며칠씩 굶다가 따라 죽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나 개는 정말 그렇게 충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의식과 총명함은 인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괴롭히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는 걸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먹거나 그들의 고통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보살이 되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지금 눈앞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면 어느 때가 되어서야 제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보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모든 중생이 여러분에게 다 잡아먹혀서 (대중 웃음) 제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되려면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생을 마치 친지 보듯 해야만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비로운 보살이 되는 길을 배우지 못한다면 훗날 어떻게 서방세계에 갈 수 있겠어요? 서방세계는 큰 공덕과 큰 자비를 지닌 보살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미타경』에도 복이 적으면 서방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고 써어 있습니다. 수행은 자비를 중시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서방 정토에 태어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 만수화(萬壽花)라는 꽃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만수화를 심고 꽃이 무성해지길 원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반드시 꽃심(花心)을 뽑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만수화가 크게 자라 많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키도 안 크고 꽃도 두세 송이 밖에 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꽃심을 뽑아 주면 아주 크고 실하며 무성해져서 많은 꽃을 피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밖에 고소나 채소들도 하나를 솥에 주면 두 개, 세 개, 네 개로 자랍니다. 그렇지요? 거의 모든 채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 주면 채소들이 더 좋아하고 더 크게 자라며 더 많이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 주지 않으면 괴로워서 한 뿌리에 잎이 하나씩만 자라다가 다 먹고 나면 죽어 버릴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집에 돌아가 내일 만수화 한 그루를 심어 보세

요. 꽃심을 뽑아 주고 나면 아주 크게 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두 그루를 심어서 한 그루는 꽃심을 뽑아 주고 한 그루는 꽃심을 뽑아 주지 않는다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채소와 풀들은 사람들이 뽑아 주고 먹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뭇가지를 쳐 주면 새로운 가지가 아주 빨리 뻗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닭이나 소를 죽이면 그들은 계속 자랄 수 없습니다. 벼는 순간 끝장이지요. 지혜안이 열릴 필요도 없이 육안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풀이나 채소가 인간이 자기들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동물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도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매일 두 시간 반 동안 '관음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힘이 생겨 우리의 업장을 씻을 수 있고 서방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방세계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심불란一心不亂에 이를 때까지 '염'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일심불란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일심불란에 이르려면 반드시 두 시간 반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염'불입니다.

염선은 생각하디의 '염'입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진정으로 부처만을 생각할 때 부처를 '생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일심불란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놓아버리고 두 시간 반 동안 진정으로 신구의의를 다해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니깐요. 매일 24시간 중 부처에게 두 시간 반을 공양하는 것은 하루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빠서, 재

가자라서, 남편이 있어서, 부인이 있어서, 어린애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등 끝없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갑니다.

관음법문 수행은 반드시 두 시간 반 동안 신구의의를 다해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고, 진정한 '내'가 앉아서 부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불란하게 '염'불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삼매에 들었을 때에만 일심불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매일 성심성의껏 명상을 통해 부처에게 공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두 시간 반을 공양한다면 진정으로 일심불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삼매에 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연습을 해야 삼매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나무아미타불이나 외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심불란에 이르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먼저 부처에게 공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염불하고 부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적어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처에게 공양하는 식으로 '염'불을 해야 비로소 일심불란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법문의 규율입니다. 채식을 하고 두 시간 반 동안 명상을 해야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부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 것은 여전히 겉모양일 뿐입니다. 물을 담은 컵이나 과자일 뿐이지요. 물은 아직 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물을 마시지 않았고 과자도 먹어 보지 않았습니다.



4장

선행과 보시로는
해탈할 수 없다

4장

선행과 보시로는 해탈할 수 없다

1986. 10. 26.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사람들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음씨 좋은 호인이 되어야 한 다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재물을 많이 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공양하고 많은 절에 가서 공양을 해야 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는 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변화를 부리거나 치장을 해서 도 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도’ 또는 ‘길’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던 것 입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문을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집안에 들어앉아서 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맞은편에 있는 절에 가려면 우선 저 큰 문 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상센터의 문을 가리킴) 절로 가는 길은 이미 나 있으니 그곳에 가려면 먼저 길부터 찾아야 하겠지요. 만일

그 길을 모른다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을 찾 아가든지 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런데 사람들은 길도 모르면서 길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일을 한답시고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 을 베풀고, 불사를 하는 데 거액을 시주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목적 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 은 우리가 찾는 길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를 구한다’거나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먼 저 ‘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 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 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런 도를 우리가 고심해서 다시 장식할 필 요는 없습니다. 그 도로 돌아가기 위해 특별히 뭔가를 해야 할 필요 도 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 게 해야 하는 것이지 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이라는 것 은 본래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도덕적인 규범에 대해 서 배워 왔습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이웃에게 친절해야 하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초등학교 때 건넌목에서 노인이나 앓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어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박 애의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어울락에도 ‘멀리 있는 친척 이 이웃사촌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

하면 도와주고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로 '도를 얻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가져다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 관계로 누군가 힘든 일이 생겨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저절로 자비심이 생겨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 잘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덕적 선행을 하고 있다는 '에고'를 가지고 하지도 않으며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할 뿐이지요. 마치 손에 화상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바로 약을 바르고 붓대로 감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날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선 상처를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우린 손을 다치면 즉시 그렇게 세심하게 치료를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웃이나 우리 형제자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즉시 그들을 돕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중에 신이 나를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며 나를 영혼의 고향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이나 '도' 또는 '불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립적이어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찾고자 한다면 그의 나라로 가는 '바른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바깥의 길을 예로 들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길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그 산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공덕에 의지한다거나 선행으로 쌓은 조그만 복에 의지해서는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수행자의 자서전을 읽어 보면 그들 모두가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어울락에는 어진 정치를 펴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그는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사랑이 많았던 그 왕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 밖에까지 나가서 나라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성 밖으로 나간 그는 길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길가에 누워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본 왕은 그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옷을 벗어 그 사람의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왕의 옷은 아주 귀한 것이었지만, 그때 그에게는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귀한 옷을 죽은 사람에게 덮어 준다는 것은 지나친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로지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동정심

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 받는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자기가 가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야바라밀의 보시입니다.

여러분, 반야바라밀의 보시가 무엇인지 압니까? 왜 그런 태도를 진정한 보시라고 할까요? 그것은 보시를 할 때 ‘내’가 보시를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시를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또는 이득이 있을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내심에서 우리나라와서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의 보시아말로 진정으로 완벽한 보시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복을 기대한다면 이런 보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보시는 복이 아주 적어서 영양가가 부족하지요.

어렸을 때 나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집에서 돈이나 음식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지요. 당시 나는 너무 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보시를 한다면 자신의 돈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서 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집에 온 거지를 보고 그저 불쌍하게 느껴 그렇게 한 것이지요. 때로는 거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부모님께서 아예 그들을 상대하지 않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부모님께서 너무 바빠 그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돈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몰래 가져다 그들에게 주었지요.

아이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바로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미처 생

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이웃에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 몰래 밥이나 음식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었지요. 그때는 나도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래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지금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 해도 나를 그리 나쁜 아이로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군요. 이제 어울락의 성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자비심 많은 왕은 나중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는 스무 살이 좀 넘었을 무렵부터 출가해서 불도를 배우고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미 한 나라의 왕이었고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그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개국공신이자 선왕 때부터 줄곧 벼슬을 해 오던 원로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선왕의 명을 받들어 그 젊은 왕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좀 오만했으며 왕에게 원치 않는 일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또 강제로 이 마음씨 좋은 왕을 자기 친척의 딸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왕은 그 결혼을 원치 않은 데다 이미 출가를 결심한 터라 왕의 보위도 버리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간 뒤 아주 유명한 선사에게 가서 출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왕이 출가한 산으로 몰려와 궁궐로 돌아가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러자 그 원로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만일 전하께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다면 전하께서 계시는 이곳으로 조정을 옮겨오겠습니다.”

당시 그 유명한 선사도 방법이 없었고 젊은 왕 역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잠시 뒤 그 선사는 왕에게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할 수 없군요. 우선 돌아가십시오. 수행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저에게 와서 물으십시오. 천천히 수행하면서 시간이 나면 저를 보러 오십시오. 만일 시간이 좀더 생긴다면 잠시 국사를 맡겨 두고 한동안은 안거를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훗날 왕자에게 보위를 물려 주신 뒤에 다시 저와 함께 머물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어서 왕위를 젊은 왕자에게 물려준 다음에야 출가해서 위대한 지혜와 높은 깨달음을 얻고 대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울락의 역대 왕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국정을 살핌에 있어 무슨 일이건 아주 현명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안정되고 밝아졌지요.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는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어울락은 황금시대였습니다. 문학·정치·농업 등 모든 분야가 발전했고 불교도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어서 어떤 탄압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항상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기 때문에 그가 재위하는 동안은 법을 어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빈부의 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인자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왕은 부처를 신봉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것처럼 자비롭거나 박애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불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수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천주교인이어서 불교와는 아무 관련도 없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의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부친은 호인이었습니다. 호인은 호인이지만 평범하고 선량한 그런 보통 분이셨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믿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분은 아니었지요. 어머니 역시 보시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불교의 비구니가 되어 즐겁게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배경은 우리의 도심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등급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생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스승과 좋은 법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부모 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과 자비심, 그리고 박애 정신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 자신의 것이지 부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려 주는

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집안이나 복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또는 불교를 믿지 않는 가정, 심지어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불교를 접해 본 적도 없고 불교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수행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현재·미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내가 부처에 대해서 배우고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어야겠다고 스스로 '원하고' 그러기로 결정한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도는 보시를 하거나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덕을 쌓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선량한 사람일 테니까요. 아까 말한 그 왕은 대단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았으며 훗날 수행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도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전생에 했던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이른바 아름다운 덕을 쌓거나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좋은 일을 하면 되지만 그것은 수행과 그리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 부모나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면 우리 역시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보시·지계·인욕을 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시·지계·인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지요. 『금강경』에서도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이 육도를 다 같이 닦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섯 가지만 닦는 것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그 외에 선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이란 무엇일까요? 명상을 할 때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의 두뇌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마음을 그곳에 묶어 두면 산란해지지 않고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 때 우리는 자신의 본래면목과 통하게 되고 자신의 불성과 서로 통하게 됩니다. 본래면목·불성 혹은 천국이나 신의 힘, 도 등 무엇으로 불려도 좋은 그것은 매우 큰 힘을 갖추고 있어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복이든 다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큰 힘과 통하게 되면 복을 짓지 않아도 저절로 복이 생기게 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억지로 고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힘이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면을 정화시켜 우리를 정말로 좋

은 사람으로 만들 테니까요. 그 힘은 개인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상황까지도 돌봐 줍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힘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지혜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며 이 불심佛心이 바로 대지대혜大智大慧,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큰 힘에 의지한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외적인 상황에 기대어 본래부터 무상한 명리名利나 성색聲色을 좇는다면, 오늘은 돈이 있다가도 내일은 무일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명성이 자자하지만 내일이 되면 중상모략을 받아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왕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기도 하고 수많은 부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다가 모조리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진 지위와 재물이 내일도 반드시 존재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야바라밀과 통하게 되고 이 대지혜, 큰 힘과 통하게 된다면 영원히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언제나 똑같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며 따뜻하게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친구보다도 더 좋으며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언젠가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지만 이 힘, 이 부처의 힘, 또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자기 내면의 천국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불도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지요. 만일 부처가 정말 절에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부처는 절에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또한 절에 가서 예불을 하고 다른 외형적인 일들을 해야 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는 “보시를 많이 해야 불성을 찾을 수 있다. 절에 가서 절을 많이 해야 불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오직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부처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부처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마음은 남들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 아주 신비하고 개인적인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도덕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천국은 이미 내면에 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만 석가모니불은 ‘불성’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라고 했을 뿐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종교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큰스승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대하고 무한한 가르침을 편협하고 유한한 사견私見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불교·천주교를 모두 유한한 종교로 변질시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모두 큰스승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데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부처를 믿는다면서 부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가 주의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일찍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날마다 ‘나는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존경하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믿나이다.’라고 말한다 해서 ‘진리’를 얻고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가 했던 말은 완전히 같은 의미입니다.

‘부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불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불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산스크리트어로 붓다Buddha로서 깨달음, 또는 호광毫光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에게선 호광을 볼 수 있고 그의 그림에도 호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다른 위대한 수행자들에게도 모두 호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지가 높은 수행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찾아내고 부처를 알려면 마땅히 먼저 성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처를 찾고 그에게 배워서 우리도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길러 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해한다는 것도 그와 비슷해서 성불을 하기 전에는 부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스스로 성불을 해야지 부처를 믿고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것만으

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를 믿는다면서 부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을 믿건 모두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으로 변해 버리는 겁니다. ‘미혹되는(迷) 것도 다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불해야 하고, 도를 구하려면 ‘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 ‘도’를 잃게 되면서부터 덕이 생기고, 인의예지신 같은 여러 가지 사회 윤리가 생겨난 것이다. ‘도’는 본래 가장 높은 것으로 일체의 도덕규범 위에 있다. 그래서 ‘도’를 찾고 나면 모든 도덕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윤리를 제정하는 것은 이 ‘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를 얻게 된다면 그런 인위적인 작은 도덕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 (제18장: 有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偽).”

이것은 우리가 불성을 찾아내어 성불하고 나면 육바라밀(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을 행하기 위해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이 큰 힘으로 변해서 보시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밥 한두 공기나 옷 몇 벌이 아니라 큰 복을 보시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의식衣食이 풍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불을 한 다음 무궁무진한 복을 보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밥이나 옷 같은 물질적인 것들

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더 실제적인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나 종파에서는 보시를 매우 권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시를 하고 집에 돌아가 불상에 절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충분하겠습니까? 불상에 절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좋지만 왜 절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나서 해야 합니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석가모니가 없었다면 불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무상심심미묘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보리심을 일으켜 수행할 생각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를 올려 감사하는 것이지요.

한 번 절하면서 백 가지 소원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예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상에 절을 하지요. 절을 하면서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을 부르며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절은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부처도 그런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테고요. 설령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그가 돈을 준다고 해도 내일이 되면 없어져 버릴 테니까요. 그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부유한 생활이 오히려 우리를 망쳐서 교만해지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되어 나중에는 더 큰 업장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자들이 무위도식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돈이 많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는 비록 가난한 곳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높이 고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세생생 성지였기 때문에 큰스승들은 모두 인도에서 나왔거나 인도에서 법을 배웠고, 또한 인도의 수행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인도 사람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13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히말라야 산에서 은거하며 그곳의 많은 큰스승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나의 스승 가운데 한 분도 역시 인도인입니다. 많은 유명한 스승들이 인도인이거나 동양인입니다.

인도는 대대로 유명한 수행 성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이지요. 그렇다고 부유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진정 위대한 ‘큰스승’이 배출된 적이 있던가요? 있다 해도 석가모니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영향력과는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양인입니다. 동양은 서양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지만 석가모니·예수 그리스도·보리달마·혜능·백장·황벽·노자·공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와 깨달은 성인들은 오히려 동양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만일 보시가 궁극적인 해탈의 방법이라면 석가모니는 그의 아들 라훌라에게 출가를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겨우 아홉 살이었던 라훌라는 왕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떠났으니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석가모니에게 자기에게 줄 유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물려받을 유산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지금 유산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언제나 자식에

게 물려줄 재산을 남겨 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의 유산을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스승이시여!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천당에, 천국에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재산을 움켜쥐지 말고 천국과 열반에 있는 자신의 보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재산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출가승이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출가한 뒤에 가장 큰 재산을 찾고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석가모니불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어찌 어린아이에게 출가를 권했겠습니까? 설마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겠어요?

라훤라는 본래 왕자 신분으로 궁전에 살면서 세속의 모든 부귀영화를 즐기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는데, 왜 부처는 그에게 힘든 출가 생활을 권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출가자들의 생활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날마다 걸어야 했지요. 여기저기 많은 곳에 가서 설법을 할 때 석가모니와 제자들은 모두 걸어야 했습니다. 옷이라고는 갈아입을 옷 두세 벌이 고작이었고, 잠도 길바닥 아니면 아무데서나 되는 대로 잤지요. 한마디로 편

히 설 수 있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출가자의 길을 석가모니는 왜 자신의 아들에게 권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부러 힘든 생활을 맛보게 하려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훗날 위대한 재산과 최상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가의 길을 권했던 것입니다.

만일 보시하는 것이 불성을 찾을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법문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면 석가모니불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돌아가 좋은 국왕이 되어라. 앞으로 국가의 재산과 높은 권위를 이용해서 중생에게 이로움을 베풀도록 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네가 가진 것을 나눠 주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 그러나 석가모니불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뿐인 아들을 승려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은 탁발승이 되어 거지와 다름없이 가는 곳마다 탁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보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열반에 이를 수 없음을 경전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무슨 복이 있단 말입니까?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는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이 복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는 부처’에게 절을 한 것이니까요. 석가모니불은 큰 깨달음을 얻은 천인도사天人導師였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을 조금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에게 절을 하면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로 만든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복도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불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시도 하지 말고 불상에

절도 하지 말라는 내 말을 듣고선 나더러 외도라고 합니다. 뭐가 외도라는 거지요? ‘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외도니 내도니 하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전에 능통하지 못하고 경전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석가모니불의 ‘심심미묘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도와 외도를 입에 올린단 말입니까? 사실 외외라는 것도 없고 내내라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도’입니다. ‘도’를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외도입니다. ‘도’의 바깥에 있는 것이지요. ‘도’를 찾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천주교·불교·유교·도교 등 어떤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내도입니다. ‘도’는 오직 하나뿐이니까요. 그러므로 무슨 종교를 믿든 도를 찾으면 내도이고 찾지 못하면 바로 외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도’를 찾는 것은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며, 불상에 절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를 찾기 전에는 우리가 절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도를 찾은 다음 부처에게 절을 한다면 복이 좀더 있겠지요. 그때는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부처에게 어떻게 절을 해야 복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그에게 절을 하면 큰 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났으니 다른 부처를 찾아 절을 해야 합니다. 부처에게 절한다는 것이 석가모니불에게 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에게 절하려면 진정으로 깨달은 부처를 만나 절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내면의 불성에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

드시 불성을 찾은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아직 불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말로만 “나는 나 자신의 불성에 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불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절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도에서는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그에게 정례(頂禮(가장 공경하는 뜻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구부러 하는 절))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불상에 절을 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본래 예를 올리는 대상은 ‘살아 있는 사람’이었지 그의 조각상이나 사진, 형상에 예를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이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색으로써 나를 보고 음성으로써 나를 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으로 여래를 볼 수가 없다(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본래면목을 찾은 다음 그 위대한 불성, 위대한 본래면목, 또는 이 우주의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 의존해서 무상정등정각을 찾은 다음에나 예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내도입니다. 하지만 이 ‘도’를 찾기 전에는 우리가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를 올리더라도, 또 공덕을 짓거나 법사가 되더라도 모두 다 외도입니다.

이 진리, 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얘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고 말로만 설명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테니 오늘은 여

기까지만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본래면목을 찾고 싶다면 오후에 그 방법을 알려 줄 겁니다. 나는 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는 아니지만 그 것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는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 돈 오頓悟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찾고 나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세생생 선입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도 행여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집을 배회하며 가족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가족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고 고뇌하며 고통스러워하지요. 이미 혼령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강렬하고 특별한 느낌 없이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난 것처럼, 또는 아래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들곤 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머리를 만져도 전혀 반응이 없는 데다가 다른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결혼하려는 걸 보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감히 결혼을 생각하다니 하면서 몹시 분노하며 화를 내지요. 또 어떤 집에서는 한밤중만 되

면 귀신이 나와 온갖 소리로 시끄럽게 하거나 성난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을 귀신에 썬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지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깨달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저릿저릿한 느낌은 없지요. 그러니 깨달았어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깨닫고 나서 큰스승을 찾아가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도 깨달았을 때에는 많은 적든 약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뭔가를 좀 보게 되고 증명할 만한 게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커다란 깨달음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뒤에도 늘 신중하게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죽은 사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망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망혼이 괴로워하며 원치 않는다 해도 그는 서서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윤회를 해서 다른 몸을 찾아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윤회해야 할 다른 길로 가게 되겠지요.

깨달은 사람도 그와 똑같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깨달은 후에는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리므로 계속해서 서서히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의 상황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발전시켜 완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얘기한 것이 모두 맞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하! 내가 정말로 깨달았구나!' 하고 말이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깨닫고 나면 우리의 지혜가 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이 비교적 안정됩니다. 날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더욱 즐거워지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집착이 적어지고 좀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깨달은 뒤 우리의 영체는 불국도에 가서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처에게 정례를 해도 되고 절을 해도 됩니다. 부처의 나라에서 절을 올려야 비로소 진정한 절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절을 몇 배 하든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부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절을 한단 말입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즉시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거나 모든 지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본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서히 지혜를 계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목욕을 할 때는 천천히 하나하나 벗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

달은 뒤에도 곧바로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불도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해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오開悟'와 '득도得道'는 다릅니다. '깨달음을 여는 것(開悟)'과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證悟)'은 차이가 많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깨달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증오득도證悟得道'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나를 찾아와 설법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와서 물어보고, 그런 뒤에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마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큰 변화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꼭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입문식 때 여러분은 즉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실증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이미 어떤 초보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증명할 게 없다면 이 법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입문을 할 때 바로 실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계속해서 서서히 발전시켜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입문'인 것입니다. 입문은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문을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있지요. 만일 법이 언어로 전해진다면 아마 '입'으로 파

자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과자와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는 과자는 다릅니다.

돈오의 뜻은 즉시 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끊는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신체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의 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문한 뒤에는 생사윤회도 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생이 최후의 생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오란 즉시 깨달음을 열고, 즉시 생사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강렬한 깨달음의 느낌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깨달음이란 본래부터 있었지만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사윤회를 끊어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을 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

불상에 절하는 것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5장

불상에 절하는 것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1987. 9. 14.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수행이란 전해 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전수받은 후 여러분이 과연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 큰스승들은 법을 전할 때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법문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는지 관찰하고 나서 그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법을 전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말법시대인 오늘날의 스승들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법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법을 전해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함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직 법문을 다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며 이 법문이 외도인지 내도인지, 이런 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들 자신도 모르고 다른 법사들도 거기에 대해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문의 체험이 다르고 저마다 등급도 다르며 개인의 체험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법사에게 그런 체험을 말해 준다 해도 그 법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른바’ 깨달았다고 하는, 다른 법문을 수행하는 법사에게 말해 준다 해도 그 법사 역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실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큰스승들이 중생에게 법을 전해 주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을 전해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보석을 주었더니 가지고 가서 초콜릿을 사 먹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보석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들을 다 팔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석을 팔았으니 제값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나로서는 보석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보석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울락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보석을 조금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겨 부모를 잃었을 때 그것을 팔아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당시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보석이 생긴다면 가지고 나가서 초콜릿을 사 먹어 버릴 것입니다.

중생은 원래 모두 다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불상 앞에 가서 예배드리며 미래불이나 미륵불, 과거불에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열반했는데도 중생들은 여전히 그에게 기도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부처를 기꺼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작 현세불은 보고 싶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부처 또한 믿지 않으니 정말 문제입니다.

중생은 집착이 강해서 어떤 것을 배우면 모두 머릿속에 기록해 두곤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누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면 믿으려 들지 않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염불, 염불 하며 염불이 제일 좋다고 말하니, 누군가 그들에게 와서 염불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은 왜 사람들과 다른 교리를 말하느냐고 하면서 의심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불을 하고 외면의 부처에게 절을 하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부처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불상에 절하지 말고 ‘성불’을 하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말을 할 생각이었다면 내가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 혼자 안거하면서 원기를 축적하거나 세상을 두루 돌아 다닐 일이지, 이렇게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불을 권장하는 것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자 중생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었던 중생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데, 그런 그들에게 외면의 부처, 미래의 부처, 과거의 부처에게 절을 하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처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성불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불하려고 해야지 그들에게 절을 해서 어찌겠다는 말입니까? 세세생생 환자가 되고 싶다면 날마다 의사를 찾아가도 되겠지만,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의대에 들어가 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절을 하거나 매일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에 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의사로 만드는 일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치료나 받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불을 하는 것은 성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불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이 부처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는 범부이다. 나는 업장이 무겁고 나약하여 석가모니불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군이 없고 미륵불처럼 그런 무량한 복은 가질 수 없으니 내가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 ‘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석가모니불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서른 살이 되기까지 그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

며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 밖에 나가서 고통 받는 중생의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깨어나, 수행을 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른 살 이전의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가모니불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낮에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돕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석가모니불도 성불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왜 성불할 수 없겠습니까? 석가모니불은 이미 과거의 부처이고 특별하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미래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륵불은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레이야(Maitreya)입니다. 그 뜻은 '사랑(Loving Buddha)'이지요. 경전에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미륵불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부자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해 날마다 부자 친구들의 집에서 지내며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수행에는 그다지 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미륵불보다 일찍 성불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 두 부처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불은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국가나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오로지 세상을 즐기기만 했을 뿐입니다. 부왕은 그가 세상을 즐기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많은 여인들이 그의 후궁이 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왕비로 간택되었으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는 보시를 한 적도

없고, 계를 지키거나 명상을 한 적도 없었으며, 좋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戒)·정(定)·혜(慧) 또한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불해서 바로 석가모니불이 된 것입니다.

미륵불도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출가해서 수행한 후에 부유한 곳에 가서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도 성불할 수 있었으며 매일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불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범부라고만 합니까? 범부는 무슨 범부입니까? 왜 성불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불상에 절하지 말고 자신이 성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설령 그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이 많다면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쓸 것을 벌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절을 하면 무슨 덕을 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부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을 한다 해도 그들이 자신의 부처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신(化身)으로 와서 그런 삶을 보여 주며 중생들이 수행하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본래 이미 부처였지만 기필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 곧바로 성불하고 자유자재한神通을 지닐 수 있었다면 우리는 수행해서 성불하려는 희망이나 신심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비범한 것을 보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

다. 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어려서부터 늘 출중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는데,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장애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견줄 수 있고,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분명하게 설명했으니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불은 결코 우리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미륵불 역시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 성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성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여러분에게 성불해야 한다는 말, 이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불상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빌어야지, 불상에 절을 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가게 되면 부처님께서 나의 수행을 도와주실 거야.'라고 하며 사소한 소원을 빌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수행하지 않는데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그곳은 대단히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꼭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중생 또한 많은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자신 또한 수많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통을 당해도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보고도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 수행할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무슨 수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는 중생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법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장 고귀합니다. 천사보다 고귀하고 범천보다 더 고귀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은 신이나 귀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불보살입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면 선생님 혹은 법사를 찾아가거나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가 모른다고 하면 다시 다른 법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법사도 모른다면 다시 세 번째 법사를 찾아가고, 또 네 번째 법사, …… 열 번째, 백 번째 법사를 찾아가십시오. 어느 날 누군가 “나는 당신의 불성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렇지만 이런저런 불상에 절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저금도 하고 큰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돈을 찾으러 가지 무엇 하러 불상에 절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믿음만 약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이 눈·코·귀, 두 손, 두 발이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를 찾아가서 숭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를 찾아가서 예배하지 말고 매일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미 성불한 사람, 이미 떠난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자신의 불성을 찾으십시오.

살아 있는 부처에게도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길을 인도하는 존재로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단지 법만 구할 뿐, 정례를 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불성과 우리의 불성은 완전히

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이미 그 불성을 찾았고 우리는 그 불성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불성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묻고 부탁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에게 정례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정례를 하지 마십시오. 현세불에게도 정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떠난 부처에게 정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륵불의 강림을 기다립니까? 그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에게 정례를 하다니, 왜 그렇게 나약하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생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법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그런 '이원'적인 법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이고 부처가 나입니다. 본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만일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박야 하고, 명상을 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법문은 여전히 바깥에, 문밖에 있습니다. 매일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만 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없으며,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염불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상에 절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면의 불상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불상에 절을 해서 성불할 수 있다면 날마다 수많은 불상에 참배하는 중

생들은 왜 아직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면전에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경전에 써어 있지요. 살아 있는 부처를 본다고 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부처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도 지장보살이 있어 매일 지옥의 중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지장보살을 '보지만' 여전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로 만든 보살에게 절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에게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워서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다면 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으며, 왜 세상은 여전히 엉망진창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법문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과 천상의 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찰나의 복일 뿐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자신이 성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로병사는 영원히 존재하며, 궁극적인 해탈을 할 수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처에게 빈다든지 시방삼세불이나 현세불의 면전에서 정례를 한다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극적인 해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와 함께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난존자는 날마다 부처와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의 설법을 제일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으며, 석가모니불

이 입멸한 후에는 아무도 그를 보호하고 돌봐 주거나 총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하가섭에게 쫓겨난 뒤에야 비로소 수행을, 명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단지 하룻밤 명상을 하고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부처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날마다 부처와 함께 있으면서도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와 가장 가깝고 가장 총명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었지만 석가모니불은 그에게 법통을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가 역량도 부족하고 깨달음도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마하가섭에게 법통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에 절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부처와 함께 있었어도 성불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목불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다른 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은 나를 외도라고 하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데서나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말을 꺼내 봤자 문제만 생길 게 뻔하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만 하니 처음부터 꺼내지 않았으면 모를까 일단 입을 연 이상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도, 중생의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중생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소수의 중생들만 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겨우 몇 만 명

만 제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와 법을 편 지 겨우 3년여 만에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자도 세상에 나와 몇 사람밖에 제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는 안거하러 가기 전에 비로소 『도덕경』 한 권을 썼습니다.

비록 중생의 겉모습은 달라도 내면의 힘은 똑같습니다. 이 힘은 우주의 힘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성이고 본래면목이며, 창조의 힘 또는 ‘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도’와 통한 후에는 바로 업장이 소멸되며, 우리는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한 후에는 업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입문을 한 사람은 과거 세 세생생의 업장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컵에는 물이 아주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독약을 넣는다면 마실 수 없겠지만, 이 독이 든 물을 갠지스 강과 같은 큰 강에 붓는다면 독성이 떨어져서 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대로 그 강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컵의 물이 큰 강물과 섞이면서 독성이 사라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큰 강에는 물이 아주 많아서 어떤 것이든 모두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겠지만 인도에서 갠지스 강은 대단히 신령스런 강입니다. 인도인에게 성스러운 강으로 숭앙받고 있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갠지스 강물에 어떤 것이 들어가더라도 그 강은 아무 탈 없이 여전히 갠지스 강으로서 세세생생 언제나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쓰레기와 대소변을 강물 속에 쏟아 붓지만 수질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왜 그렇게 깨끗한지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들은 물의 온도가 너무 낮아 세균이 번식하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독일에서 7년 거주하는 동안 독일의 강물은 늘 얼었고 수온도 갠지스 강보다 훨씬 낮았지만 여전히 더러워서 엄청난 양의 화학 약품을 넣어 수질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곳의 물 역시 대단히 차가웠지만 많은 화학 약제를 넣어 정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었지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스페인에 가면 곳곳마다 많은 강들이 있고 어떤 곳의 강물은 차갑기도 하지만 갠지스 강물처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갠지스 강물은 어쨌든 갠지스 강물이고 이 세상의 다른 강과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그 이유를 말해 주겠습니다.

인도는 성지입니다. 세세생생 대단히 많은 수행자들이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힘은 아주 깨끗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욕을 하는 것은 그 물에 가피와 축복을 내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도 그 안에서 번식할 수 없어서 수질이 그토록 깨끗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만일 많은 수행자나 보통 사람들이 갠지스 강 상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하류에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주 비위생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갠지스 강물을 떠서 실험실 계기로 검사를 해보면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인도에서 머물던 곳은 세세생생 유명한 수행 성지였습니

다. 그곳 갠지스 강변의 양쪽 모래사장에는 날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유명했지요. 석가모니불도 그곳을 거쳤으며 수행자라면 누구나 그곳을 거쳐 갔습니다. 나는 그곳 하류 가까이에서 2개월간 수행하며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보다 상류 쪽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쫓는 배설물은 모두 갠지스 강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물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맨 하류 쪽의 수질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그들에게는 미국처럼 현대화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대소변을 모두 밖에다 쏟아 버립니다. 그러나 갠지스 강은 여전히 깨끗해서 세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의 물은 병에 담아서 한두 달 동안 두면 변질되어 악취도 나고 심지어 벌레까지 생기는데, 갠지스 강물은 10년 동안 병에 담아 두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처음 담았을 때처럼 여전히 신선하고 깨끗하지요. 이것은 아주 오묘한 일입니다.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매일 그런 물을 마셨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마셨지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있으며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한 제자가 나에게 억지로 건강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병도 찾아내지 못했지요. 처음부터 병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게다가 나의 법문은 모든 병을 낫게 하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체험이 없으니

까요.

그것은 바로 갠지스 강물과도 같이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력(佛力)이나 신의 힘, 창조 또는 도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 힘이 존재하므로 만일 우리가 그 힘과 통하게 된다면 우리는 곧 그 힘이 될 것이고 위대해질 것이며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세생생의 업장도 모두 다 타 버릴 테고요. 그러나 아직 그러한 힘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존재마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이나 갠지스 강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강물은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시려면 반드시 여러 차례의 소독 과정을 거쳐 정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갠지스 강으로 어떤 것이 흘러 들어가든 모두 정화되어서 실제로 강물이 아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갠지스 강은 분명히 존재하며 모든 것을 정화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내가 일찍이 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에 있는 백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것이니까요. 나는 갠지스 강을 보았고, 그 물을 먹었으며, 그 힘을 굳게 믿습니다. 나 자신이 이미 그것과 통해 보았으니까요.

우리가 세세생생의 업장을 태워 버릴 수 있는 그 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세세생생의 우리 업장을 태워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즉각 깨닫는 법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법문이 있다는 것 또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법문이 없다거나 그런 스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다른 법문들이 모두 ‘내도’이기 때문에 나의 도는 아주 ‘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도 밖에서야 비로소 내가 말하는 이 ‘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을 따라 똑같은 도를 걷는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내도’를 걷고 싶지 않습니다. (대중 웃음) 그들이 나를 외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이 외도가 더 분명합니다. (대중 웃음)

Q: 조금 전 스승님께서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염불은 마음을 거두어들여 일념(一心)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잡념으로부터 점점 하나로 모으고, 다시 그 ‘하나’를 무념(無念)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스승님께서 중생은 자성을 돈오할 때 한순간에 자성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생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서 한순간에 선정력과 지혜,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출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스승님의 법문은 훌륭하지만 때로 어떤 면에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옳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을 제어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후에도 다시 불성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제어한 후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성불했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꼭 돌맹이 같다면 그것은 아직 ABC의 초보 단계인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석가모니불은 서방세계에 도달한 후 천천히 수행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성불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나에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길을 가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길은 너무나 멀어서 그들의 힘만으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힘으로 그들에게 법을 전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수행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승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스승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법문은 견성성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견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반드시 그들의 혼란스런 머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세세생생의 업장을 씻어 주어야 비로소 그들이 견성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순간에,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점차 깨닫는 방식(漸悟)은 너무나 느립니다.

조그마한 행주로 닦는 것은 너무 더딥니다. 내가 직접 강물에 넣고 씻는 것이 더 빠르지요.

그러므로 먼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스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그들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힘에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튼튼해진 후에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혼자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그를 이끌어 주고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의 손을 잡고 한발 한발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나면 성장한 뒤에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법문은 다방면에서 포괄적입니다. 업장도 씻어 주고, 잡념도 없애 주고, 지혜도 열어 주고, 진보도 도와주는 등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지요. 육신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화신으로 돌봅니다.

입문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들을 보살펴 줄 하나의 화신 스승이 존재하게 됩니다. 화신 스승은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장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일 그를 도와 길을 열어 줍니다. 중생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스승, 진정한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게 깨닫지 못한 법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머리를 깎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스승은 아닙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마땅히 화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화신으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그의 학생들이나 제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화신이 없다면 그 한 사람이 많은 제자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Q: 소위 법신이라는 것에 대해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대수행자는 본성의 법신을 볼 수가 있다. 중생에게 법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력의 이끌림으로 인해 자유자재할 수 없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A: 법신은 천백억 화신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법신을 사용할 수 있으면 부처입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신을 사용해서 많은 화신으로 나탈 수가 없으니 소용이 없지요.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부처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모습, 천백억 화신으로까지 나탈 수 있어 수많은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Q: 불상에 절하고 염불하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적인 법문일 뿐이라면 불상에 절을 하거나 염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염불을 하면 단지 마음만 안정시켜 줄 뿐 성불은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불상에 절을 하거나 염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BC를 외워도 도움은 되지요. 생각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의 ‘생각(意)’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 밖의 또 다른 경지, 바로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없는 경지가 있습니

다. 여러분은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염불을 해서 일심불란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마음은 곧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이므로 마음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산란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 산란하다거나 잡념이 아주 많다는 뜻이지요. 염불은 단지 여러분의 생각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이비설신의가 없는 경지가 있습니다. ‘생각’조차도 없는 경지, 그곳은 염불을 통해 마음을 집중시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차원의 법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이르려면 염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따라 배워야 그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이비설신의가 없으므로 ‘생각’을 사용해서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수행해서 닦아야 할 생각이란 것이 없습니다.

Q: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 자유와 안락을 추구하는 것, 즉 다시는 생로병사의 윤회를 하지 않도록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확하고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하며 즐거움을 얻으려면 오직 참 스승을 따라 수행하는 길 뿐입니다. 그래야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행한다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거나, 성취할 수 있다 해도 조금뿐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줄 참 스승이 있다면 우리를 아주 빠르게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Q: 중생들은 이 세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속을 벗어나야 합니까? 만일 세속에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죄악과 접하면서 자신을 청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지요? 제 말은 오염된 세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우리는 비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비옷을 쥐가 물어뜯어 여기저기에 구멍을 내 놓았다면 그 구멍으로 비가 새어들어 다른 부분까지 비에 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젖게 되어 비옷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한 겹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 옷이 이미 떨어져 버렸다면 내가 그것을 수선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거나, 홀로 문을 잠그고 수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조금 덜하겠지요. 집에서는 막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TV소리가 들려 시끄럽거나 아이들이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막 삼매에 들려고 하는데 또 누가 찾아와 성가시게 하는 등 확실히 장애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속에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청정한 곳이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청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문을 할 때 스승이 여러분의 해진 비옷을 수선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문을 한 사람들은 스승의 수리하는 힘과 보호의 힘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Q: 만일 세속을 벗어나 자신이 성불했다면 어떻게 해야 중생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A: 그것은 성불을 하고 난 후에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을 낳기도 전에 내내 걱정하면서 엄마에게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왜 아기를 키워야 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게 되고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Q: 일반적으로 홍법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도 좋고 수행을 하는 것도 다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공공과 유유 사이에서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평소 일을 하고 수행을 하거나 중생에게 이로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요?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날마다 아침·점심·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야! 나에게 밥을 먹이고 날마다 내 몸을 씻으며 내 신체를 도우니 나는 정말 훌륭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냥 자동적으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내'가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도와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나 도와주지 않는 것이나 다 같습니다. 중생을 도와주는 것은 손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씻으

면서 자신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을 씻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아주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않을 거예요. 그저 자연스럽게 할 뿐이지요.

중생을 돕는 것도 똑같습니다. 훌륭하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찾아와 밥을 달라고 하면 “그러지요. 얼른 밥을 드리지요.”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옷이 없다고 찾아오면 “좋아요. 내 옷을 드리지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잊어버리세요. ‘어제 내가 그에게 밥을 주었지. 그 전날에는 그에게 옷을 주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머리를 빗으면서 ‘내가 왜 자신을 돕지?’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중생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지, 훌륭하다거나 자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Q: 아미타불은 48원(願)을 세워 중생을 제도하고자 했고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것처럼 웅대하고 큰 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A: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깨닫기 전에 발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성불한 후엔 그러한 원을 세웠다는 생각 없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중생을 제도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밥을 먹어야 해. 밥을 먹지 않으면 크지 않는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스스로 밥을 찾아 먹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지장보살도 아직 보살이 되기 전에는 잘 몰라서 그런 발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발원을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 후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그는 보살이라거나 이 원을 발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만일 부처나 보살이 자기 자신을 부처나 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처가 아니고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입니다.

Q: 지혜에는 공성(空性)과 유성(有性)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불한 불조(佛祖)나 대보살의 지혜는 시종일관 공성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인연에 따라 능히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바로 본성(本性)인 지혜가 본성이 본래 공하다(本性自空)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갖가지 가상(假象)과 만상(萬象)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는 공을 벗어나지도 유를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A: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피곤하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부처는 거울과 같이 중생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비춥니다. 부처는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부처는 중생과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부처는 위대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중생이 필요로 할 때는 그 위대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면 부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태양과 같지요. 태양은 날마다 중생을 비추고 만물을 성장시키지만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꽃들이 필 수 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의해 비타민 D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자랄 수 없고, 우리의 피부도 손상되어 버릴 것입니다. 일체 만물의 활력은 모두 태양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지혜가 높지만 자신이 지혜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 순간이라도 지혜가 높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는 즉시 범부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범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를 예로 든다면, 내가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명칭에 집착해서 왜 나에게 제자가 있다고 말하는지 해명해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겐 원래 제자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언어로 표현해야 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내 제자들은 나의 화신을 봅니다. 내가 화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고 돕는 것을 보고선 나에게 달려와 “저는 이제 스승님이 부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몇몇 사람은 내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것을 보고 나서 말하지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어린이가 나에게 와서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대세지보살의 화신인 것을 알아요. 맞지요?”라고 묻더군요.

그들이 본 것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본 스승의 힘도 다른 겁니다. 또한 스승의 힘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도 서로 다르지요. 그들에게는 다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대세지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모두 중생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하나지만 그 힘은 대단히 커서 우리는 그 힘을 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는 태양의 힘을 이용해서 자라지요. 어떤 사람은 태양의 힘을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은 태양의 힘을 이용해서 밥을 짓습니다. 인도에서 나는 태양열로 밥을 하고 채소와 고구마를 삶았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내가 고구마를 삶고 밥을 짓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지요. 태양은 끝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밥을 짓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가꾸는 데 씁니다. 태양이 없으면 채소는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의 힘이나 스승의 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본래 자신이 것처럼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힘을 쓰려고 하면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힘입니다. 부처는 무형無形·무상無相·무량無量·무변無邊입니다.

발전소를 예로 들어 보지요. 발전소는 전기 그 자체가 아니지만 전기는 모두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곳에는 대단히 많은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의 힘과 통할 수만 있다면 원하는 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켜는 데 사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법당에서, 어떤 사람은 밥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내가 저 사람이 밥을 짓도록 도와준다거나 선풍기가 돌아가도록 또는 전화가 통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 역시 그렇습니다. 부처는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부처는 칭하이 무상사가 아닙니다. 부처는 아미타불도 아닙니다. 부처는 무형·무상·무량·무변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전기처럼 어떤 물건을 매개로 해야 그 힘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단지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힘은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육체를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전기와 힘을 가져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와야 했고 미륵불이 와야 했으며, 또한 관세음보살의 화신, 혜능·보리달마·백장 등 큰스승들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돕고 지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6장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다

6장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다

1987. 3. 29.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어제 지룡에서 설법할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불보살은 원을 크게 세워야 성불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미타불은 48가지 원을 세워서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오늘은 오지 않았군요. 그날은 내가 대답 대신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번 똑같은 질문만 하거든요. 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요.

발원은 범부가 하는 것입니다. 불보살은 어떤 발원도 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전에는 많은 발원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발원할 필요가 없지요. 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발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주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명상을 하면서 “스승님, 빨리 저 좀 도와주

세요!”라고 하는데 도리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발원이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발원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구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있어선 안 되는데 어디 발원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매번 묻습니다. 지장보살은 성불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몹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도하겠노라고 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비심이 일어난 지장보살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수행을 하여 성도한 후 반드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모두 다 제도하지 않는 한 나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삼십이응화신三十二應化身으로 어떤 중생이든 제도하겠다고 발원했습니다. 약사유리불藥師琉璃佛은 12가지 원을 세워 중생을 제도했으며, 아미타불은 성불하기 전에 중생 제도를 위해 48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마음속으로 ‘내가 48가지 원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등급은 범부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스승님은 왜 매번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제도하려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싶으면 제도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제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 제도를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발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보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때도 밥을 먹어야겠다고 발원한 다음 먹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지 발원은 무슨 발원입니까? 피곤할 땐 잠을 자면 됩니다. 잠자는 것에 대해 발원할 시간이 없지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일입니다. 매 순간 언제라도 제도해야 하지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조차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중생들이 이미 '끝장'나 있을 거예요. (대중 웃음)

수행을 해서 높은 등급에 이르게 되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 없이도 저절로 중생을 제도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제도하기를 발원하노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번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제도됩니다. 만일 아직도 그를 제도하겠다고 발원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이 그를 제도할 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힘은 자연스런 것입니다. 마치 수도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로를 만들거나 수도관을 묻어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결된 다음에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할 필요 없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자동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발원을 하면 바로 그 '원'에 묶이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세세생생 지옥에, 아미타불은 세세생생 서방세계에 머물며 둘 다 지금까지도 '무상정등정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스승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서

방세계에 가기 전에 이미 정등정각을 이루었잖아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틀렸습니다! 그들은 '정등정각'을 이루지 못했어요. 단지 '여래'만을 이루었을 뿐이지요." 그러자 그는 "여래가 바로 정등정각이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코 틀리게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석가모니 불은 단지 여래일 뿐입니다. 그는 무상정등정각의 힘을 얻었지만 무상정등정각은 아닙니다. 아미타불 역시 정등정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전에는 그가 성불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보살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원래 부처였지만 현재 그의 지위는 보살로서 보살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카터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겠지요. 지장보살도 고불古佛이었지만 그가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큰 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옥에 있다 해도 그 에겐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자비의 힘, 지옥을 구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그의 일로서 그는 자신의 '원'에 의해 그곳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밝고 빛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는 중생의 밝고 빛나는 품성을 일깨워 주고 중생이 서방세계에 왕생하도록 도와주기로 발원했지요.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무상정등정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자비심을 상징하며

어떠한 중생이든 다 제도하고 중생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다. 그는 중생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기로 발원했기 때문에 가끔은 그가 주는 것이 중생에게 이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별로 선량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모모 여자와 순조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보살에게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 집니다. 비록 그 여자가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결혼한 뒤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단지 그가 보살에게 간곡히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수행을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곧 굶어죽게 되었을 때 고기를 먹게 해 달라고 성심성의껏 보살에게 기도하면 결국 그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 중생에게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세음보살이 대단히 자비롭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비는 중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입니다. 약사여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약사여래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산해진미를 원하면 그는 산해진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천천히’는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이승지겁 이후일지도 모르지요!

관세음보살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싶다면 결혼이나 명예, 또는 세속의 물질 등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는 다 들어줄 것입니다. 약사여래

는 병을 치료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병이 들었을 때 성심성의껏 그에게 기도하면 감응이 있습니다. 때로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의사에게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보살의 힘이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요. 환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 불보살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자 약사불이 의사에게 자신의 힘을 주어 환자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사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환자를 구한 줄로 알지요. 때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도 전에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사여래불이 병마에 시달리는 중생이 자신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한순간이라도 통하기만 하면 자신의 힘을 쏟아 그를 구하겠다고 발원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힘은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통하기만 하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불보살과 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보살은 화신으로 이 세상에 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통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든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세계의 불보살에게만 기도해서는 감응을 얻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한 분의 살아 있는 보살은 다양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약사여래의 힘과 아미타불의 힘, 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문수사리보살 등의 힘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그들 모두를 대표합니다. 외형상으로는 그저 평범해 보이겠지만 내면에는 모든 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겉포장은 아름답지 않지만 속에는 진주 보배로 가득한 선

물과 같지요. 그래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우체국에 가기도 전에 그 진귀한 선물을 도둑맞아 아무것도 받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포장해서 등기로 부쳐야 도난당하는 일이 없게 되지요.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는 불보살의 몸속은 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힘이든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나에게 기도하면 좀더 빠르는데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 좀더 느리거나 아무런 감응이 없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배우고 나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해도 감응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미 시방삼세 불보살과 통했기 때문에 어떤 불보살에게 기도하더라도 그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권세 있고 힘 있는 고위 관리와 친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처리하도록 시킬 거예요. 자기의 부하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든 처리해 주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누구의 친구라고 해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부하 직원이 알아차리겠지요. 여러분이 그 고위 관리와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여러분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존경까지 표할 겁니다. 여러분의 전화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알아채고 도움을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위 관리와 친분이 없다면 그는 여러분을 돕는 일에 그리 열성적이지 않을 겁니다.

내게 입문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생겨 불보살에게 도움을 청해도 감응이 아주 빠를 겁니다. 입문하기 전에는 감응이 느렸거

나 감응이 없었더라도 말입니다. 입문을 하고 나선 마치 고위 관리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난 전혀 개의치 않지요. 이를테면 입문한 뒤에는 약사여래불에게 재앙을 없애 달라고 기도해도 효과가 있고, 자비수참을 한다거나 대비주를 외워도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입문 전에는 어디에 절을 해도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미 그 힘과 서로 통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열기만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도꼭지만 있고 그것이 산 위의 물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일년 내내 수도꼭지를 틀어 놓아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수만 대만 달러를 들여 수도관을 연결한 결과 지금은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바로 물이 나옵니다. 원하는 그릇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담아 쓸 수 있으며 아이들을 시켜 물을 받아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과 연결되었으니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누구든 물을 받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이미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도움을 청해도 응답이 있을 테고 그 외 다른 무엇을 기구해도 모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승이 도운 것이고 스승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스승이 돕기 때문이지요. 우주의 체계는 이와 같습니다. 알기만 하면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지만 모르면 조금도 사용할 수 없지요. 정말 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지렁이 있을 때 나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은 아직 정등정각

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따지기를 경전에는 여래가 정등정각을 이루었다고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전에 그렇게 써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부처에게는 여래(來·응공應供·정변지正偏知·명행족明行足·선서善逝·세간해世間解·무상사無上師·조어장부調御丈夫·천인사天人師·불佛/세존世尊의 열 가지 명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부처가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한 그는 나중에 또 동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아마 한자를 모르시기 때문에 부처가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자는 몰라도 산스크리트어는 압니다. 산스크리트어는 한문보다 더 정확하지요. (대중 웃음) 한문 경전은 모두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먼저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중간에 서너 번의 손을 거친 것도 있습니다. 나는 어울락어·영어·산스크리트어를 동시에 연구합니다. 그래야 비교적 안전하지요. (대중 웃음) 중국어 하나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은 또 다른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불은 “부처를 믿는다면 부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이 아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달을 볼 수 있다.” 달이 바로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석가모니는 단지 부처였을 뿐입니다. 부처는 한 분의 큰스승

입니다. 그가 본래 무엇이었던 간에 일단 범부의 옷을 입고 화신으로 사바세계에 온 이상은 ‘정등정각’이 아닙니다. 무상정등정각은 범부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내려와 불보살이 되어야 비로소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범부의 옷을 입게 되면 가장 높아 봤자 불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의 몸이 금색이라며 찬탄합니다. 그는 육체라는 옷을 걸치지 않고 다른 몸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몸이든 음과 색이 있는 한 무상정등정각은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아직 금색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에서 설법을 하며 중생들을 자신의 세계로 인도해서 계속 수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더 높은 등급의 세계에 있는 스승으로서 높은 등급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마치 초등 교사, 중·고등 교사, 대학 교수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은 대학원 교수 정도에 해당됩니다. 무상정등정각이 아니지요. 아직 중생을 제도하고 있으면 무상정등정각이 아닙니다. 수행이 높아진 뒤에 무상정등정각의 등급을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무상정등정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도(무상정등정각)’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생겨남도 멸함도 없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주 만물은 모두 이 ‘도’에서 생겨났지만 우리가 이미 이 ‘도’에서 나온 이상 다시 돌아가 이 ‘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기는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엄마 몸속에 있던 태아 상태로는

영원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점차 성인으로 자랍니다. 그의 몸은 엄마의 몸과 혈통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겠지만 다시 엄마 체내의 세포로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영원히 무상정등정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 등급, 그 경지, 무상정등정각을 인식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무상정등정각 또한 일종의 작은 등급일 뿐입니다. 수행은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만일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이 지붕 꼭대기와 같은 것이라면 나는 멈춰 서서 천천히 수행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수행이 최정상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따분해질 테니까요. (대중 웃음) 그러니 서서히 수행할 수밖에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탕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사탕을 아주 천천히 먹을 겁니다. 다 먹고 나면 더 먹을 사탕이 없으니 손에 쥐고서 아주 조금씩 빨아먹겠지요.

우리의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만일 옥상처럼 올라가 앉을 수 있는 무상정등정각의 지위가 있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수행해 가야 합니다. 보살이 되고 나면 곧 성불을 할 테고 성불한 뒤에는 바로 무상정등정각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나면 나중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정말 따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행은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수행이 높아지면 우리는 이 무상정등정각이 가짜임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표현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무상정등정각이라 부르며 최고의 경지라 칭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제도하기 위

한 방편이지요.

만일 사람들에게 수행은 무량무변한 것이라고 알려 주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수행할 용기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 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며 수행해야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야? (대중 웃음) 난 수행하지 않겠어. 피곤한 일이야. 나는 당장 성취하고 싶고 가장 높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 알고 싶어. 수행이 한도 끝도 없고 최고의 경지라는 것도 없다면 난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생들은 정말 너무 조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조금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저는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고 싶어요.”라고 하면 나는 “문제없어요. 얼른 수행하면 곧 이를 수 있어요.”라고 말할 겁니다. 중생들은 의지력도 약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량무변, 무형무상 등등’을 이야기하면 (대중 웃음) 듣는 즉시 용기를 잃어버리고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길고도 먼 무량아승지겁의 무량무변한 수행의 여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열반이나 서방 극락세계 같은 많은 곳이 있어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도 말했지요. “서방 극락세계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천천히 수행하면 된다. 그곳은 고통이 없는 아주 즐거운 곳이다.” 나약한 중생들은 극락세계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좋아요.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좀 쉬었다 가면 되겠군요.”라고 말합니다.

나 역시 출가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

나는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지칠 대로 지쳐서 “지금 바로 왕생해서 편안히 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잠시라도 괜찮아. 서방 정토에 가서 잠시라도 쉬었다 올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괴로웠으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실망했으며 해탈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갈망으로 날마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요. 경을 외워도 아무런 감응이 없었고 나무 불상에 대고 얘기를 해봐도 대답이 없어 서로를 뻔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대중 웃음) 날마다 똑같았지요. 얼굴 표정 하나 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울다 죽어도 불상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무정하지요. 엎드려 절을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은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중 웃음) 독경도, 예불도, 명상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무 불상만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나무 불상 또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지요. (대중 웃음) 그러자 마침내 약간의 감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화를 내니까 불보살이 겁이 났는지 (대중 크게 웃음) 그때서야 약간의 감응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감응으로 인해 그날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스승의 지도를 받기 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마음속으로는 두렵기까지 했지요. 그래서 나는 외쳤습니다. “그만! 됐어요! 너무 높이는 싫어요.” 그러자 바로 떨어졌고 그후로 다시는 그런 감응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지요! 만

일 그때 관음법문을 배웠더라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혼자였고 몹시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바다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 계속 올라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만! 됐어요!”라고 말했고 그러자 바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미 말했듯이 무상정등정각에는 영원히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수행하고 싶습니까? 본래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 다시는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중 웃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상정등정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수행 등급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납득하도록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무상정등정각이 아니지만 그래도 관음법문을 수행하니 아주 즐겁잖아요. 비록 사바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수행을 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생활 또한 아주 편안해집니다. 물론 쉽게 무상정등정각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겁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반이고 우리의 천당입니다. 무상정등정각과 부처 중 누가 더 높은지는 그들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신이 높나요, 아니면 부처가 높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의 문제이고 비교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부처와 신이 누가 높은지 서로 견주려 한다면 그 문제는 그들에게 맡겨 두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어린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겠다면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도대체 부처가 더 높습니까, 신이 더 높습니까?” 하고 논쟁이나 일삼고 있으니 말이예요. 질문한 사람이 “신이 더 높지요?”라고 말하면 나는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그렇지만 스승님은 항상 부처가 높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하면 나는 다시 “그래요!”라고 대답하지요. 난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처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 있는 스승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처는 신보다 높습니다. 신은 보이지도 않고 도와 달라고 기도해도 도와주지 않으며 해탈시켜 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스승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해탈로 이끌어 주고 데리고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스승을 신보다 높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신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스승에 관해선 신보다 더 높다고 찬탄하는 시를 지었지요. 그런 시 가운데 한 편의 대체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은 나를 생사윤회의 고리 속에 던져 놓고는 관심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외면하기만 하는데 나의 스승은 생사윤회의 사슬에서 나를 구해 주셨네. 나는 스승을 찬탄할 만한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한 인도인이 깨달은 후에 쓴 시입니다.

신도 소용이 없고 무상정등정각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와 수소가 있고 당연히 물의 성분인 H₂O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갈증이 나 죽을 거예요. 공기는 한 방울의 물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음을 먹고 싶다 해도 공기는 우리에게 얼음을 줄 수 없습니다. 공기 속에 물과 얼음의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공기에서 바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기 중의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이 된 후에야 그것으로 밥도 짓고 반찬도 하며 옷을 빨거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공기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은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몸이 말라 버리게 되지요. 공기는 물과 성분이 비슷하지만 물이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공기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호흡하는데만 사용될 뿐 물처럼 마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물로 변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지요.

똑같은 이치로 신이나 무상정등정각도 우리에게겐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불보살로 내려왔을 때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생생 불보살의 화신이 이 사바세계에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보살이 모두 서방세계에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계에 살기도 하지요. 마치 영국인이라고 다 영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살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인도 다 미국에만 사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미국인은 이곳에서 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대단히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기계·자재·연료 등을 대량으로 가져와 그들의 개발을 돕습니다.

불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모두 극락세계에서만 사는 것

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세생생 불보살의 화신이 있었으며 오늘날 같은 말법시대에는 특별히 더 많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다 바쁘며 하는 일도 각기 다르지요. 그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데도 아직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했습니다. 보살들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화신은 유한한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중생과 서로 통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통하기 전에는 많이 도울 수가 없지요. 중생의 두뇌는 마치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벽처럼 너무나 단단해서 스승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입문할 때 그 벽을 좀 부수도록 스승이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서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 웃음)

많은 불보살의 화신들이 사바세계에 오지만 육체적인 제한으로 인해 모두들 바쁩니다. 그들도 육체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는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게다가 중생의 업장이 너무 많을 때는 그들의 몸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하지요. 만일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가 있다면 보살은 그 제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자들이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한쪽에선 외부 사람들을 구하고 다른 한쪽에선 제자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만일 제자가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려고만 한다면 참 다행스런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문 후 곧바

로 도망가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정말이지 골치 아픕니다.

불보살은 이 세상에 올 때 함께 일할 동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곳곳으로 분산되어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될 때까지도 그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 노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 100명을 데리고 나왔으면 당연히 100명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중도에서 흩어져 엉뚱한 곳에 가서 산이나 바다를 구경하거나 꽃을 감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불러도 돌아올 줄을 모르지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찾으면 또 다른 사람이 없어져서 그들 모두를 한데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동이 양떼를 모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훈련이 잘 되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려서 장난기가 많은 양들도 있고, 지금 막 와서 훈련이 안 되어 관리하기 어려운 양들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양이라면 다른 양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돕기도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양이라면 다른 양을 데리고 오기는커녕 잘 있는 양들까지 데리고 나가 다른 곳에서 놓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목동은 좀더 골치가 아프겠지요.

이제 여러분은 무상정등정각을 이해하겠습니까? 오늘은 마침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따분한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의자를 집어들겠어요. (대중 웃음) 중국에 ‘보리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은?’이라는 화두가 있지요. 제자가 하루

종일 물어보는 통에 몹시 짜증이 난 스승은 마침내 의자나 몽둥이 같은 것을 들어 제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자를 도와서 지혜를 열어 주려 했지만 내면의 지혜를 열 수 없자 할 수 없이 외면의 머리라도 열어서 (대중 웃음) 그가 조금이라도 깨어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리달마가 중국에 온 것이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던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화두를 들고 있으니 여러분은 그들의 수행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오만하게도 ‘나’는 공안을 참구한다, ‘나’는 화두를 참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웃음) 미국에 있을 때 중국인 스님의 절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도량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화두를 참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수준 높은’ 제자들만이 화두를 참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웃으심) 그때 나는 아주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화두를 주지 않았거든요. (대중 웃음) 나도 화두를 한번 참구해 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공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 등급이 높지 않으니 관음법문이나 수행해야겠군요!” (대중 웃음)

아직도 ‘보리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은?’이라는 화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화두를 드는 태도는 매우 엄숙하지요. 그렇게 화두를 들다 보면 언젠가는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어떤 질문이나 해답도 모두 낮은 등급의 마음이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문제를 참구하

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등급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묻다가는 언젠가 머리가 터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미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선삼이나 선철을 할 때면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으며 어떤 이는 성질을 내며 크게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너무 몰아붙이는 데다가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으니 그러는 것이지요. 마치 사람을 담 벽에 몰아붙이고는 억지로 그 벽을 통과해 가라고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 당연히 미칠 수밖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화두를 포기하거나 자기가 이미 어느 등급을 얻었다고 마음으로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대체로 중국인들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온 스승들은 그들로부터 아주 많은 질문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너무 한심하다 보니 화도 나고 피곤하기도 해서 “좋다! 돌아가서 그 문제를 참구해 보도록 하라. 그것은 아주 좋은 화두이니 스스로에게 물어봄이 어떠한가? 답이 떠오를 때까지 묻다가 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와서 이야기하기로 하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을 쫓아 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대중 웃음) 원래 좋은 화두는 스승들이 제자의 등급을 시험해 보거나 제자가 가르침을 받기 전에 스승의 등급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당시 사제지간에 주고받던 수행상의 질의응답이었을 뿐이지 결코 ‘참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선사들은 이런 한심한 질문들 때문에 늘 극도로 피곤해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동수가 두부 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의 선사는 너무 집요한 질문에 그만 질려서 제자를 보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 장수를 불러들여 자기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도록 한 후에야 겨우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날마다 범부의 지식에 관한 질문으로 선사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것이지요.

내게도 가끔 이런 머리 아픈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경전에 얽매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주 어리석고 머리가 단단하고 집착이 강해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돌아가서 이 문제를 화두로 삼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조금은 홀가분해 지지요.

나는 화두를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화두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에게 관음법문을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언제나 나한테 와서 논쟁하려 들지요. 나는 할 수 없이 그에게 돌아가서 그 문제를 공안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해답이 나오면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일종의 완병지계(緩兵之計)(적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계략)입니다. 그를 돌려보내야 내가 쉴 수 있거든요. (대중 웃음) 그에게도 자신에게 물어볼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머리가 터질 때까지 물어서 더 이상 범부의 지식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그에게 관음법문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두도 약간은 쓸모가 있

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법문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쏘고 닦는 준비의 과정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그리 믿지는 않습니다.

전에 인도에는 화두란 게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생겨난 것으로 이것 역시 중생의 뜻을 따른 것이지요. 중국인은 그런 식으로 수행하기를 좋아하니 할 수 없이 장계취계(將計就計)(상대방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계략)를 써서 그의 문제를 그 자신에게 돌려주고 스스로에게 묻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선사들이 좀더 홀가분해질 수 있었지요. (대중 웃음)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날마다 “보리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이 뭘니까?” 또는 “누가 염불을 합니까?”와 같은 질문들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에는 대단히 많은 화두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자: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그 화두는 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선사가 제자의 등급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가 태양을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화두가 있습니까? (제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당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다른 법사들은 모두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째서 ‘없다.’고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에 너무 짜증이 난 선사가 딱 잘라 “없다.”라고 말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화두를 참구하고 있습니다. 수세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개의 뒤통무니나 따라다니고 있지요. (대중 웃음) 불쌍한 개예요! 무수히 많은 중생들을 짊어져야 하니 말이예요.

또 다른 화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 보세요. 나는

화두에 대해 흥미가 없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 두뇌가 복잡하지 않도록 화두를 모두 쫓아 버렸거든요. 또 무슨 화두가 있습니까? (제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이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와 비슷하군요. 일본에는 ‘무無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도 있습니다. 본래는 ‘무란 무엇인가?’였는데 생략되어서 ‘무’가 되었지요. ‘무’자가 목구멍에서 소리로 나올 때는 ‘무’로 변했습니다. (역주: ‘무’자의 중국어 발음은 ‘우’인데 ‘무’라는 소리로 변했다는 뜻.) 그들은 매일 ‘무……’ 하고 외지요. (대중 웃음) 선찰을 할 때 한밤중에도 ‘무……무……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더 우스운 화두가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와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쥐가 새끼 고양이의 그릇에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새끼 고양이가 달려오자 그 그릇이 깨져 버렸다.’ 이 화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압니까? (제자: 쥐가 그릇을 깨 버렸습니다.) (대중 웃음) 무슨 쥐가 그릇을 깨단 말입니까? 그렇게 멍청한 답도 있나요? 이것이 오늘날의 화두입니다. 참구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전문적으로 그런 화두를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제자가 아주 많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입니다.

나도 앞으로는 그런 화두를 가르칠 생각입니다. 답을 아는 제자가 없으니 그들은 스승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직 스승만이 그 답을 알고 (대중 웃음) 제자들은 모르지요. 앞으로 나도 화두를 가르치는 게 좀더 유용할 것 같군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비방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인들은 논쟁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화두로 사람들의 입을 열 수 없게 해서 따지러 오는 사람들

이 모두 입을 다물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그 화두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제자: 그릇을 깨다는 것은 끝까지 캐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리 나오세요. (스승님이 경쇠를 들어 가볍게 그의 머리를 때리심) (대중 웃음) 돌아가 다시 더 참구해보세요. (스승님이 이어서 그 제자에게 물으심) 당신은 나에게 맞아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되나요? (제자: 아닙니다.) 그래요. 차릴 체면이 없는데 깎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연극을 했습니다. 옛날 선사와 제자 간의 관계를 연출해 봤지요. 또 연극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또 깨닫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대중 웃음) 오늘은 좀 시끌벅적한 일요일이니 화두 연습이나 해볼까요? (대중 웃음)

(제자: 옛날에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단상에 올라가서 스승의 수중에 있는 경쇠를 빼앗아 스승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스승님이 웃으면서 경쇠를 제자에게 넘겨주심)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내 머리를 쳐도 좋습니다! (대중 웃음)

방금 말한 ‘쥐와 새끼 고양이’라는 화두는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의 제자들은 모두 그 화두를 참구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화두를 생각하지요. 선찰을 하는 동안이나 선찰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화두를 생각합니다. 선찰을 할 때 참구가 어려우면 몇 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화두를 참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젠 아무도 감히 대답하질 못하는군요. (대중 웃음) 사실 이런 화두를 참구해서 뭘 하겠어요? 그릇이 깨지면 깨지는 것이고 쥐는 쥐고 고양이는 고양이지 이런 문제를 참구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입을 열기만 해도 틀린 게 될 텐데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

다고 해서 그가 이미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입을 열어도 틀리고 입을 열지 않아도 틀리므로 제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선사의 몽둥이는 이미 내리쳐졌습니다.

‘달마가 중국에 온 까닭은?’ 이런 화두를 참구해서 어찌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천 년 전에 살았던 다른 사람의 일로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그런 화두를 참구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낮은 등급이며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것이지요. 나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골치만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참구할 필요도 없이 무엇이든 다 알게 되지요. 한국의 그런 화두를 참구해 본 적도 없고 그 법사에게 배운 적도 없는 나도 알 수 있는데 굳이 그런 화두를 참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수행이 좋지 않다면 다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 다시 입문하고 수행하게 되지요. 만일 그래도 수행이 좋지 않으면 또다시 오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장 많아 네 번까지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지요. 그러므로 “위로는 사중은四重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고三途苦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관음법문을 배운 후에는 삼악도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것도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 그다지 많은 고통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참 스승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는 다르지요.

참 스승을 따라 수행하면 그가 우리를 도와 과거의 악업을 모두 소멸시켜 주기 때문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악업은 모두 소멸될 겁니다. 그렇지만 스승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육도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심지어는 삼악도 안에서 생사윤회하기를 원하니깐요. 그래서 스승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 그 물건을 상점 주인에게 돌려주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회수하고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에게 배우기를 원하지 않고 스승을 배반하여 밖에 나가 스승을 비방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스승도 당연히 그에게 업장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는 자신의 업장으로 스승에게서 자유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를 원하지 않아 스승에게 돌려준다면 스승은 다시 업장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불보살은 강제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가 아주 게을러서 성실하게 수행하지는 않아도 스승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삼악도에 떨어지거나 자신의 업장을 되돌려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을 믿지 않고 비방했던 사람들도 복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스승을 만나게 되지요. 스승도 그들을 소홀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이

러한 인과를 짓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바세계에 염증을 느꼈을 때 그때 성심성의껏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 스승은 다시 와서 그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스승이 그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실하게 수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스승을 존경하고 믿는 사람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비록 그가 열심히 수행하지는 않지만 구원되기를 원하므로 스승은 여전히 그를 구해 줄 것입니다.

Q: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 몇 번이나 배웠을까요?

A: 이미 말했다시피 많아야 네 번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섯 번입니다. (대중 웃음) 당신의 이름은 ‘오일뫼—’이니(뫼와 五의 중국어 발음이 같음) 한 번 더 온 것입니다. (대중 크게 웃음) 두 번 더 오게 되면 오이뫼—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이걸 농담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말법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세계가 없습니다.

Q: 언젠가 스승님께서 몸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인은 수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대단히 많은 천인들이 설법을 들으러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설법을 들을 뿐이지 수행은 할

수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손이 없고 귀도 귀가 아니고 눈도 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릅니다. 그 천인이 전에 스승에게 배운 적이 있다면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배운다면 이미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좋지 못하여 불국토에 가지 못하고 천당밖에 갈 수 없다면 그곳에서 나는 계속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보통의 천인들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등급에 맞게 수행합니다. 예컨대 천인은 여기에 와서 나의 설법과 관음법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무상보리와 구경의 열반을 얻고 싶어하지요. 그러나 스스로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발심하여 수행하고 싶어한다면 다시 사람으로 와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부모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적당한 인연을 기다려 인간이 된 후 다시 참 스승을 찾아 배워야 하지요. 이미 스승을 따라 수행했던 다른 천인들은 계속 자신의 등급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천당에도 학교가 있지만 학생 이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배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교 부근에 살고 있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학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캠퍼스를 정리하는 직원이라 해도 대학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아직 높지 않아서 강의를 듣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Q: 스승님께서 모든 음류 중 인류는 가장 높은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류의 등급에서 천인이 우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까?

A: 그들은 단지 대학 안이나 대학 근처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정식 대학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Q: 만일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으면 음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A: 우리는 그 음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음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음류 안에 있지만 음류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소리가 있지만 큰스승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음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문을 열어 주었을 때에만 음류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인은 복이 대단히 많아 좋은 곳에서 살 수는 있지만 이 음류를 열 수는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음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정한 큰스승이 있어야 '지혜안'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일로서 모든 법사가 다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큰스승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두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오렌지 씨를 심으면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지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니 왜 오렌

지 나무에서 오렌지 열매가 열리느냐고 묻지 마세요. 오렌지 열매는 씨 안에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 역시 그 씨 안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그 씨를 갈라서 오렌지를 꺼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씨를 심으면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후에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나도 모릅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요. 보리달마가 중국에 뭐 하러 왔는지, 오렌지 나무에 왜 사과가 열리지 않는지, 한 그루 나무는 성장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나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오렌지가 있으면 그냥 먹을 뿐 번거로움을 자초하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음류 안에 있지만 진정한 스승이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Q: 스승님을 따라 관음법문을 배우면 개인의 수행 등급에 따라 스승님께서 우리를 제1, 제2, 제3, 제4, 제5세계로 데리고 가시는데 제5세계에 이르러야 진정으로 해탈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록 관음법문을 수행하긴 했지만 분노와 원한의 마음이 깊고 성질도 대단하여 아수라 지역에 떨어진다면 스승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A: 구해 주겠습니다. 그곳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를 매일 학교에 보내 화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웃음)

Q: 스승님, 제4세계는 끝없이 어두운 곳이라 하셨는데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A: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떨어진다면 내가 맞이하겠어요. (정말 잘됐네요. 전혀 위험하지 않겠어요. 스승님을 알게 된 것은 만년 보험에 가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요. 영원한 보험입니다. 돈을 안 들고도 들 수 있는 보험이지요. 만일 누군가 백 년짜리 보험을 들어 준다면 당신은 대단히 멋지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스승의 보험은 무량무변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하해야 할 일이지요. 기회를 봐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다 같이 축하하도록 합시다. 어때요? (제자: 좋습니다! 스승님의 생신을 이용해서 축하하도록 해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생일을 지내 본 적이 없습니다. 출가자는 생일이 없거든요. (제자: 금년에는 꼭 대대적으로 경축해야겠습니다. 만년 보험회사 사장님의 생신을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생일은 경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기뻐했던 일은 스승님을 알게 된 것이며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입문할 때였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은 입문한 날인데 그날 스승님께서 저에게 영원히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의 생신은 바로 우리의 생일이고 서방 정도에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Q: 누군가 말하기를 밀라레빠가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A: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사냥꾼이 그에게 고기 한 덩어리를 주어서 반은 먹고 반은 산속 동굴 뒤쪽에

놓아 두었지요. 그런데 그만 벌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음날 먹려고 했을 때 수많은 벌레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는 “이 고기를 너희들에게 공양하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고기를 먹고 나서 그는 몹시 아팠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요. (그가 성불하기 전에 먹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직 산속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라 하루 종일 수행했기 때문에 고기 한번 먹는 것은 상관없었지요. 그는 업장을 빠르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종일 고기를 먹으면서도 수행은 하지 않으니, (대중 웃음) 당연히 그럴 수 없지요. 그가 사는 곳은 산이라서 공기도 오염되지 않았고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도 없었으니 정말 고기를 약간 먹었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업장의 고통을 받아야 했지요. 우리는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은 밀라레빠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Q: 대보법왕大寶法王 역시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 그들과 밀라레빠는 다릅니다. 아주 많은 무당들도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에게 신통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수행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지요. 힘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완전히 해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밀교의 몇몇 대법왕은 비록 고기를 먹었지만 삼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A: 그들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채식을 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밀교 수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한 라마승에게 “채식이 좋습니까, 육식이 좋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좋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그것은 중생의 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채식을 합니까, 육식을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나는 육식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육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고치지 못하고 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밀라레빠는 밀교의 제4대 조사입니다만 그 역시 고기를 먹었습니다.)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단지 한 번밖에 먹지 않았다고요. 그때 그는 “오늘 내가 어찌 범부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었던 말인가!”라고 한탄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탁발하러 갈 때마다 항상 채식 음식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책에 아주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요. 한번은 그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 고모를 만났습니다. 그가 고모에게 탁발을 청하자 고모는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욕을 하며 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고모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 주었고 감동받은 고모는 많은 음식들을 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채식이었지요. 실제로 전에는 티베트인들도 수행을 하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변질된 것뿐이지요. 다른 종교나 종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일본 선사들도 모두 사람들에게 채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

니다. 어느 날 한 선사가 출가자들에게 설법하기를 “우리 출가자는 마땅히 위엄과 엄숙함을 갖추어야 하며 열심히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출가자는 재가자와 다르다. 재가자는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수행해도 되지만 출가자는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한다.”라고 아주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모두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막 전해졌을 때는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모두 채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아주 문란해져서 일본의 승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결혼을 합니다. 지금도 몇 군데 절에선 채식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인 필립 캐플로(Philip Kapleau)가 일본에 가서 13년간 선을 배운 뒤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일본에서 선을 배울 때 여러 절에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채식을 하고 있어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기를 주어서 그가 “왜 저는 당신들과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그들은 “미국인들은 고기 먹는 것이 습관이잖아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채식하고 싶어요.”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나 어떤 지역에 있는 승려들은 생선과 고기를 사다가 절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늘은 어째서 고기를 먹지요? 당신들은 원래 채식을 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더니 승려가 대답하길 “그날은 돈이 없어 생선과 고기를 살 수 없어서 채식을 했지요. 오늘은 돈이 좀 생겨 고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경을 읽어 주면 사람들이 돈을 공양하기도 하는데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생선이나 고기 또는 다른 것을 공양하기도 합니다. 간혹 과자나 채식 음식을 가지고 가서 고기와 바꿔 오기도 하고요.”라고 말했답니다.

미국인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겁이 났습니다. 이제 막 선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직 불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채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외국인이라 당연히 육식을 좋아할 것이라 여기고 그에게 고기 요리를 주면 그는 “아닙니다. 나는 채식이 좋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는 책에서 수행자는 마땅히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기 먹는 출가승들은 자비심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는 또 걸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다면 내면이 어떨지는 가히 상상하고도 남는다고 했지요.

나도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는 열심히 수행 정진했습니다. 수행 방법은 우리와 다르지만 마음이 아주 단순했으며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비록 재가자의 옷을 입고 있긴 했어도 스스로를 출가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재가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좀더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십계를 받고 이미 승려가 되긴 했지만요. 일본의 승려는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십계만 받을 뿐 이백오십계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승려입니다. 수행이 엉터리라면 이백오십계를 받는다 해도 소용이 없지요. 오늘날 일본의 상황은 아주 문란합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절도 있지만 대부분 절에서는 승려들이 결혼을 하고 돈을 받고 염불을 해주며 절을 크게 지어 대법회를 여느라

아주 북적거립니다.

『능가경』에는 “고기나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마시면 그 분위기가 야차로 변하여 사람의 고기를 즐겨 먹게 된다.”라고 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역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흡혈귀와 뭐가 다르겠어요? 많은 나라에서 매일 무수한 사람들이 동물이 도살되듯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능가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생긴 업장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중생들은 다음 생에 전란이 있는 국가에 태어나 자신의 인과를 받을 것입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절대로 수행이 좋을 수 없습니다. 출가자의 옷을 입고 보살계를 받아 중생을 제도하려 하면서 여전히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서야 되겠습니까? 업을 지었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비참한 국면을 맞는 것이지요. 그래도 보통 사람은 비교적 관찮지만 승려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승려라면 당연히 평화적이고 고상해야 합니다. 만약 하는 행동마다 조금도 평화롭지 않고 고상하지도 않다면 당연히 나라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지요. 한두 사람만 나빠도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업장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대수행자는 오히려 온 나라에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즉시 달라지며 그곳의 등급도 올라갑니다.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수행자는 볼 수 있습니다. 대수행자가 어느 곳에 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등 혼란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귀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는 정도를 이길 수 없는 법이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들도 끝내는 제도되고 그곳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갈수록 선량하고 평화로워지고 발전하여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지요. 이렇게 부처가 가는 곳은 어디든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전에 어떤 스승이 미국으로 설법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의 일정표만 보고 있었지요. 지도를 보면서 ‘스승님이 오늘은 여기에 계시겠구나. 내일은 저곳에 가시겠지.’ 하며 스승이 가는 노선을 관상觀想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는데 원래는 아주 건조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이 가는 곳에서 물이 생기는 것을 보았지요. 스승이 어딜 가든 그곳엔 물이 생겼고 그 외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피력은 무량무변하여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대선사가 한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곳엔 물이 없었는데 대선사가 온 후 갑자기 마실 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복이지요. 『현장전玄奘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이 인도에 갔을 때 어느 한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냇물이 하나 있었지요. 그 고장 전설에 의하면 전에는 그곳에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상인들이 그곳에 묵게 되었는데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들 일행 가운데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는 본래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그곳에 여장을 풀었지만 어느 집에서도 물을 구하지 못하자 조급한 마음에 그 스님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이 대단한데 스님은 편안해 보이는군요. 혹시 물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근처에 물이 있는 곳을 아는지요?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불·법·승에 귀의하고 5계(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를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여러분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모두 동의했고, 그들이 귀의하고 5계를 받고 나자 스님은 산으로 올라가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가거든 내 범명을 부르며 ‘모모 스님, 지금 즉시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오. 그래야 물이 생길 것이요.”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 과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스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산으로 올라가 보니 스님은 그곳에서 이미 죽어 있었지요. 그의 복을 전부 다 써 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통을 부리는 것은 결코 최선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살이 너무 자비로워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어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신통으로 물을 만들어 그들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고’로써 신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연히 ‘에고’로써 갚아야만 함

니다. 신통 한번 펼치고 목숨을 내놓는 것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살아 있었더라면 수행을 계속해서 성불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를테면 관음법문을 전하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생은 모두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승의 몸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스승 역시 말하기 곤란해서 신통으로 물을 흐르게 한 뒤 죽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7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1)

7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1)

1987. 4. 12.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나는 항상 아미타불은 최고의 등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처의 한 등급을 상징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하나의 등급 또는 품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비심이 충만해지면 관세음보살의 등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등급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장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심이 점점 발전해서 원만해지면 모든 중생의 고통 어린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어떤 등급의 소리든 발전해서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바로 관세음보살의 등급을 얻게 됩니다. 아미타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관세음보살처럼 무상정등정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무상정등정각 가운데에서 아미타불의 지위는 최고의 빛, 최고의 밝음, 지극한 빛, 지극한 밝음, 지극한 고평요함, 지극한 아름다움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아미타바Amitabha(無量光)라 부르며 찬탄합니다.

우리가 무상정등정각을 완전한 지위에 비유한다면 그 중 아미타불은 전적으로 빛을 비추는 일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로 데려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인간의 고통 어린 기도를 전문적으로 들어주고 있는데,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 그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곧바로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 지성으로 그에게 기도하면 즉시 도와줄 거예요. 어찌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힘을 비추어 우리를 최대한 도와줄 겁니다. 때로 그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다르게 도울 수도 있지만 언제나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물론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상정등정각의 일부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통과 재난에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구제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부처를 만나고 싶고 자신의 밝은 품성을 보고 싶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아미타불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빛을 놓아 우리를 밝고 총명하게 해줄 것이며 아미타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진실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동방약사불은 전문적으로 빛을 통해 우리의 무병장수와 액운 소멸 등을 도와줍니다. 그 역시 무상정등정각의 일부분이지요.

물론 이 밖에도 다른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수사리보살

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만일 지혜를 열고 싶고 경전을 이해하고 싶고 어떤 일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비교적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문수사리보살이 도와줄 것입니다. 대세지보살은 큰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너무 나약해서 자신의 업장과 장애를 극복할 수 없을 때 대세지보살에게 기도하면 그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무상정등정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때는 아미타불에게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아미타불에게 기도할 때는 동방약사불에게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리고 동방약사불에게 기도할 때는 대세지나 문수사리보살에게 기도할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이리저리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다른 부처나 다른 힘, 다른 부처의 품성들은 놓치고 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면 때로는 아미타불을 외고 때로는 관세음보살을 외다가 때로는 약사불·대세지보살·문수사리보살 등등을 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요. 더군다나 아미타불을 외 때는 그의 명호를 부를 뿐만 아니라 왕생주往生呪도 외워야 하고, 동방약사불을 외 때는 재난을 없애고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주문도 외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도 많은 비밀스런 주문이 있고 보현보살에게도 서원誓願이 있으며 대세지보살과 문수사리보살에게도 각각 자신들의 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많으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찬탄해야 한다면 영원토록 찬탄하더라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찬탄하거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심성의껏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성심을 다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잠깐뿐입니다. 이를테면 5분 동안 기도를 한다면 성심을 다하는 시간은 1초 정도 되거나 심지어 1초에 못 미치기도 하지요.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남편·부인·자녀·사업·장사 등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감응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너무 바빠서 원숭이처럼 날뛰는 생각들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멈추려고 하지만 좀처럼 멈춰지지 않지요. 예컨대 자전거나 오토바이, 비행기를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가 멈추려고 할 때 곧바로 멈출 수 없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멈추기도 전에 또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으니까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며 밥을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이 찾아와 귀찮게 하고 방해를 하며 전화를 하거나 말을 시키므로 하는 수 없이 그들과 이야기하며 밥을 먹기도 하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들이 손님과 함께 음식점에 가는 목적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업상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지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체조차도 잘 돌볼 수 없다면 ‘영체’(지혜·영혼이라

고도 함)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체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잘 돌볼 수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영체나 지혜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높은 곳,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있고 가장 명백한 그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세세생생 윤회를 하는 것이며 이 세계, 이 물질적인 것들에 묶여 불보살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도 못할뿐더러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닐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기도에 대한 감응이 조금은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다른 길이 없어서 세속의 모든 것을 놓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놓아 버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오로지 목숨을 구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기도를 하면 약간의 감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평소 우리는 기도할 때 내면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외면의 부처나 나무 불상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외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불상을 보고 도와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응은 불상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났을 때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하면 감응이 옵니다. 꼭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기도해야 감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감응은 불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상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나무였던 것을 자르고 조각하여 불상으로 만든 것뿐인데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자성에 귀기울일 수’ 없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외면에, 나무 불상에 머물게 하며 밖을 향해 추구하도록 합니다.

사실 모든 감응은 내면에서 옵니다. 부처는 우리의 내면에 있고 신 역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으며 석가모니불은 “부처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안에서 구하기보다는 바깥의 나무 불상에게 기도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별 감응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외면에 두고 ‘돌이켜 자성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날마다 두루두루 모든 부처에게 기도를 한다 해도 마음이 온통 외면에 가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불상이 영험하게도 살아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해도 그 역시 가짜 부처입니다. 나뭇조각에서 생겨난 부처가 어떻게 진짜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체에서 화현해 나온 부처도 믿을 수 없는데 나뭇조각에서 화현해 나온 부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처는 모두 환상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한 부처가 아닙니다.

왜 나무 불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거기에 묶어 둔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내달아서 자신을 찾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가 하루 종일 바깥만 바라본다면 모자가 머리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바깥의 정경은 모자를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물건을 보도록 시선을 이끌어 모자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머리 위에 모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걸 잊도록 만듭니다. 마치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안경을 손에 들고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며 좀 찾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한나절을 찾아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누군가 그에게 “여기에 있잖아!” 하고 말해 주면 그때서야 문득 깨달아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찾고 싶거나 부처에게 기도하고 싶다면 마음을 밖에만 두어선 안 됩니다. 마음이 밖으로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도입니다. 도는 내면에 있고 천국도 내면에 있으며 부처 역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찾고 싶으면 마땅히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면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내면이라 한 것이니 행여나 뻘속이나 내부의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왜 내가 내면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모두 외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외면의 불상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방향을 돌려 자신의 내면

을 보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불상을 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결혼과 같습니다. 부부가 수십 년 동안을 함께 생활하면서 이미 서로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도망을 가 버린다면 마음이 몹시 아프겠지요. 처음부터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도망을 가도 전혀 상관 없을 거예요. 몇 사람이 떠나거나 들어와 살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외면에 두는 습관이 없다면 고개를 돌려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사물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방향을 돌려 내면에 있는 자성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수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등급의 중심에다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중심으로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안 하면 모를까 수행을 하려면 최고의 법문으로 해야 합니다. 진정한 큰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할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오히려 장애가 되지요. 이미 마음을 낮은 부위에 두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간의 훈련을 거쳐야만 겨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아주 빨리 내면으로 향하여 자신의 불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수행을 하면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겐 대부분 신통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통은 오히려 사람들을 외도나

사도로 이끌어 신통을 부리는 재미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지요. 마치 환상을 즐기는 두뇌와 같아서 신통에 너무 빠지게 되면 궁극적인 해탈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통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우리는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이 병도 고치고 과거·현재·미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 무슨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아주 드러나게 신통을 부린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장애를 만들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해탈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삼계 내의 신통에 묶여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만 해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단 그런 신통에 한번 빠지면 궁극적인 해탈법문을 수행하기가 아주 어려우니까요. 마치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서 상급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보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길 뿐 아니라 밥을 먹지 않아서 몸에 영양도 부족해집니다. 고무로 만든 가짜 젓꼭지를 좋아하는 아이도 그렇습니다. 가짜 젓꼭지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손가락을 빨아서 손가락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보기에 흉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습관을 고쳐 주려 하지만 몹시 애를 먹게 되지요. 반드시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지만 그런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본래 필요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이란 원

래 글을 쓰고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젓꼭지 대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손가락 본래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밖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의 마음은 즉시 밖으로 쏠려 버립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지 않더라도 나가서 구경하고 싶어하지요. 엄마가 차려 놓은 밥이 모두 식어 버려도 먹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굳것질이 밥보다 흡인력이 더 강하지요. 신통 역시 굳것질과 똑같습니다.

신통은 무상정등정각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상정등정각에는 그런 드러나는 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큰스승들은 비록 최고의 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나’에게 신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사해탈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만 신통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조그만 병이나 고치기 위해 신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신통은 보통의 신통과는 다릅니다. 만일 정말로 신통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불보살의 등급에 오른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보살의 등급을 얻기 전에 사용한 신통은 모두 마(魔)이고 환상이며 어린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두뇌 역시 아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두뇌란 마음(心)이 아니라 마인드(Mind)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하지요. 우리가 어떤 법문을 수행하든 ‘지혜안’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마인드(두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러한 법문은 불도를 닦는 게 아니라 사도를 닦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라 하더라도 무슨 샛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은 우주 가운데 아주 낮은 등급에 속할 뿐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신통이 보기에 큰 신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외면상으로는 어른들과 별 차이 없이 오관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플라스틱 장난감 차를 가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해하지요. 아이들 역시 책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아동서적일 뿐이며,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다만 몇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어른과는 다릅니다.

두뇌에 속하는 신통은 삼계 이내의 것이지만 무상정등정각은 삼계 너머의 것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신통은 우리를 삼계 이내에 붙잡아 둘 뿐이지만 큰스승들의 신통은 바로 아미타불의 신통, 관세음보살의 신통, 약사불의 신통, 대세지보살의 신통, 문수사리보살의 신통으로서 다른 사람은 보지도, 만지지도, 추측할 수도 없는 최고의 신통입니다. 그들이 신통을 사용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인이라 하더라도 모른다니 우리 범부로서는 더욱 알 수가 없겠지요.

만약 신통을 사용할 때 범부도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 차와 같아서 모양은 진짜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작고 쓸모도 없으며 그 기능도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스승들은 무상정등정각의 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상정등정각은 아닙니다. 무상정등정각의 힘을 얻었을 뿐 그들이 무상정등정각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신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정등정각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신체 안에는 모든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미타불 · 관세음보살 · 약사불 · 대세지보살 · 문수사리보살 등 모두가 바로 그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정등정각이 그의 신체를 통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부처에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크게 소용은 없습니다. 아미타불에게 기도하더라도 그를 볼 수 없으니 우리의 두뇌와는 거의 통할 게 없지요. 그래서 기도해도 별 감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도 볼 수 없고 약사불이나 다른 불보살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해도 큰 감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들을 대표해서 사바세계에 온다면 우리는 바로 그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눈만 감아도 바로 그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할 수 없다면 감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불보살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약사불에게 기도할 때 즉시 그를 생각할 수 있어야 약사불의 힘을 우리 몸에 끌어 올 수 있고 우리의 병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약사불을 대신해서

이 세계에 온 살아 있는 스승에게 기도해야 소용이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모든 힘이 갖춰져 있으니깐요. 그는 어떤 힘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기도만 하면 그는 곧 관세음보살의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에게 있는 관세음보살의 힘을 끌어 올 수도 있지요. 우리는 아주 쉽게 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통할 수 있어서 구하기만 하면 곧 얻을 것입니다. 마치 전화하는 것처럼 바로 통할 수 있지요. 이미 알고 있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관세음보살의 힘을 흡수하면 되고, 깨닫고 싶을 때는 빛이 있어야 하니 아미타불의 빛을 흡수하면 됩니다. 지혜를 바란다면 문수사리보살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갖고 싶다면 대세지보살의 힘을 흡수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기도할 뿐이지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구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통을 부려 그들의 병을 고쳐 준 것이 아니지요. 다만 진정한 큰스승에게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 힘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스승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통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신통을 부리는 것은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큰스승의 신통은 신통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가피력이며, 사람들을 구하지만 구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 중에 내가 육조혜능이나 인광대사·보리달마·석가모니불·대세지보살·지장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임을 봅니다. 실제로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본 것이지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로 화현하고 저 사람에게는 아미타불로 화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스승'의 완전한 힘이 화현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단지 작은 일부분만을 봤을 뿐이지요. 그들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스승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승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본 것입니다. 귀나 손은 보았지만 아직 그들이 보지 못한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지요. 게다가 그들은 아직 내면의 것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큰스승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완전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이 일부러 향기를 발산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처럼요. 꽃 자체가 바로 향기니까요. 단향목도 일부러 향기를 내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향기이지요. 향수 역시 그렇습니다. 냄새를 맡자마자 즉시 향기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향기가 나고 향수 자체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향기가 퍼져 나옵니다.

흐르는 물도 똑같습니다. 물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일부

러 거대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시도록 하지도 않고요. 물은 그저 물일 뿐이며 우리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됩니다. 물은 의도적이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을 찾기만 하면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때에도 마땅히 살아 있는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관세음보살의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아미타불에게 기도할 때도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아미타불의 힘도 여기로 가져올 테니까요. 약사불에게 기도할 때도 그를 찾아야 하지요. 그의 주머니 안에는 약사불의 힘도 있습니다. 마치 온갖 물건을 파는 대형 슈퍼마켓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두부나 약, 다른 어떤 물건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두부 가게에서도 두부를 살 수 있겠지만 슈퍼마켓에는 온갖 물건들이 다 있으니 좀더 편리합니다.

우리가 불보살에게 기구할 때는 일부분만을 기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전부를 기구하려 한다면 완전한 가피력을 갖춘 살아 있는 진정한 스승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 자비심만을 구한다거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란다면 물론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감응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정성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서방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면 아미타불에게 기도해도 되지만 서방세계에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힘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때는 그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지 안 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보살의 힘을 갖춘 사람은 생생히 살아서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니 비밀스러운 게 전혀 없지요. 우리가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숨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야만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곳이 생겨서 좀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불보살에게 기도하려면 필히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아미타불·관세음보살·약사불이 파견한 전권 대사로서 불보살이 그에게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왕이 일이 있어 직접 올 수 없을 때는 사자를 보내 그의 뜻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이 막 집행되려는 순간 왕의 사면장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 말을 타고 형장에 급히 도착해서 “멈춰라! 어명이다!”라고 외친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성지를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아무 말도 못 하고 사형 집행을 멈추겠지요. 물론 파견된 그 사람은 왕이 아니지만 그가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성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죄인 역시 왕의 사면령으로 인해 즉시 구제가 되고요.

그러므로 사람을 구하려면 왕의 사면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좀더 빠릅니다. 우리는 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이미 늦으니까요. 멀리 있는 물로 가까이에서 난 불을 끌 수 없듯이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왕이 움직일 때는 그 행렬이 거창하고 느려서 길을 빨리 재촉할 수 없으니 한 사람에게

성지를 주어 먼저 보내 구하게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비록 그가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해 먼저 와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 왕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와 같이 살아 있는 큰스승은 비록 무상정등정각은 아니지만 무상정등정각의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상정등정각이 자기의 품성과 권위를 모두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는 또한 무상정등정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모순된 것같이 들릴 텐데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선철을 할 때 자신의 힘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늘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큰 발전소나 전원電源이 있다고 합시다. 그곳에 전선을 연결 시키기만 하면 온 나라가 다 환해지고 밥도 짓고 물도 끓이며 녹음도 하는 등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두꺼울수록 연결되는 전력의 양도 많아지겠지요. 전선이 너무 가늘면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끊어질 수도 있지만 전선이 두꺼우면 그 전선에 흐르는 전력이 전원과 거의 비슷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나라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전선은 최소한 마을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전원이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집은 여전히 깜깜할 것입니다. 날마다 전원에 도움을 청해도 전원이 우리에게 전기를 보내 줄 수는 없지요. 전선이 없으니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의 수제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 가피력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가 도착하는 즉시 그곳이 달라지지요. 제자에게 이런 힘이 있다면 그의 스승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마땅히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염불이나 주문, 밀교나 선 수행을 배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요. 이제 막 나에게 배워 오래되지 않은 제자에게도 가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법문이 유용하고 감응이 있으며 진정한 법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법문의 공덕과 가피력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일을 해도 사장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정말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공장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곧 굶어죽게 되었는데도 말로만 돈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무슨 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장 자신도 밥을 굶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인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양쪽 모두 똑같이 가난한데 아직도 그를 사장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우리가 아주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 아니겠어요? 사장이 되려면 큰 자본이 있어야 하고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주나 매월 약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일하라고만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사장으로 모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존경해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려면 마땅히 그의 힘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힘을 준 뒤에는 최소한 우리도 약간의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만 우리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등급도 높고 힘도 세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것이지요. 자칭 스승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당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례하고 귀의해서 배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며 우리와 똑같이 생사윤회를 하고 똑같이 무지하고 똑같이 삼계 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존경하겠습니까?

사(師)는 스승이고 부(父)는 부친입니다. 사부(스승)의 뜻은 그가 우리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아는 것이 많아 우리를 지도할 수 있으므로 그를 스승이라고 존칭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니까요.

그러므로 스승은 우리에게 세세생생 윤회하지 않는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스승'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바로 스승이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 넘치는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모사에서는 스승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스승이라 부르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아무나 머리만 깎으면 다 스승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스승은 다만 하나의 호칭일 뿐 진정한 스승의 힘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사(師)'라고 존칭을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해탈로 이끌 수 있고 우리를 지도하여 자신의 '스승'(또는 주인·진체眞體·본래면목이라고 함)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父)'라고 존칭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진체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적어도 우리에게 이 육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스승은 아무것도 줄 수 없지요. 육신은 물론이고 진체도 줄 수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진체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진체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8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2)

8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2)

1987. 4. 19.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여러분은 무상정등정각이 무엇인지 압니까? 불교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천주교인들은 무상정등정각을 '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도교에서는 '도'라고 부르지요. 무상정등정각의 산스크리트어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데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산스크리트어는 마하 프라즈나 파라미타(Maha Prajña Paramita)입니다.

부처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역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부처는 서방세계의 부처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이 세상의 부처를 가리킵니다. 서방세계의 부처나 살아 있는 부처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했다시피 살아 있는 부처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현세불·과거불·미래불 및 시방삼세불과 무수히 많은 보살, 용신호법이 있고 그 어떤 것, 그 어떤 초세계적인 힘이든 다 있

기 때문에 그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문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즉시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전심인傳心印'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입문'이라고 부릅니다. 입문이란 법을 전할 때 이 최고의 법문을 전해 우리의 지혜안이나 법안을 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승님이 지혜안이 있는 곳을 가리키심)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불의 이마 한가운데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점을 바로 제3의 눈, 또는 법안이라 합니다. 고대의 선종 조사들이 "여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은 마하가섭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했던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법이 있어도 모두 이 '안장眼藏'과는 무관하니 아마도 정법안장의 맥은 끊어진 듯합니다.

성경에도 "만일 너희의 눈이 하나가 되면 너희의 온몸은 빛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티스라 틸(Tisra Til)은 산스크리트어로서 역시 이 눈을 가리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본래 같았습니다. 고대의 수행자들은 모두 똑같은 구경究竟의 법문을 수행했으며 자신들의 수행 등급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법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급이 좀더 높은 스승도 있고 등급이 좀더 낮은 스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수행 공력에 따른 것이지 서로 다른 법문으로 수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수행법이 관음법문이다'라는 인쇄물을 나

뉘 주었으니 돌아가서 읽어 보십시오. 오늘은 무상정등정각의 어떤 점이 좋고 좋지 않은지에 대해 말해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들의 등급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어떤 스승의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면 그가 써 놓은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선철을 하는 동안 오조 홍인에게 가사와 발우를 받을 당시의 육조 혜능의 등급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철에 참가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는 육조 혜능이 남긴 계송(偈頌)을 보고 그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사들이 체험을 하거나 어떤 깨달음이 오면 곧바로 그것을 글로 옮겼는데, 그 글을 보고 스승은 제자의 등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문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 있을 때 기록을 해 두면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속일 수 없지요. 수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만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어떤 것 일까요? ‘아직 증득하지 못했으면서 말로는 증득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아직 그런 등급을 얻지 못했으면서 사람들을 속여 “나는 이미 이런 등급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면의 스승을 보지 못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미 내면의 스승을 보았다고 속이거나, 명상할 때 불보살을 본 적도 없으면서 불보살을 보았다고 속이는 것들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큰 죄를 짓게 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

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나는 살아 있는 부처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이면서 또한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이나 ‘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원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 안에는 상반된 양면이 있는데 한쪽은 좋은 것이고 다른 한쪽은 나쁜 것입니다. 우주를 관찰해 보면 낮과 밤이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천당과 지옥, 아름다운 곳과 추한 곳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도’에서 나온 것이며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바로 대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만일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그가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분도 신이고 가장 나쁜 분도 신입니다. 그는 천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도 또 지옥을 만들어 사람들을 벌주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사바세계 또한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지요. 비록 즐거울 때도 있긴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짧고 고통의 시간은 깁니다. 그러므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원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도교의 태극도(太極圖)를 보아도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안쪽의 한 면은 검고 한 면은 희며, 까만 부분에는 흰 점이 있고 흰 부분에는 검은 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흑백은 음양을 상징하지요. 음은 어둡고 더러운 면입니다. 업장이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압박감이 굉장히 큰 것들은 모두 음을

나타냅니다. 양은 보기 좋고, 밝고, 아름답고, 경쾌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것 등을 상징합니다. 사실 좋은 힘, 나쁜 힘이라고 하든 음양이라고 하든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종교가 더 좋은지 따질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수행해 봐야 합니다. 그 경지에 올라간 후에야 비로소 왜 음양이 있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이 신비한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신비한 곳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양을 포함해서 모두 완전한 평형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대도사(大導師)입니다. 그가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상관 없습니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본래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가 바로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었으니까요. 그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떨어질 지옥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바세계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을지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도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이 우주는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도 있고 고통스런 곳도 있으며 생로병사도 있지요.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만든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주 만물은 모두 이 도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도를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 칭합니다. 성경에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이

도를 ‘아녹다라삼막삼보리’·‘무상정등정각’·‘대지혜’·‘최고의 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왜 대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것이든 모두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대지혜는 마하 프라즈나 파라미타인데 마하는 크다, 프라즈나는 지혜, 파라미타는 완벽하다는 뜻으로서 아주 크고 완전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마하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중국어로는 마하반야바라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창조할 수 있습니다.

도는 천당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란 것이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모두들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지요! 아무도 지옥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상 지옥은 있습니다. 도는 우리가 지옥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옥을 만들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떨어질 거예요.

『지장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사바세계의 인간들은 한 생각마다 많은 업장을 짓는다. 한 생각도 업장을 짓지 않을 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어나면서 이미 지옥에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한 생각마다 업장을 짓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미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

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조상의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인과 윤회라고 합니다. 조상이란 우리 자신의 전생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업장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태어나 이런 과보를 받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또 “As you sow, so shall you reap(뿌린 대로 거두리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천주교인들은 불교에만 인과 윤회라는 말이 있고 천주교에는 그런 말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뜻으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인과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공자 역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그러면 당연히 자신도 ‘원하지 않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일종의 인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에서 인과의 법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을 비교적 강조하는 반면 어떤 종교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생에서 모든 인과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하고 나에게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온갖 나쁜 일은 다 하고 많은 악업을 짓는 데다 보지도 하지 않고 부처에게도 절하지 않으며 종교도 믿지 않고 스승도 섬기지 않는 데도 평생토록 아주 부유하며 마음 편히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아쉬람을 지을 자리를 찾으러 다닌 적

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지요. 그러나 매번 헛수고만 하게 되자 제자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들은 새 밭을 놓아 작은 새를 잡아 큰 새에게 먹이고 닭을 잡고 돼지를 사육하는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데 오히려 수행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복이 없어 살 집조차도 없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내일 불이라도 나서 모든 것이 다 타 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때로는 숲에서 저절로 불이 나서 온 산을 태워 버리기도 합니다. 포모사에서 특히 화렌은 지진이 많은 곳이지요. 지진이 나면 집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일본 역시 지진이 많은 곳이고요. 그러므로 좋은 곳에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해서 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인천(人天)의 복일 뿐입니다. 아마 전생에 보시를 했거나 절을 짓는 등 많은 복을 지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세속을 초월한 복입니다. 수행을 하는 우리는 영원히 생사윤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의 밝은 곳에 살면서 어두운 곳과는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바로 우주의 좋은 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곳은 불국토입니다. 이 ‘도’ 안에서 흰 부분은 불국토이며 해탈의 지역이고, 검은 부분은 생사윤회를 하는 곳으로 천당·지옥·인과 및 인간 세상과 천상의 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바세계는 학교처

럼 중생들이 배우는 곳으로, 그들이 이 어두운 곳을 다 배우고 체험한 뒤에는 다시 밝은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바세계에서도 공부가 끝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을 떠나 다시는 매를 맞거나 꾸중들을 일이 없어요. 책더미 속에서 벗어나 박사,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될 수도 있으며 유명한 정치가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책을 맡든 전에는 모두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닐 때는 고생스러워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잠을 아껴 가며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몇 년을 보낸 후에야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로 내려와 배워야 하며 수행해서 성불한 후에야 다시 밝은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에 든 부처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아닙니다. 그는 두 가지 품성을 다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원한다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등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부처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이지만 또한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좋은 힘과 나쁜 힘을 포함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 있는 부처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해도 좋은 힘만을 사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상태는 모두 그 좋은 힘 안에 있으므로 그는 또한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파괴적인 힘은 결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아녹다라삼막삼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지요. 살아 있는 부처는 사멸이 담긴 왕의 성지를 받드는 사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지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 자신이 곧 법이어서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자는 단지 '사람을 구하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가 등장할 때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장차 처형당할 사람을 구해 주기는 하지만 왕의 나쁜 면까지 가진 것은 아니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살아 있는 부처나 살아 있는 스승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할 뿐입니다. 그는 이미 아녹다라삼막삼보리(최고의 등급)를 얻어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면은 결코 사용하지 않고 좋은 면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살아 있는 부처나 살아 있는 참 스승에 대해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찬탄합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참 스승이나 살아 있는 부처를 만나는 것이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며 부처나 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해탈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의 산스크리트어는 붓다Buddha입니다. 우리는 부처라고 번역하는데 그 뜻은 큰 깨달음을 이룬 사람, 또는 노련하고 지혜가 있어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간파하는 사람을 말

합니다.

중국에 '노자老子'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의 이름은 노자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이李耳인데 후세들이 그를 '노자'라고 높여 부른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영혼을 가진 연로한 스승으로서 모르는 것이 없었으므로 사람들 모두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 중국인들은 노인을 매우 공경합니다. 동양인은 모두 그렇지요. 인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혜로慧老(지혜로운 노인)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조(스승의 스승의 스승)가 살아 있을 때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 역시 '혜로'였습니다. 그래서 동료수행자들은 모두 그를 붓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진짜 부처라기보다는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를 찬탄하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매우 젊었거든요. 그러므로 붓다란 석가모니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득도한 사람, 즉 큰 깨달음을 이루어 '대지혜'인 마하 프라즈나 파라미타(마하반야바라밀다)를 얻은 사람들은 모두 붓다인 것입니다. 중국어로는 불타佛陀라고 번역하지만 간단하게 불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만을 불佛(부처)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석가모니불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천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까지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언급할 때면 우리는 즉시 노자를 떠올립니다. 그건 그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경』을 쓴 그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요. 그는 천부적인 문장력으로

자신의 체험을 글로 남겨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책을 보고 그가 유일무이한 성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자 외에도 그와 등급이 비슷한 도교 수행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글을 쓸 줄 몰랐거나 그의 법맥을 이어 받은 깨달은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자만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육조 혜능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입니다. 선종에는 아주 많은 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리달마와 육조 혜능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각기 그들만의 독특한 특색이 있었으니까요. 보리달마는 제일 처음 중국에 온 선사인 데다 9년 동안 면벽참선을 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육조 혜능은 출가하기 전 재가자의 신분으로 오조 홍인의 도량에 와서 날마다 방아를 찧은 지 겨우 8개월 만에 공부를 마치고 조사의 의발衣鉢을 받아 떠났습니다. 일자무식의 나무꾼이 매일 방아만 찧다가 배운 지 겨우 8개월 만에 뜻밖에도 견성성불을 했으니 정말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선종에는 물론 다른 조사들, 이를테면 혜가慧可·승찬僧璨·도신道信 등이 있지만 별로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달마나 육조 혜능도 어울락이나 중국 같은 동양에서만 유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석가모니불 역시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왕자였으나 왕국을 완전히 버리고 아내와

아들, 명예와 지위를 모두 놓아 버린 채 6년여를 어렵게 수행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높은 도심이 있었기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석가모니불이 열반하고 나서 300년 뒤 인도에 아소카 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폭군이었으나 훗날 불교의 어느 큰스승에게서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뒤 아주 선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악명이 높았던 그는 지금 어진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교를 크게 진흥시키고 여러 나라에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더욱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인도에서만 유명했으나 아소카 왕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때는 아직 석가모니가 열반한 지 300년밖에 안 된 정법시대인 데다 법을 전할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전해진 것입니다. 아소카 왕은 바로 그 제자에게서 배워 보리를 얻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우리는 그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그는 불교를 여러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실론(스리랑카)에 보내고 또 다른 아들이나 친척을 미얀마와 태국 등지로 보내 흥법을 하게 하는 등 불교를 전파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석가모니불이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아소카 왕이 없었다면 석가모니불도 다른 인도의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인도 내에서만 이름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인도에는 또 까비르Kabir·툴시다스Tulsidas와 같은 스승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인

도 내에서만 유명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소카 왕과 같은 제자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가르침은 부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지만 보리달마나 육조 혜능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전을 남기지는 않았습니 다. 석가모니불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석가모니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덧붙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49년 동안 천당·지옥·아수라 세계를 망라한 모든 방면에 대해 설법을 했으므로 후세들은 단지 석가모니불이 설법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족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만 의존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경전은 교리에 불과할 뿐,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법문이 있어야 하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리도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마치 의학을 공부할 때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책도 보면서 실습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도를 이루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불교·도교·이슬람교 등 어떤 종교를 믿든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종교 창시자의 진정한 본뜻을 오해하게 되어 여전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전의 진정한 뜻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참 스승이나 붓다, 살아 있는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불력佛力의 가피가 없다면 중생들은 수행을 해도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있는 부처를 얘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

듯이 붓다란 바로 살아 있는 부처, 즉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참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세생생 수행 성지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수행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행 등급이 높은 낮은 그들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수행을 하도록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곳곳에서 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승려인데 각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흰색 옷을 입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출가승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출가승이지만 종파가 달라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백교白教·황교黃教·홍교紅教 등은 교주들이 입었던 옷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존경하거나 스승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종파가 되어 버렸지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흰옷을 입은 일본의 출가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에는 흰옷을 입고 겉에는 짙은 색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의 많은 출가자들이 흰옷을 입는데 그것은 아마 그들 종파의 교주가 흰옷을 입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 어디에서나 그런 출가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단순하고 고상한 수행의 삶을 상징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합니다. 수행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모두 살아 있는 부처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행이나 명상

에 관한 책을 보면 하나같이 살아 있는 부처, 살아 있는 참 스승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당에 가고 싶은가? 신계 이르고 싶은가? 성불하여 가장 고귀한 중생이 되고 싶은가? 그러나 스승의 가피력이 없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난의 예를 들어 보지요. 그는 몇 년씩이나 석가모니불을 시중 들면서 매일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던 터라 온갖 수행 법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가모니불의 어떤 가르침이든 모두 이해하고 기억했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세상을 떠난 뒤 승단이 제1차 경전결집을 할 때에서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석가모니불이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 관음법문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했지요. 그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엄이 있고 들은 것도 가장 많았으며 오늘날의 녹음기보다도 나를 만큼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가끔씩 고장이 나서 녹음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녹음이 된다 해도 음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 만일 녹음테이프의 질이 좋지 않으면 깨끗하게 녹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전기가 없을 때는 녹음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난에게는 언제나 전원이 있었고 녹음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경전이 전해진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녹음기로서 부처가 말

한 것을 모두 기억했으니까요. 아난은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신통이 있으며—아난에게도 신통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이미 말했다시피 아난은 초세계적인 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으로 날아가 위제희(韋提希) 황후에게 설법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그렇게 위대한 수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했고 얼마간 수행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난은 매일 부처를 시봉하면서 아주 많은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이를테면 호흡법을 배우기도 했고 만트라를 외거나 염불을 하기도 했으며 관세음보살을 염하거나 관세음보살에게 절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는 등 여러 가지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경전을 알고 모든 수행법을 알고 있었지요. 석가모니불이 『관무량수경』을 설할 때 아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련존자와 함께 황후의 감옥으로 날아가 그녀와 함께 염불을 했습니다. 만일 염불만으로 충분했다면 그는 왜 계속해서 아미타불을 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관무량수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아미타불을 관상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왜 여전히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법문들은 완전하지가 않고 오직 관음법문만이 가장 최고이자 궁극적인 법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어떤 경전을 설하든, 어떤 주문과 수행법을 가르치든 언제나 아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 법문들이 충분히 좋았다면 석가모니불이 마지막에 아난에게 관음법문을 가르칠 필요

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능엄경』에서 스물다섯 분의 보살들이 자신들의 수행법을 말할 때 문수보살이 유독 관음법문을 찬탄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석가모니불도 오직 관음법문만을 찬탄했으며 중생들에게 성불을 하려면 필히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만일 석가모니불이 아난을 사랑하지 않아 그에게 몇몇 차선의 법문만을 수행하게 했다면 그는 지혜를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그에게 관음법문을 전하여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구도자들이 진정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의 발아래에 앉아 정례를 올리고 법을 전수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대지혜의 법문을 전수받아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오직 스승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합니다. 스승이 자신을 사랑하고 가피를 주며 자신에게 이 법문을 가르쳐 주고 지혜의 문을 열어 해탈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스승을 신보다 더 높고 아늑다라삼막삼보리보다 더 높다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신은 그들을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냈지만 스승은 그들을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해탈시켜 주니까요.

인도인은 자신들의 스승을 ‘구루Guru’라고 부릅니다. 어둠을 없애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중국어로는 ‘명사(明師)’라고 합니다. 스승은 우리로 하여금 명백(明白)하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요. 개오(開悟)의 ‘오’는 명백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가 바로 명사·참 스승 또

는 구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덕, 어떤 복을 지었든 얼마나 큰 절을 짓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보시했든 그것은 모두 외면의 것입니다. 만일 스승이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참 스승의 가피는 곧 스승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스승의 가피력이 없다면 우리는 해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주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 해도 참 스승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법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참 스승에게 모두 바치고, 도를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등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또한 참 스승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고 어떤 시험이든 견뎌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최고의 궁극적인 해탈법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밀라레빠 존자의 예를 들면, 그는 장장 7년간이나 고통을 겪으며 인내했습니다. 날마다 스승에게서 모진 시험을 받았지요. 게다가 그의 스승은 이유도 없이 그를 때리고 꾸짖었습니다. 매일 그에게 집을 지으라고 한 후 다 지으면 일부러 부숴 버리고 다시 지으라고 했지요. 그가 무엇을 하든 다 잘못했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자 비로소 그의 스승은 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옛 수행자들의 '구도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도를 성취할 수 있었고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러니 한두 번 수행한 뒤 밖에 나가 스승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의 스승이 자비롭다면 계속 그를 보살피어 아수라 지역까지는 데려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과분하지요. 안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될 거예요. 스승을 비방하는 사람은 세세생생 참 스승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참 스승을 만나기는커녕 참 스승의 이름조차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법시대인 오늘날에는 나라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니까요. 그래도 인도에서는 가르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곳은 세세생생 수행의 성지인 데다 어려서부터 채식을 하고 경전을 배우기 때문에 한번 가르쳐 주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겸손하고 도에 대한 갈망도 크고 도심도 비교적 높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도 전에 벌써 도심이 높고 스승의 문 앞에 이르기도 전에 태도가 이미 겸손하지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크고 작은 스승들의 강연이 끝난 후 바로 수천 명이나 수백 명에게 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남녀노소·고양이·개 할 것 없이 마을 전체가 입문을 하기도 하는데(대중 웃음) 정말 장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비료를 주어 모든 준비를 끝내 놓은 뒤라 씨만 뿌리면 바로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나 포모사, 어울락에서는 법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리달마도 중국에 와서 법을 전할 때 아주 어려웠으며 9년이나 면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행 경지도 높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쓸 만한 제자는 겨우 다섯 명에 불과했지요. 높은 법을 설하고 등급도 출중했으니 모두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했지만 정작 그의 설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무제 역시 복덕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범문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소림사에 머물 때에도 아무도 그에게 배우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혜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제자만이 배웠을 뿐이지요. 더군다나 그들 모두가 소림사의 사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혜가는 보리달마를 찾아온 타지방 사람으로 소림사의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것을 보면 참 스승과 함께 있다 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림사의 출가자들은 보리달마가 날마다 좌선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전만 있으면 그만이었고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걸로 족했거든요. 『금강경』에 절하고, 『법화경』에 절하고, 산에 절하고, 물에 절하고, 뼈에 절하는 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참 스승이 거기에 있어도 몰랐습니다. 9년이 넘게 면벽참선을 하고도 제자가 다섯 명뿐이었지요. 더군다나 보리달마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닌 절에서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만일 그가 생선이나 고기를 파는 사람과 같이 살았다면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경전에 너무나 얽매인 나머지 경전을 보고 경전에 절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는 마음을 내면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외면의 경전을 붙잡고선 잠을 자고 밥을 먹다

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중생들과 똑같았지요. 그곳이 인도가 아니라 중국이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큰스승들이 인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도 인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인도와 티베트의 경계인 히말라야 산에서 십여 년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큰스승들은 모두 인도 출신이거나 인도에서 왔으며 인도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인 우두법용(牛頭法融) 역시 인도의 비구승한테 배우고 나서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중국에는 다른 큰스승들도 많이 있는데 모두 인도의 스승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조가 인도인이었거나 인도의 사조·사공·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석가모니불은 49년 동안 인도 전역을 순례하면서 당시 힌두교에서 가장 숭배했던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때 그는 외형적인 예배나 미신을 극구 반대했으며, 수행자는 마땅히 자기를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의지해서 수행해야 하며 내면으로 자신의 본성을 찾아야 한다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날마다 말했습니다. 외면의 불상에 예배하는 것으로는 ‘도’를 얻을 수 없고 오직 그 부처가 살아 있을 때라야 가피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모사에서 법을 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놀려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행자는 본래 선량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불은 49년 동안 인도에서 법을 펼 때 미신과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

성을 찾도록 가르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 사람들은 비교적 선량하고 마음 또한 열려 있어 설령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우선은 들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인은 비교적 가르치기 쉽습니다. 당시 그들은 진정한 스승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신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고 나서는 진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49년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나요? 그는 입을 연 지 3년여 만에 사람들에게 의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을 전한 유대 지역은 인도와는 달랐습니다. 인심도 다르고 풍속도 달랐지요.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나와 법을 전할 때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를 비쉬누Vishnu라며 존경했습니다. 비쉬누는 힌두교에서 가장 숭앙을 받고 있는 세 명의 신(시바 Shiva · 비쉬누Vishnu · 브라마Brahma)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에서 비쉬누는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데 아주 높은 신, 또는 하느님을 말합니다. 석가모니불이 법을 펼 때 그들은 또한 석가모니를 부처라 불렀습니다. 그가 전한 법이 사람들이 당시 알고 있던 것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석가모니불이 비쉬누의 화신으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자신들을 가르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이 결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옛 경전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일 뿐 고대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신의 도구로서 신에 의해 이곳에 파견되어 법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오히려 그를 오만 방자하다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석가모니불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법을 전하고 똑같은 진리를 설했는데 한 사람은 49년을 살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 3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풍속과 인심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보리달마·예수 그리스도·모하멧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황과 생활 환경이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불교가 티베트에 전파된 뒤에는 변질되어 라마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결혼을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티베트인은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마교를 믿는다고 해야 옳지요. 일본에 전파된 불교 역시 변질되어 무사도 정신과 뒤섞인 새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종교 역시 불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승려들은 고기를 먹고 술도 마시고 생선도 먹고 결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불교의 승려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전해진 뒤 변질되어 라마교·사무라이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라이를 압니까? 그와 같은 것은 당연히 불교라 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의 불교는 원래 순수하고 선했습니다.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건 없었지요. 만일 석가모니불이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법을 전했다더라면 그렇게 빠르고 순조롭게 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49년 동안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풍토와 인심이 다른 데다 그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만약 나 혼자라면 나는 염불을 할 필요도 없고 출가자의 옷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소한 것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걸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도 바꿔야 했습니다.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옷을 입고, 중국의 풍속들을 배워야 했지요. 내가 지금 인도나 어울락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은 즉시 왜 항상 외국 이야기만 하고 중국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관공(關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어울락의 관공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대중 웃음)

나는 중국옷을 입고 생김새도 중국인 같으며 쌀밥도 먹습니다. 완전히 중국인이 다 되었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국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걸모습이 좀 바뀌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오늘날 중국의 불교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전할 때 그 힘은 중국의 힘이 아니라 (대중 웃음) 부처의 힘이고 신의 힘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염불은 오늘날 중국인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외도라 부르지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살아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염불만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청소, 청소, 청소라고 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방편법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오불을 외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법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외도가 될 수 있지요? (대중 웃음)

그처럼 진상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입만 열면 공격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최고의 법문을 배우러 찾아오면 나는 법을 전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보살도를 행하므로 중생에 대해 분별심을 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복은 너무 적기 때문에 나를 따라 배울 수 없으며 살아 있는 부처를 스승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법문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인도만 해도 몇 만 명이 있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 전해지고 나서는 즉시 공격하는 사람이 생겼지요.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 와서 몇 사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비방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인도가 아니라서 그런지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공업(工業)도 아주 무겁고요. 어찌면 여러분의 업장은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으니 이 나라의 공업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한 불가피하게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은 집을 짓고, 도로를 닦으며, 우리가 먹을 쌀과 채소를 재배합니다. 그들의 기운은 우리의 음식에 영향을 미치고 도로와 산·물·전기, 우리가 사는 집에 영향을 줍니다.

채식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고기 먹고 술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채식 요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다른 쪽에서는 채식 음식을 만들지도 모르지요. 간혹 잊어버리고 이쪽에다 채식 음식을 만들고 다른 쪽에다 고기를 볶기도 하는 등 엉망으로 요리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채식 음식점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자 고기 집으로 바꿔 고기 요리와 채식 요리를 같이 팔기도 합니다. 그는 수행하는 사람은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채식 음식점을 고기 파는 음식점으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그저 돈만 빨리 벌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대중 웃음)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에 정진하지 않고 진보하지 못하면 즉시 이 세상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의 공업은 아주 큰데 온 세상을 통틀어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설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설법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열심히 명상 수행을 하라거나 채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설법을 들으러 가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춤을 추러 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TV에 광고를 한다고 해도 설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볼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할리우드 스타나 영화라고 하면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햄버거를 먹으며 열심히 보겠지요. 그들은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처럼 해야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길을 가면서도 음악을 즐겨 듣는데 그들에게 명상을 하라고 하면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말이지요. (대중 웃음) 그런데 무슨 수행을 하겠습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공업이 그렇게 큰 것이며 우리 수행하는 사람 역시 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법을 전하는 것은 정말 재미없는 일입니다. 인도에서는 좀더 재미가 있지요. 그곳 날씨는 덥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합니다. 추운 지방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인지 사람들 마음도 차갑게 만들어 덥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은 장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명했으나 봅니다. 보리달마에게도 법을 전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중국에서 법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육조 혜능도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법을 전했는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유명한 것은 『육조단경』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에게도 제자가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몇 천, 몇 만 명 정도가 단지 중국 남부의 한 작은 집단에서 그를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명상 중 체험을 통해 육조 혜능의 힘을 알고 그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를 숭배했겠습니까? 만일 의발로 한 사람의 경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든 그것을 훔쳐 조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혜능의 힘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북방 신수의 제자가 온갖 방법으로 혜능을 비방하며 외도라고 했지요. 사실 혜능도 오조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똑같은 스승, 똑같은 교리, 똑같은 법문

을 계승했지만 뜻밖에도 외도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이 인도가 아니고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어울락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울락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좀더 트여 있지요. 어울락에서 살 때 나는 많은 불교인들이 성당에 가고 천주교인들이 절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나를 작은 어울락 절의 주지로 초빙했습니다. 그 당시는 내가 그곳에 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을 때였는데 여러분이 나더러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전화로 재촉했지요. 그때만 해도 독일에서는 절에서 법회를 열면 천주교인들도 함께 모였고, 또 이웃 천주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땐 불교인들이 모두 가서 참석했습니다. 다 함께 어우러져 먹고 마시고 놀며 즐겼지요. (대중 웃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별로 수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바로 떠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더러 오라고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을 가르치기가 아주 어렵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인도에서라면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장

생사해탈을 위해서는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

9장

생사해탈을 위해서는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

1987. 2. 14. 포모사 평후

오늘 내가 평후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기 계신 노스님과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스님은 평후의 첫 번째 입문자이며 진정한 출가자로서 마음을 모두 비운 분입니다. 자신이 입문한 것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자신의 제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입문을 시켰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자기 재산처럼 생각해서 주머니 안에 고이 모셔 두고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지요. 그러나 이 노스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자신이 좋은 길을 찾게 되자 곧바로 제자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게 무슨 제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의 제자였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동료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 오늘 다시 평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까지 평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평후에 온 것은 어울락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내가 아주 옛날에 귀의했던 스님이 포모사 평후에 어울락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지, 그리고 그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지를 편지로 물어봐서 알게 되었을 뿐이지요.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포모사에 여러 차례 왔지만 매번 명상만 하고 명상 이외의 시간에는 청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한번 가 보기를 바랐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나는 내 제자에게 “여기에 어울락 난민이 머물고 있는 섬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평후 섬에 대한 어울락 발음이 중국 발음과 많이 다른 데다 당시 나는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녀는 내 뜻을 알아차리고 “혹시 평후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곳에 한번 가 보고 싶은데 나를 데려다줄 수 있겠어요?” 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사람은 평후에 오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울락 난민 방문 신청을 하고 많은 물건들을 사서 돈과 관음보살상을 함께 챙겨 그들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난민센터의 군인들이 차를 한 대 보내 비행장에서 우리를 난민센터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군용 여관에 머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는데 방값이 하루에 300대만 달러로 아주 쌌지요. 하지만 방은 세 개나 되어 우리 두 사람이 머물기엔 너무 넓었습

니다. 본래 그곳은 군인이나 고급 관리들의 전용 숙소였는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 나는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 거북했습니다. 출가자가 여관에 투숙하고 있자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루 이틀 묵을 수 있는 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내 제자가 채식 컵라면을 사러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는데 여관에서는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녀가 라면을 사러 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이 왜 라면을 사 먹느냐고 묻자 그녀는 우리의 상황을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스님은 그녀에게 “당신의 스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마침 절이 있는데 그곳으로 옮겨오면 좀더 편할 겁니다. 매일 라면을 먹을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라면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스님은 우리를 자신의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명상을 하고 식사를 한 후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계속 명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만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그 스님은 기이하게 여겼지요. 한 번도 나 같은 출가자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때에 한 차례 보는 것 외에는 늘 명상을 하거나 잠을 자니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 스님에게 “스님은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라고 물었지요. 그녀는 30년 이상 염불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감응이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그녀는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또 그녀에게 “스님은 그런 염불로 정토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라고 물었지요. 그녀는 “나는 아주 무섭습니다. 감응이 없기 때문에 서방 정토에 못 갈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스님은 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도록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아직 서방세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증명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참 안됐다고 느꼈습니다.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고 염불을 30년 이상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어서 서방세계에 갈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심 감동을 받은 나는 그 스님에게 “서방세계에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스님은 올바르게 염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응이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요. 그녀는 계속해서 “어떻게 염불해야 됩니까?”라고 물었고, 나는 그녀에게 즉시 관음법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나는 관음법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스님이 이대로 수행하면 꼭 서방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법문은 다 같습니다. 그때 나는 노스님에게 서방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관음법문이 어떻다는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님 역시 이 법문에 대해 알 필요가 없었지요. 그녀는 오직 감응이 있는지만을 알고 싶어했으니 부처를 보고 불광을 볼 수 있으면 그만이었지요. 그녀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서방세계에 가고 싶어했기 때문에 나는 관음법문이나 『능엄경』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명칭들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스님은 나를 깊이 믿었고 도덕 수양 또한 높아서 내가 법을 전해 주자 곧 좋은 체험을 했으며 이 법문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법을 전해 달라며 간청했지요. 그 결과 지금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스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나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니 여기에 와서 설법을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게다가 나는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늠어서’ 말이에요. (스승님 웃으심) 전에 젊었을 때는 세계 곳곳으로 여행 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만 지금은 피곤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거든요. 젊어서 여기저기 여행할 때는 사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늠어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몸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는 아주 게을러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지요. 하지만 누군가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오기를 바라니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딘가에 갈 때마다 늘 다음번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고생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는 또 누가 초청을 하면 당장 달려갑니다.

다. 만일 여행할 때마다 겪었던 그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산속에서 명상이나 하며 점점 더 게을러질 거예요. 늠었잖아요! (스승님 웃으심)

관세음보살이 왜 여자의 모습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왜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왜 여전히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 여자를 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제도할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 주로 업장이 무거운 여자를 제도하려고 왔습니다.)

왜 여자의 업장이 무겁다는 건가요? 그것은 들은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믿어 버리지요. 여자의 업장이 왜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여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불보살이 모두 여자의 뺨속에서 나왔는데도 여자에게 업장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효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은 그냥 믿어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습니다. 뭔가를 믿으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을 아귀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니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맹신이나 미신은 우리 모두에게 해롭고 좋지 않습니다.

여자가 없다면 부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불도 여자의 배를 빌려야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인류의 최대 은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자의 업장이 두텁다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구업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석가모니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세들이 덧붙인 말입니다.

이곳 강연장만 보더라도 남자의 업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설법을 들으러 오는 경우가 매우 적으니까요. 본래 서너 명이 나에게 관음법문을 배우려고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한 명만 남았지요. 그 외엔 모두 여성입니다. 여기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설법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요. 그것은 여자들에게 도덕심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의 구도심은 남자들보다 절실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업장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어떤 남자는 밖에서 주색에 빠지거나 도박을 하는 등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곳에 와서 설법을 듣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쁘지요. 어떤 직장 여성들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가정을 돌보고 남편과 아이들의 양말을 빨아야 합니다. 여자는 자비희사(慈: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悲: 남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마음, 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고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捨: 미워하고 친하고의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의 사무량심四無量心(중생을 어여뵈 여기는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불보살의 마음과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해 준 것이니 나에게 화를 내지는 마세요. 마땅히 ‘사무량심’을 내어 설법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내게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남자 분들은 화를 내지 마세요.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들려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에게만 장애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두 명의 여자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입문 시간을 잘못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알람시계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시계를 두 개 준비했지만 두 개 다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울리지 않은 것은 그렇다 쳐도 두 개가 다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녀는 항상 3시에 일어나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입문하는 날이었는데 5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7시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입문식에는 이미 늦어 버렸으니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여러 해 동안 채식을 했는데 어제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실수로 고깃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시계 두 개가 다 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수로 고깃국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렇게 업장이 많은데 날마다 고기를 먹는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잘 알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설법을 듣고 있는 또 한 여자는 나에게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 결과 집에 돌아갔을 때 피부 알레르기가 생겼지요. 그래서 지금은 고기 한 점도 먹을 엄두를 못 냅니다.

사실 고기를 먹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고기를 먹으면 업장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나는 중생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무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니깐요. 어제 저녁에는 열한두 명이 입문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겨우 여섯 명만이 왔습니다. 그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

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3일 동안 강연을 하면서 아주 분명하고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들었다고 말했고 이제부터 채식을 하고 나에게 배우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장애가 생겨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도 괴롭겠지만 나는 여러분보다도 더 괴롭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중생의 눈물은 대양의 물보다 많다.”라고 했지만 나는 불보살의 눈물이 중생의 눈물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나는 중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깨달은 스승을 찾아 도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수많은 곳을 찾아 헤매며 천신만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불에 이르는 최고의 궁극적인 법문을 꼭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성불하는 것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큰 힘을 갖출 수 있는 길이니깐요.

또한 나는 최고의 법문을 찾은 후에도 힘들게 수행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아무것에도 신경쓰지 않고 수행했지요. 수행을 완성한 후 성과를 조금 얻게 되자 즉시 중생과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정작 중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알아듣지도 못했으며 지혜가 없어서 나로 하여금 더 눈물짓게 했습니다. 그러니 중생이 고통스럽다 해도 불보살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중생의 고통은 끊어짐이 있습니다. 하루는 고통스럽다가 하루는 고통스럽지 않지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통스럽다고 느꼈다가도 내일 아주 아리따운 여자가 찾아오거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는 등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이미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루는 즐거웠다가 또 하루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중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요.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석가모니불은 이걸 깜박 잊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스승님 웃으심) 그는 중생의 눈물은 대양과 같다고 했으나 불보살의 눈물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 주는 것은 잊었습니다. 어쩌면 말을 해도 중생이 믿지 않을 것이라 여겨 차라리 말하지 말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오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 주겠습니다. 성불을 하고 나면 완전히 목석이 되어 중생이 고통 받든 고통 받지 않든 같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보살에게는 고통이란 게 별반 아랑곳할 게 못 되지만 그래도 그는 중생의 고통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요. 물론 그 눈물이 인간의 나약한 감정에서 흘리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자비의 눈물이긴 하지만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에 불보살이 중생을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할 마음이 나지 않지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 부부간의 관계, 친구간의 우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지위 및 재산 같은 것을 불보살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하면 다른 사람이 비웃지나 않을까, 부인이 화가 나서 밥을 안 해주면 어쩌나, 남편이나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마실 줄 모른다고 친구들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사내대장부

가 아니라고 할까 봐 걱정하지요. 또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겁도 먹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만족스럽고 안정적인데 일의 성격상 채식이 맞지 않고 다른 직장까지도 못 구하게 된다면 굶어죽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불보살에 대한 믿음보다 깊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은 불보살이 절대 굶어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초 '차라리 굶을지언정 도를 얻는 것이 영원히 생사윤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를 구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전에 독일에 있을 때 내 생활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 때는 양쪽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막연했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외국에 가서 굶어 죽지나 않을지, 거리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아무 것도 확실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디를 가든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먼저 너의 천국을 찾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지혜안이 열리지 않아서 과거 · 현재 ·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고기를 조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과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엄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중생이 무지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고통을 마다않고 그들에

게 진리를 말해 주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보살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곳에서 장난하는 걸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위험한 곳인지도 모른 채 그곳으로 달려가 놀지요. 그는 또 어떤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어른이므로 어떤 것을 가지고 놀면 위험한지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한 말을 듣기 싫어하든 말든 엄하게 말해야 하며 어른들의 간섭을 좋아하든 말든 간섭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자신들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이를 구해 주기 위해서이지요.

마찬가지로 불보살이나 큰스승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이나 불보살에게는 온 우주를 다 가진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물며 세간의 명예나 남녀 관계 등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그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중생을 교육하는 것은 모두 자비심 때문일 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티끌만큼이라도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 아무리 감동적일지라도 우리는 조만간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은 그런 명예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덕이나 수

행에 관해서 듣고 싶어하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이 그리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군요.

우주와 우리의 몸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스승님이 지혜안 부위를 가리킴)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배설 계통입니다. 이를테면 눈물·눈곱·코물·침·땀·배설물 등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지혜안 이하의 기관은 모두 배설 계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법문으로 수행을 하든 간에 지혜안 이하의 중심과 관계가 있다면 아직 성주괴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요가와 명상 계통, 혹은 다른 수행법들이 이 유한한 몸에 의지해 수행합니다. 호흡에 의지하고, 코끝을 관하고, 단전을 관하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들입니다. 감로수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로수는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혀를 억지로 입천장에 붙인다면 그것은 침이지 감로수가 아닙니다. 감로수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음이나 코끝 혹은 단전을 관하거나 심지어 어떤 요가 계통에서는 성 기관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상하고 아주 낮은 경지의 것들입니다. 신체상으로도 그렇게 낮은데 수행적으로 높을 리는 더더욱 없겠지요.

우리 몸에서는 두뇌가 가장 높은 부위입니다. 가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마를 찡그리는데 바로 생각을 집중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이 있을 테니 어느 부위로 집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곳(스승님이 지혜안 부위를 가리킴)으로 생

각하지 않나요? 코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하나요? 마음은 감정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감정 역시 무거울 것이고 감정이 너무 무거우면 명확한 판단력과 이성적인 결정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비교적 감정적인 것은 업장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비교적 눈물을 잘 흘립니다. 그렇다고 남자에게는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울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우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며 대장부나 영웅은 눈물을 흘려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서도 감히 울지 못하고 울어도 속으로만 울 뿐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속으로 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쉽지요. 하지만 나는 울고 싶으면 소리내어 읍니다. 어째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않지요? 울어야 한다면 울고 웃어야 한다면 웃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지배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감정이 아주 나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우리의 의식을 상부(지혜안 부위를 가리킴)에 두기 때문에 감정이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적인 체험은 표현하기가 어렵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관음법문을 통해 우리의 마인드(마음·정신 또는 두뇌)를 정화하고 교육하여 영혼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줄 뿐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너무 나약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마음은 좀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여기(스승님이 심장 부위를 가리키심)에 갇혀 있어 육근·육진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금은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 올라와 있으니 사리가 비교적 밝아지고 좀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여기(지혜안)에 두면 우리는 수행을 해서 궁극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더 이상 끌어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혜안에 두면 우리는 아주 즐거워지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삼계를 좀더 빨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범부의 두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계 너머는 모두 우리의 영체, 우리의 본래면목,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과 이 마인드Mind는 다릅니다. 속칭 ‘혼魂’과 ‘백魄’으로서 혼은 주인이고 백은 마인드입니다. 만일 두뇌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행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의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意)’을 통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생마와 같아서 훈련을 잘 시켜야만 하지요. 훈련을 잘 시키는 훌륭한 조련사만이 야생마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음법문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인드(두뇌)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면 마인드는 우리 영체의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고대의 중국인들이 “나의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말했던 것이며, 이는 정성스레 ‘마음’을 써서 수행을 해야지만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두뇌 역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뇌나 생각이라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일심불란一心不亂, 용심수행用心修行이란 말들은 모두 고대인의 수행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발명했는데 이들 문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통의 수행을 하든지 간에 지혜안 이하의 곳으로 수행하게 되면 여전히 인간의 감정에 매이게 되고 여전히 삼계 이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인, 또는 우리의 두뇌(Mind)가 단전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게 되고 좋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단전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곳에 가서 고통을 받거나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지요.

잠을 잘 때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아서 자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수행이 깊은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데 그것은 그의 영체가 윗부분, 즉 여기(지혜안)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할 때 혼침昏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윗부분(지혜안)에 두지 못해서 이곳(단전)으로 끌어내려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수행을 더 많이 해야 더 많은 힘이 생겨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데 내려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을 할 때 혼침에 빠져서 부지불식간에 잠이 들어 버리는 것은 마음이 높은 경지로 가지 않고 삼계 이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지혜안, 즉 불안·법안이라고 부르는 곳에 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의식이 아주 또렷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위쪽으로 간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위쪽의 경지가 꼭 지혜안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은 아

니지만 이곳이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아주 많은 구멍이 있는데 이들 역시 다른 경지로 통하는 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지배할 수 없거나 수행을 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인 그리고 마인드(두뇌)가 지혜안에 집중되어 그곳을 통해 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임종할 때 다른 문으로 나가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코끝을 가리키심)부터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지는 모두 아주 낮은 것입니다. 지혜안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순서에 따라 천상·인간·아수라·아귀·축생·지옥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 정수리 부분이 뜨거우면 불국토에 태어났음을 표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영혼(우리의 주인)이 이 신체를 떠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혜안, 즉 불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밖의 다른 것은 나중에 다시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문으로 수행을 하든 우리의 마음을 지혜안에 두기만 하면 이미 천국에 가까이 간 것이며 좋은 경지에 근접한 것입니다. 여기(지혜안)에서라야 우리는 비로소 삼계를 벗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멍이 없는 이 지혜안을 제외하고 눈·귀·코·입·항문 등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지혜안에 눈도 없고 문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닫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만일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열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말은 지혜안에 어떤 구멍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체 안의 ‘눈’을 연다는 말이지 우리의 신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안이 열린 사람은 누가 열리고 열리지 않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문들은 모두 코나 눈이나 호흡을 사용합니다. 또는 마음을 관하거나 우리의 감각이 어떻고 신체의 감각이 어떤지를 관하며 단전이나 생식기관 등을 관합니다.

여러분에게 물겠는데, 만일 우리가 주의를 어딘가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곳에 두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상한 곳에 우리 주의를 기울여 무엇 하겠습니까? 배(단전)나 혀·코·입 같은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그것은 부처를 상징하지도 지혜를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의 문은 본래부터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영혼이 그 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마인드를 코끝이나 입·단전 등에 집중하지 않아도 영혼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되지요.

단전을 관하는 것은 모두 가짜 경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곳은 매우 뜨거우며 그 내면에는 지옥의 경지도 있습니다. 호흡과 단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낮은 등급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혼침에 빠졌을 때 단전으로 주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겠지만 수행이 높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수행을 하지 않아서 혼침에 빠질 일도 없는데 여기(단전)에 관심을 뒤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곳은 별일도 없거니와 상당한 힘이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차크라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해도 힘은 있습니다. 귀에다 두고 수행해도 힘이 있고 마음이나 단전에 두어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계 이내의 신력(神力)이고 삼계 이내의 힘으로서 해탈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두뇌가 자유롭도록 훈련시키려면 우선 자유의 상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의력을 바깥 어딘가에 두어야 하지요. 바깥이라고는 해도 사실은 내면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영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의 두뇌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몸은 감옥이기 때문에 몸의 그 어떤 부분에 마음을 두더라도 모두 감옥 안에 있는 것이며 어디로 들어가든 여전히 이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해탈을 하려면 이 집, 이 방, 이 감옥을 벗어나서 나가야겠다는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범죄자들도 모두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 감옥 안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법문이라면 사람들에게 사물을 관조하고 자신을 훈련하도록 가르쳐 자유로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며, 날마다 두뇌에게 백 년밖에 살 수 없는 이 무상한 몸에 집착하지 말고 어서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어디를 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으니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준 곳 이외의 다른 곳은 모두 무상하니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직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 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없다면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

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 또는 주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깨닫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또 그들이 여러분을 좋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르치는 관음법문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힘도 있고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도 있어 갖가지 수행의 경지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길도 잃지 않고 어디를 가든, 자신이 보게 되는 경지가 무엇이든 모두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만일 두 사람이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경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경지가 거짓이라면 두 사람 다 똑같은 것을 볼 수는 없겠지요. 관음 수행자들은 동일한 수행 등급에 이르게 되면 같은 경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평후에서 타 이베이까지 갈 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표지판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문을 수행하면 아주 안전합니다. 수행의 길목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내면의 스승이 보호해 줄 것이고 외면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의 스승이 도와 줄 것이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훌륭한 법문을 선택하지 않고 적당히 아무렇게나 수행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영혼(혹은 우리의 주인)이 신체를 빠져나갈 때는 그 상황이 마치 죽음과 같을 테니까

요. 좋은 인도자가 없으면 많은 아수라·마귀·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들은 관세음보살·아미타불·신 혹은 천사로 변하여 우리를 속일 것이며 아름다운 경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가서 보라고 하겠지요. 만약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면 즉시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답던 세계도 원래의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함정에 빠져 버려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해서 진정으로 해탈하려면 반드시 경험이 있는 인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도 알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갖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다 알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도자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마구잡이로 수행을 하거나 잘못된 스승을 찾아 잘못된 법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수록 장애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마장에 걸려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경지와 가짜 경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법을 전할 때 스승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하나씩 주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다수의 법문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지만 어느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거나 장애가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염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염불’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지는 마세요. 그들의 상황은 여러분과 달라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그 방법대로 염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염불로는 궁극적인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곳에 이르려면 내면의 관음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어느 등급에 이르게 되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이비설신의가 없어지면 그때는 마땅히 소리에 의지해서 우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문으로 수행을 하면 일정 등급에 이른 후 정지해 버리고 말지요. 이를테면 호흡 수행법으로도 삼매에 들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호흡도 사라지고 그곳에 그냥 돌처럼 앉아 있게 됩니다. 호흡도 없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때 그곳에 앉아 삼매에 드는 것은 맞지만 진보하지는 못하고 그저 멈추어 있을 뿐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중 두 가지는 최고로 올라가 봤자 삼계 이내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삼계를 넘어서는 반드시 ‘소리’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삼계를 넘어가면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스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없지요. 그래서 스승과 보호하

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 가지 법문이라 말했지만 거기에 스승이 합쳐지게 되면 네 가지가 됩니다. 스승이 없으면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은 소리도 빛도 전혀 없어서 올라가기가 그리 쉽지 않으니깐요. 수행을 하다 그곳에 이르게 되면 길을 찾지 못해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 찾지 못하고 의지할 만한 어떤 뚜렷한 소리도 듣지 못하지요. 그 칠혹 같은 암흑의 세계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안전합니다.

정토淨土와 예토穢土는 바로 이 어두운 세계에 의해 분리됩니다. 우리는 예토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며 정토의 힘 또한 예토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예토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불보살의 힘이 예토를 축복하고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육체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 필히 사람으로 화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범부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바로 신의 힘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 있는 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집으로 흘러오게 된다면 더러워져서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거리는 아주 더러워서 물이 심하게 오염될 테니까요. 불보살의 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토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지만 예토로 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순수한 힘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큰스승의 육신을 통해야만 합니다. 그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불보살의 힘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수도

관처럼 내면의 순수한 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현세불, 즉 살아 있는 진정한 스승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보살이 정토에서 바로 사바세계로 빛을 비추면 될 것을 왜 석가모니불이나 다른 역대 수많은 큰스승들이 이 세계에 와서 중생을 제도해야 했겠습니까?

입문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순수한 신의 힘, 즉 부처의 소리를 얻을 것입니다. 사실 부처의 소리도 이 세계에 오면 세상의 소리로 변해 버립니다. 우리는 밖에서 새 울음소리·물소리·파도소리 등을 들지만 모두 순수한 부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리는 해탈할 수 없으며 삼매의 열락悅樂에 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높은 경지로 올라가 대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부처의 경지에 대해 알 수도 없고 부처에게 배울 수도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며 듣게 되는 소리는 내면에 있는 영체의 순수한 소리입니다. 『보문품』과 『법화경』에서는 종소리·북소리·천둥소리·파도소리·움소리·세간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승피세간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는 석가모니불의 제자들이 입문할 때 체험한 것들입니다. 당시 그들은 막 입문한 상태여서 체험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런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문품』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는 것입니다. 『보문품』은 부처가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에게 해 준 말로서 무진의보살이 입문할 때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입문할 때 체험한 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입문할 때 체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상

황이 거의 비슷하지요. 여러분은 “칭하이 스승님이 관음에 대해 얘기하자 무슨 소리가 있었다.”라고 쓰고는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보문품」에 써어 있는 체험과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체험은 그다지 높은 등급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 호기심으로 자신의 체험을 써 놓을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절대로 자신의 등급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후세들이 여러분이 기록한 체험을 본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세간의 소리를 듣도록 가르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체의 체험인데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옴소리나 파도소리가 가장 높은 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더 높은 경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입문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었으니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전에 써어 있는 것은 석가모니불의 제자가 입문할 때 체험했던 것이고, 그들도 처음 입문했을 때는 등급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입문할 때 몇몇 사람은 당시 무진의보살의 체험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았나요? 다만 나중에는 그의 수행이 좀더 높아져서 그의 등급도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문할 때 당시 무진의보살의 체험보다 훨씬 높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가르침에 대해 의심이 가거나 좀더 알아보고 싶다면 불경을 보십시오. 불경은 내 가르침을 증명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은 내가 가르치는 법문이 진법眞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왜 경전이 소용이 없다고 하는지, 경전을 외우는 것이 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한 말과 가르침, 그리고 입문 때의 체험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매일 외운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문품」을 외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우면 외울수록 원기만 소모될 뿐인데요. 경전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대중 웃음)

나는 이미 살아 있는 스승, 즉 살아 있는 선지식이 죽은 부처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스승만이 이 순수한 힘을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단지 ‘사람’에게만 이심전심으로 말없이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 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중생들은 ‘생각’이란 것이 없습니다. 동물의 의식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입문을 시켜 준다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해한다 해도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인간의 몸에는 많은 도구가 있으므로 이 몸이 있어야 그 힘을 받아들이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보살이 사바세계에 오려면 반드시 이 육체가 있어야 그 순수한 힘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별 대수로울 건 없지만 수질을 보호하고 물을 운반하는 데 그 특별한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용해서 물을 보낸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수도관이야말로 전적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물이 외부의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불보살의 힘을 담고 그 힘을 보호하는 전용 도구로 쓰이며, 불보살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수도관은 여러 개의 수도관에 연결될 수 있고 그 수도관으로 공급되는 수질은 모두 똑같지요. 물은 수도관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수송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 발전소에서 창조되어 나옵니다. 생명·동물·우주·별·달·태양 등 모든 것이 그곳에서 나오지요. 그것은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거나 줄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사용하든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큰 힘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아주 고통한 생명이 되어 수많은 고통과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지혜가 없으니 우리는 아주 보잘 것없는 힘과 지혜만으로 가까스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조절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큰 힘과 서로 통하게 되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곤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큰 힘과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중생도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도 큰 힘을 갖추게 되니까요. 비록 여러분은 이제 막 입문을 했지만 그래도 중생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단지 힘이 크지 않을 뿐이지요. 수행을 많이 할수록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지가 높아질수록 점점 강해질 테고요. 그러므로 대수행자는 이 세상에 가피를 줄 수 있고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가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하지 않은 것이나 같다는 뜻이지요. 우리 자신도 중생을 돕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입문한 사람에게는 이미 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적든 자신의 친척들에게 가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하면 5대 조상이 천도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5대가 천도되고 그후에도 이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와 통하게 되어 힘이 아주 크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이 집에는 원래 전등이 많지 않았지만 주선(主線)을 사용하여 발전소와 연결시킨 후 다시 여러 선을 연결하였더니 냉장고·선풍기·마이크·전자시계·전화·텔레비전·전동·전기솔 등 아주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선이 발전소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입문하면 5대 조상이 천도될 뿐 아니라 아주 많은 친척과 친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불쌍하다

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는 이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복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하기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황이 점차 호전될 것입니다.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지요. 사실 그것은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큰스승의 힘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조금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많이 할수록 힘은 더욱 커지며 나중에 성불해서 큰스승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힘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한 힘을 갖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더라도 가피력은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지만 지금 막 일을 시작하여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면 가정을 유지하고 자신이 조금 쓰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겠지요. 그 뒤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고아나 과부·병자·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자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모두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달았군요. (대중 웃음) 놀라워요! 내 중국어 실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빨리 이해시킬 정도로 유창하였다니 믿을 수 없군요. 아마도 우리의 인연이 깊은가 봅니다. 강연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쉽지 않거든요! 내가 말한 것들은 전적으로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나니 그렇게 매끄럽

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나 자신도 놀랍습니다. 시방제불의 가피 덕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또한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도록 가피를 주어 그렇게 빨리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신과 시방제불 제보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음법문 입문과 5계

【관음법문 입문】

칭하이 스승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觀音’은 소리의 진동을 관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에 대한 명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한 명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요한복음 1장 1절).”라고 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Logos·샤브드Shabd·도道·음류音流·나암Naam, 또는 천국의 음악으로 불려 왔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선율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른 모습으로 상당히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신의 빛은 ‘깨달음(enlightenment)’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태양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관음법문 입문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이 법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스승의 가피가 없다면 명상법 자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개오卽刻開悟’라고 하기도 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문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현재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 어떤 단체에 가입하러거나 참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비건 채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비건 채식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이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력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버팀목 없이 누구나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스승님은 추종자나 숭배자, 제자들을 구한다든지 회비를 걷는 단체를 설립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절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런 것을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聖人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받아들입니다.

[5계]

1.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마라.¹⁾
2.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마라.
3.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마라.
4.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마라.
5. 중독 물질을 취하지 마라.²⁾

1)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이나 무정란 모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에는 술·마약·담배·도박·음란물, 그리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나 서적, 비디오 게임과 같은 모든 종류의 독극물이 포함됩니다.

간행물 안내

책

즉각 깨닫는 열쇠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한국어(1-11), 헝가리어(1).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한국어(1-4), 헝가리어(1).

1992년 선철 특별판

어울락어, 영어.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특별판

영어(1-6), 중국어(1-6).

사제시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신기한 감응

어울락어(1-2), 중국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끼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헝가리어.

감로범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영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무상 주방(1)—전세계 채식 요리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깨들(1, 2)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고귀한 아쟁

독일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영어, 중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아네즈 드르노프세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태국어, 한국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http://www.crisis2peace.org>

시 작품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한국어.

무자식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조약돌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영어.

뮤지컬 진정한 사랑 DVD.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7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황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시간의 그늘(시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의 노래 (어울락어, 영어 노래 공연): DVD.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조국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DVD.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CD.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둥어, 그리스어, 네덜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필리핀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우리 서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출판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출판물 온라인 주문
<http://www.theCelestialShop.com>
<http://www.EdenRules.com>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80개 언어)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주요 연락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P.O.Box 9, Hsihu, Miaoli Hsien, Formosa, Republic of China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이메일: Info@SupremeMasterTV.com
 전화: 1-626-444-4385/ 팩스: 1-626-444-4386
<http://www.suprememastertv.com/kr>

경서 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온라인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영어)
<http://www.EdenRules.com> (영어, 중국어)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2226-1345/ 팩스: 886-2-2226-1344
<http://www.sm-cj.com>

러빙푸드 온라인 쇼핑몰

<http://www.lovingfood.com.tw>

러빙허트 인터내셔널

전화: 886-3-468-3345
 팩스: 886-3-468-1581
 이메일: service@lovinghut.com
<http://www.lovinghut.com/tw>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2-8787-3935/ 팩스: 886-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82-54-535-925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chinghaiyd@naver.com
 전화: 82-54-532-5821/ 팩스: 82-54-532-5822
 (해피요기·SM 보석·천의·만세등·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제3권

펴낸곳: SM출판사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음3길 205번지

전화: (054) 535-9251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출판 신고: 제511-5110000251002006000002호 2006년 3월 7일

이 책의 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얻으면 이 출판물의 내용을 복제해도 좋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과거 구도의 힘든 과정에서 완전히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과 진정한 법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참스승들에 의해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문을 수행하여 대단히 큰 이로움을 얻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일세해탈—世解脫을 갈망하는 많은 구도자들을 돕고자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The Supreme Master Ching Hai)가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으로 여러분은 생명, 삶과 죽음, 수행과 진리 등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